



3

1990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0. 3호

(루계 509)

◇◇◇◇◇◇◇◇◇◇

차 례

◇◇◇◇◇◇◇◇◇◇

작가들은 현실주제의 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자	4
만경대로 가시는 길	6
하늘(2).....	7
소백수가 진달래	7
대통령은 감사드리다.....	8
함박눈	9
봉화산의 나팔소리	10
그 진정이 귀중해.....	10
광정마을의 초가집앞에서.....	11
그날의 나루가에서	12
영원한 《군화》	13
첫 세대 (외 1 편).....	14
나의 전우들	14
어은동의 구호나무	15
푸른 기념비	16
그 설레임소리로 하여.....	17
궁지	18
우리 분공장	19
우리 문학은 인민들을 자주성을 위한.....	20
투쟁으로 부르는 참다운 주체의 인간학.....	20
우리집	25

전사의 마음	26
뻘쭙새가 노래하는곳.....	27
물소리	38
사시절의 노래	39
력사적인물과 현대인간들에 대한 생각	42
《고향시초》를 보고.....	44
진달래꽃무늬.....	45
기타를 타네	56
농장의 새 모습	57
대동강물우에 띄우는 련시	60
진실, 그것으로 하여 (외 2 편).....	62
아들이 광부라오	62
나는 자주 무산의 밤거리를 걷는다	63
생활묘사의 풍부성과 다양성	64
고향의 어머니	65
쇠찌르러기	66
비옥한 땅.....	78
금꿀의 둥근달.....	80

작가들은 현실주제의 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자

1990 년은 우리 인민이 커다란 포부와 굳은 신념을 가지고 더욱 분발하여 힘차게 전진하여야 할 희망의 해, 투쟁의 해이다.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오랜 기간 간고한 투쟁을 계속하여온 우리 인민은 오늘 력사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있다.

1990 년대에 들어서서는 올해에 우리 작가들앞에는 무겁고도 영예로운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 문학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영예로운 과업을 수행하는데서 큰 역할을 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새로운 기적과 위훈의 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오늘 혁명적인 우리 문학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사회주의대건설을 빛나는 승리로 이끌어내가는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한 작품들을 최상의 사상예술적수준에서 창작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한 문학작품들은 우리 인민들을 혁명적수령관이 확고히 선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사상교양의 튼튼한 무기로 된다.

그러므로 우리 작가들은 사회주의건설을 현명하게 령도해나가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한 문학작품을 창작하는것을 시대가 요구하는 초미의 문제로 깊이 간주하고 여기에 큰 힘을 넣어야 하며 사상예술성에 있어서 완벽한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문학은 위대한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워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변심을 모르고 사회주의대건설행군에서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기를 위하여 애쓰는 참다운 혁명전사들을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건설자들의 영웅적투쟁모습을 형상한 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서 대기념비적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이 힘있게 벌어져 거창한 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오르고있다.

우리 작가들이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따라 력사적전환기를 펼쳐가고있는 영웅적현실, 영웅적건설자들의 형상을 빛나게 창조하는것은 우리 당이 안겨준 가장 영예롭고 숭고한 임무이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들끓는 건설장마다에서 시대정신을 뜨겁게 느끼고 예리한 창작적안목으로 주체형의 인간을 찾아내야 하며 그 빛나는 성격형상을 통하여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밝혀내야 하며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함으로써 건설자들과 근로자들의 심금을 울려야 한다.

우리는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2 단계건설장에 계속 다양한 문학작품을 창작하여 보내주며 사리원카리 비료련합기업소건설, 200 만톤강철공장 건설, 그리고 발전소건설장의 투쟁과 생활을 반영한 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문학은 사회주의건설에서 판견적의의를 가지는 주공전선을 담당한 건설자들이 높은 자각을 가지고 창조적적극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건설에서 새로운 《90 년대속도》를 창조하는 투쟁모습을 깊이있게 그려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전력, 석탄, 금속 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을 형상한 작품을 많이 내놓아야 한다.

전력, 석탄, 철강재 생산을 빨리 늘여야 사회주의대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다.

작가들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창조적힘과 지혜를 합치고있는 로동계급의 투쟁모습을 생동하게 보여주는 문학작품들을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하게 창조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고무추동하는 동원적역할을 잘하여야 한다.

특히 전력공업, 석탄공업, 금속공업 부문에서 기술을 대담하게 혁신하고 설비를 보강하며 앞선 생산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전력, 석탄, 철강재 생산을 늘이는 로동계급의 실생활을 생동하게 예술적형상으로 진실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현시기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은 경공업발전에서 새로운 비약을 가져오고 우리 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을 한계단 더 높이 올려세울것을 요구하고있다.

오늘 우리 문학은 당의 경공업혁명방침을 예술적으로 일반화하는것을 매우 절실한 문제로 제기하여야 한다.

경공업부문 일군들의 전형을 창조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인민생활을 책임진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을 높이 발양하는 그들의 성격적특질을 감명깊게 부각하는것이다.

올해에 우리는 경공업공장들을 더욱 현대화하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원료와 자재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모든 경공업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려야 할뿐 아니라 천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고 인민들의 기호에 맞는 질 좋은 일용품과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인민의 총복으로서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인생관화한 경공업부문 일군들의 전형을 잘 형상하자면 그 어떤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누가 보건말건 인민을 위하여 한몸바치는 성실한 인간, 가장 진실한 인간으로 형상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경공업부문앞에 나서는 과업을 관철하는 길에는 탄탄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애로와 난관, 겹쌓인 진땀길도 있다. 맡겨진 혁명임무를 수행하는데 마력을 내지 않으며 당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데 대하여 가슴 아파하지 않고 앉아서 우는소리만 하는 부정적인 요소들도 생활적으로 예리하게 파헤쳐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우리 시대 농업근로자들이 체현하고있는 시대적인 성격의 특질과 사상적지향성을 심오히 밝혀내야 한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30 만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하여 서해바다를 기름진 옥토로 전변시키고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뿐만아니라 수리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고 기계화, 화학화를 힘있게 추진하며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당이 제시한 농업생산목표를 반드시 점령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시대 농업근로자들의 성격적특질과 사상적지향성을 깊이있게 밝히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지닌 주체의 인생관을 심오하게 형상하는것이다. 이것은 오늘 사회주의농촌 현실주제작품창작의 중요한 미학적요구로 된다.

문학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과 지극한 효성을 다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무한히 헌신하고있는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인생관을 깊이있게 천명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주체농법관철에서 앞뜰한 일본새의 결여 등과 같은 낡은사상 잔재, 낡은 생활습성과의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이며 동지적협조와 단결을 더욱 강화하여 집단주의를 높이 발양하고있는 농업근로자들의 일본새를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자연을 길들이고 개조하는 사회주의농촌건설이야말로 혁명적광만도 있고 창조적로동의 보람과 희열도 있으며 청춘의 패기와 정열도 끓어넘치는 약동하는 현실이다.

30 만정보의 간석지건설자들과 물길공사 건설자들만이 지닐수 있는 생활에 대한 아름답고 숭고한 시대적지향, 대자연개조자의 긍지를 안고 청춘도, 생명도 다바치려는 영웅건설자들의 충성심과 대중적영웅주의,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성장 발전하는 인간적품모, 이것이 우리가 생활에서 탐구하고 형상으로 무르익혀야 할 알맹이이다.

우리 문학은 또한 도시와 농촌들에 현대적인 살림집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인민들의 식의주 문제를 사회주의적요구에 맞게 더욱 원만히 해결하는데서 모든 힘을 다하는 사람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적품모에, 사회생활의 3대분야인 정치생활과 돈화 생활, 물질생활을 다같이 발전시키며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 커다란 힘을 기울이고있는 일군들의 보람찬 노력에 응당한 힘을 넣어 형상적모를 박아야 한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한 우리 당의 총로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옳바른 길을 밝혀주는 가장 정당한 로선이며 우리 당이 창조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제는 당의 령도와 혁명적군중로선을 옳게 결합하여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칠수 있게 하는 우월한 사업체제이며 사업방법이다.

작가들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제를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의 자랑스런 투쟁모습을 진실하고 설득력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문학은 우리 식 문학작품을 왕성하게 창작하여 문학분야에서 주체사상의 가치를 더 높이 추켜들어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둘러메고 창조의 우렁찬 메아리가 힘차게 울려퍼지는 현실로 깊이 뛰어들어 생활의 본질적인 측면들을 체험하고 전투적으로 창작함으로써 전투장마다에 새 힘과 용기를 안겨주는 전투적인 시와 노래로 넘치게 하며 시대를 체현한 영웅적성격을 창조하여 생활의 참다운 거울,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충성의 거울로 내세워야 한다.

모든 작가들은 현시기 당의 요구를 가슴깊이 명심하고 투쟁과 광만으로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가 품들여 창작함으로써 주체사상의 가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금을 울리고 그들을 새로운 위훈과 기적의 창조에 힘있게 떠밀어주어야 할것이다.

만경대로 가시는 길

유국진

겨레의 원한이 하늘땅에 사무쳐
눈보라 너도야 울분속에 몸부림치느냐
우리 수령님 만경대로 떠나시던 아침
팔도구의 눈보라도 머리를 숙이었네

겨레의 참상 안아보시러 가시는 길
눈보라 너도야 천리길에 따라서느냐
두루마기 훨훨 날리시는 우리 수령님
가시는 그 길우에 날개를 달아다오

길 아닌 길을 찾아
해빛조차 스며들기 주저하는 밀림속
오가산 험한 령도 넘고넘으시며
쉬임없이 가시는 배움의 천리길

아혼아홉 굵이 굵이 개고개는 어디메나
너도야 허리펴고 길을 열어라
자옥자옥 큰뜻을 새겨가시며
조국산천 안으신 우리 수령님앞에

정든 고향 버리고 타향 멀리 북간도로
한숨쉬며 떠나가는 겨레의 모습
일제의 쇠사슬에 신음하는 조국땅
걸음을 멈추시고 오래오래 바라보셨네

피나리보짐에 실음 없은 저 얼굴의 그늘
언제면 그 언제면 다 가져주랴
그 정상 다 헤아릴길 없어
비분을 누르시며 지켜보신 수령님

집도 없는 산전막로인의 구슬픈 한숨소리
략탈의 채찍이 사나운 캄캄한 밀림속에서
텅-텅 설음만 찍어내는 별목공의 도끼소리
곡절많은 운명을 다 안고 가시는 길이어

그 길에서 민족의 원한 다 헤아리시고
그 길에서 억눌린 조국을 다 아셨네
아버님의 그 뜻이 조국으로 잇닿아
어머님의 그 손길 천리길에 뻗어있어

눈보라도 증오로, 화불로 타오르고
일제를 때려부실 장수힘 키우신 길
빼앗긴 조국을 기어이 찾으리라
강철의 의지를 버리신 혁명의 길

아, 우리 수령님 만경대로 가시는 길우에
자유의 봄, 인민의 몸은 태동하고
겨레의 숙원이 닿아있는 그 길우에
오늘의 조선이 이어져있었네

하늘 (2)

리병철

나는 몇 살때에
하늘을 처음 쳐다보았는지
좀처럼 생각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맨처음 내가 본 하늘은
나의 석자이름
꽤말로 세운 분여지 발머리에서
장군님의 은덕 입속말로 속삭이며
안해와 함께 쳐다보던 그 푸르름일것입니다

어린것들의 발자욱
꽃잎처럼 새겨진 트랙우에도
《홍부》네 박 주렁진 지붕우에도
장군님의 은덕은 푸른 하늘로 늘 얹혀있어
그 하늘아래 우리는 부럼없었습니다

말은 다정스레 나누며
일은 억척스레 축내며
직심스레 글공부도 하며
우리의 삶은 참으로 복받은 삶이었습니다

하기에 미제가 불구름을 몰아왔을 때는
발이랑에 호미를 내던지고
군사동원부로 읍내길 달려갔고
애벌논김 매던 이 손이
방아쇠를 당기며 보병삽으로 전호를 뚫았습니다

아, 하늘, 조국의 하늘
푸르지 않고서야 그 무슨 하늘이었습니까
하늘의 그 푸르름이 하 소중해
팔을 잃고 다리를 잃었어도
수류탄을 입에 문채 원썩을 노려보며
자신이 **김일성** 장군님의 전사임을 잊지 않았습니
다

날아오는 포탄 전호턱에 작렬할 때마다
돌가루, 흙먼지 날아들어 눈이 안보일 때도
전사들은 그러보았습니다
승리의 열병식 밝은 하늘아래
단상높이 서시여 전사들을 축하해주실
수령님의 웃음 담으신 그 영상을...

...그 영상이 바로
고향에 두고온 나의 트랙, 나의 지붕우에
밝은 해빛을 엮어주며 별빛을 엮어주며
사철 푸르던 그 하늘이기때문입니다

그 영상이 바로
무거운 집에 짓눌려 땅만 보며 살던 내
분여지 발머리에서 안해와 함께
맨처음 쳐다본 그 하늘이기때문입니다

가사

소백수가 진달래

윤경

고향집 그리워 여기에 피었나
눈속에서 피어난 소백수가 진달래
남먼저 봄을 안고 향기를 풍기며
붉게붉게 피어난 조국의 꽃이어

정일봉 높이 솟아 여기에 피었나
송이송이 활짝 핀 소백수가 진달래

동트는 백두밀영 노을을 안고
추억을 부르며 곁게도 피었네

사향가 정다워 여기에 피었나
소담하게 피어난 소백수가 진달래
백두의 영원한 정기를 안고
혁명의 성지에 붉게도 피었네

대통령은 감사드리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 최우선권을 부여하시며 모든것을 복종시키신다.

1979년 10월 어느날이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한 기네인민혁명공화국 대통령과 화기에 넘친 담화를 하시였다.

오래전부터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여오던 대통령은 담화끝에 자기가 품고있는 안타까운 문제를 말씀드리였다.

그것은 앞으로 자기 나라에서 아프리카통일기구 제 20차 수뇌자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회의할만한 장소가 없다는것이였다.

그러면서 회의장을 건설하도록 도와주시었으면 하는 청을 드리였다.

그 소청을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아직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 나라 인민들을 생각하시여 대통령의 요구대로 꼬나크리에 국제적인 회의장을 건설해줄데 대하여 쾌히 수락하시였다.

이 사실을 아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지체없이 한 일군을 부르시였다.

그러시고는 방금 있는 사실에 대하여 들려주시고 기네에 아프리카통일기구수뇌자회의장을 건설해주는것은 수령님의 대의원조, 대외건설구상을 실현해가는 또하나의 보람찬 사업이라시며 수령님께서 약속하신대로 수뇌자회의장을 잘 건설해주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로부터 얼마간의 시일이 지난 어느날이었다.

이날도 그이께서는 중앙기관들과 지방당조직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일일이 료해하고 결론을 주시며 매우 바쁘신 시간을 보내시다가 기네의 수뇌자회의장건설사업이 넘려되시여 해당 일군들을 집무실로 부르시였다.

일군들은 서둘러 필요한 보고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계시는곳으로 갔다.

그들이 대기실에 들어섰을 때에는 그이께서 집무실에서 다른 부문 일군들과 한창 협의회를 하

고계시였다.

그들은 협의회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쯤 지나서였다.

집무실의 문이 열리더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대기실로 나오시였다.

부르신 일군들의 도착여부를 알아보시려고 나오시였던 그이께서는 그들을 보시자 반색을 하시며 어서 방으로 들어가자고 이끄시였다.

그이의 뒤를 따라 집무실에 들어선 그들은 주춤거리며 어찌할바를 몰랐다.

집무실의 앞상두리에 많은 일군들이 그냥 앉아 있는것으로 보아 협의회가 아직 끝나지 않은상싶었기때문이었다.

그들이 머뭇거리는것을 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방안의 일군들에게 이 동무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먼 아프리카땅에 가서 수고할 동무들이라고 하시며 국내에서 할 일은 좀 후에 토론하고 기네수뇌자회의장건설문제부터 보아주자고 말씀하시였다.

그리하여 이날 중요한 협의회는 잠시 중단되고 그대신 기네수뇌자회의장건설문제가 토의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먼저 회의장건설사업추진정형을 료해하시고 걸리고있던 문제들을 즉석에서 풀어주시였다.

여기에서 가장 긴절한 문제는 건설기술자, 기능공 파견문제였다.

이무렵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대학습당을 비롯 한 대규모의 건설사업이 도처에서 힘있게 벌어져 건설 기술자와 기능공 한명이 참으로 귀중하고 요긴하였다.

하지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른 나라 국가수반과 언약하신 국제회의장건설사업은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하시며 유능한 목공, 전공, 용접공, 연공, 제관공, 기계수리공 등 직종별 시공기술자들을 아낌없이 보내게 하시였다.

그리고 설계일군들이 모자라는것을 아시고는 구조설계와 건축설계, 전기설계, 환기난방설계 등

수많은 설계일군들도 다 보낼데 대하여 가르치시었다.

이렇게 되어 조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아프리카대륙에 여러 직종의 건설대표단들이 파견되어 일찌기 볼수 없었던 새로운 건설속도, 주체조선의건설속도를 창조할수 있었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대통령과 약속하신 짧은 기간에 최상급의 국제회의장이 건립될수 있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은 그 나라 대통령은 바쁜 일들을 다 뒤로 미루고 회의장을 찾아와 돌아보

았다.

그리고나서 경탄과 흠모의 정을 담아 이렇게 말하였다.

《정말 훌륭합니다. 최상급입니다. 저의 존경하는 형제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런 세계적인 회의장을 마련해 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수령님의 언약을 실현시켜 저희들을 도와주신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 충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립니다.》

함박눈

문동식

햇숨같이 부드러운
요람처럼 푸근하게
함박눈이 내리네 백두밀영에
내려와 밀림의 바다를 잠재우네

소백수기슭의 애기바위도
눈속에 아지 떠는 어린 봇나무도
단잠속에 고운 꿈 어서 꾸라고
내리며 소복이 덮어주는 함박눈

아, 함박눈 송이같이 부푼 솜으로
비단이불 누비여 은수금수 놓아서
에서 탄생하신 친애하는 그이께
포근히 덮어드렸더라면...

허나 그날에, 력사의 그날에
그이를 애지중지 감싸드린것은
군복숨을 갈라내여 어머니 지어드린
작고도 엷은 수수한 이불한채

사나운 맹수같이 울부짖는 광풍을
저 작은 이불이 다 막을수 있었던가
산악을 물어뜯는 앙칼진 눈보라를
저 엷은 이불이 다 녹일수 있었던가

펼창문을 때리는 채찍같은 설한풍에
단잠에서 놀라깨는 때도 있었으리

귀틀벽에 돋치는 성에의 차거움에
때로는 긴긴밤을 잠못드셨으리

하늘에는 칼바람, 땅우에는 얼음바다
날던 새도 돌처럼 떨어지는곳에서
이 세상 빙설을 녹여내실 봄을 안고
친애하는 그이께서 자라셨거니

아버이수령님의 뜨거운 햇빛에
이 강산에 덮인 얼음 녹은지 오래건만
그래도 그날의 촉한을 안으시고
은혜의 봄빛만을 뿌리시는 그이

그이의 봄빛 넘치는 하늘에서
포근한 함박눈 송이송이 내리네
이 땅우에 락원을 꽃피워주시는
그이의 은정실고 내리고 내리네

어머니 갈라내신 그날의 군복숨을
온 하늘 가득히 피우고피우시여
산과 들을 따뜻이 감싸주시는듯
누리를 훈훈하게 덮혀주시는듯

아, 천리수해 아득히 함박눈 내리네
햇숨같이 부드러운
요람처럼 푸근하게
하늘땅은 그이품에 행복의 꿈을 꾸네

봉화산의 나팔소리

에르난 알타미라노 팔꼬니

뿌리 깊고 가지 무성한
아름드리 나무처럼
희망과 역센 기둥 세워주었어라
김형직선생님 올리신 나팔소리

외진 학교 들길 지나
봉화산 언덕에서 올리신 나팔소리
억눌린 가슴마다

신심 가득 안겨주었어라

세월은 흘렀어도 변함없이 울려오는
나팔소리 나팔소리 오늘도 메아리치네
나라찾는 싸움에선 《지원》의 뜻 가지라고
김형직선생님 하시던 그 말씀 그 뜻을
(필자는 빼루시인임)

그 진정이 귀중해

전찬기

누가 보리라고
딱히 타산하며 쓴것 아니다
몇십리, 몇백리로 인가에서 먼곳
날새와 짐승들만 이따금 지나가던
백두산 밀림속의 이 글발

허나 정한 유리관속에 뚜렷이
오늘도 수많은 심장들을 격동시키고있어라
수수만년 인적없던 원시림의 나무들에
껍질을 벗기고 삼가 쓴 투사들의 붓글씨

장군님 받들어온 나날이
그 가슴에 불변의 신념을 새겨주어
충심으로 응결된 가슴속 진정을
목소리로는 다 웨치지 못해
여기 글발로 새겨놓은 구호목들이여

이 글발 새기던 순간도 투사는
풀뿌리만으로 끼니를 넘겼을수 있으리
아니면 추격의 치명상 입고
마지막운명을 앞둔 때일수 있으리

시련많던 투사들의 생애에
주립을 이기기 어려워도, 목숨 다해도
오로지 가슴속에 품은 그 진정만은
용암인양 타끓으며 솟구쳐올라
여기 새겼으리 한자, 두자...

몸은 흙속에 묻힌다 해도
넋은 살아, 천년만년 살아
그 진정만은 고이 지키고져
투사들 뼈로, 살로, 피로 새겼으리

아, 유리관속에 빛나며
찾아오는 수많은 가슴들에
투사들의 그 진정을
소리높이 웨쳐주는 구호목들이여

글발의 획은 비록 곧지 않아도
신념으로 불타는 투사의 진정
그리고 뜨겁고 귀중해
자라나고자라나는 모든 후손들도
읽으리라, 그 마음 새겨안으리라
경건한 가슴속에, 뉘뛰는 심장속에

광정마을의 초가집앞에서

조석영

오늘도 그날처럼
뜨락엔 함박눈 펄펄 내려앉고
사립문 활짝 열려져있는 초가집
광정마을의 수수한 초가집

송이송이 내리는 눈송이도
선생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인가
담장가의 나무가지에
하얀 눈꽃 곱게 피우건만
선생님은 안계시누나, 아니 계시누나

피비린 《한일합병》의 채찍밑에
산천초목도 울분을 토하던 그 시절
향방없이 헤매던 독립운동자들의 가슴속에
구원의 빛발을 안겨주신 거룩한 모습

2 천만 민중이 굳게 뭉쳐
조선독립 이룩하자고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왜놈들을 몰아내자고
뜨겁게 가르치시던 그 모습

조용히
내 서있는 뜰안으로 들어서실듯
어깨우의 흰눈을 터시며
이 시각도 새 소식 안고 들어서실듯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그리운 김형직선생님

생기 잃은 가슴들에
소생의 기쁨 안겨주신 그 목소리
지금도 뜨겁게 울려오는것 같아
그리운 마음 안고 조용히 다가서니
후더워오누나, 선생님 계시던 방안
무쇠화로의 숯불은 그대로 타고있는듯...

마을사람들에게 글도 배워주시고

민족의 슬기도 키워주신 그 손길
그 손길이 혁명의 새 세대 우리들을
따뜻이 맞아주는가
뜰안에는 함박눈이 하염없이 내려도
그날의 온기가 가득차 흐르는 초가집
아, 짓밟힌 겨레의 가슴속에
민족자주정신을 키워준
유서깊은 력사의 집이어

말하여다오
광정마을 나서시여 봉화리로
봉화리에서 다시 광정마을로
선생님 수없이 오고가신 길 그 얼마이더나
그 길에서 맞으신
차디찬 흰눈은 그 얼마이더나

그길에 맞으시던 함박눈을
오늘은 그 어느 들길에서 맞고계시는가
선생님 계시던 방안에는
뜨거운 숨결만 가득차 흐르누나

아, 아직도 내 조국 남녘땅이
외세의 구두발밑에 짓밟히고
자주권을 빼앗긴 혈육들이
침략자의 쇠사슬에 감겨 몸부림치고있거니

그 땅, 그 겨레를 구원하시려
선생님은 오늘도 먼길을 걷고계시는가
그리운 마음속에 뚜렷이 떠오르는
불굴의 영상이여

동터오는 통일의 새날을 위해
7 천만 겨레들 억세게 싸우자고
선생님은 뜨겁게 가르치신다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함께 계시며
선생님은 오늘도
투쟁의 전구를 걷고계신다

그날의 나루가에서

오광호

나는 지금 물소리 소연한 맥전나루가에 서있다.

류달리 밝은 3 월의 해빛이 푸른 수면을 속속들이 비치고 살랑거리는 물결속에서 하얀 조약돌들이 흔들거린다.

푸드드득...

부표처럼 강북관에서 흥떡이며 떠있던 물오리떼가 날아오르는 소리에 나는 머리를 들었다. 물보라가 일며 수백수천의 구슬이 부서져내렸다.

나는 점도록 움직이지 못했다.

아득한 그 시절,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이곳 맥전나루를 넘나드시던 그 나날에도 물오리떼는 저렇게 깃을 털며 날아올랐을것이다. 마치도 나라를 찾기위해 먼길을 떠나시군하던 선생님의 앞길에 금구슬, 은구슬을 뿌려드리듯. 그래서인지 잠시 눈을 감고 귀를 강구면 그 나날 선생님을 모시고 강을 건느던 나루배의 그 빼격거리는 노소리가 금시라도 들려올듯싶어 가슴이 찢어진다.

나는 나루가에서 강북관으로, 강북관에서 저쪽 기슭으로, 그 기슭에서 다시 이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세월의 흐름속에 참으로 산천은 많이 변했다.

대동강 흐름을 멈춰세우며 저쪽 기슭으로 뻗어간 현대적인 봉화갑문 그리고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갑문다리와 나란히 물밑으로 건너간 화려한 지하도로, 방금 날아오를듯 푸른 숲속 여기저기에 추녀를 건듯 들고 들어앉은 아담한 휴양각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변화된 산천의 그 하나 하나가 오히려 간절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며 못 건디게 가슴을 허뻛다. 그럴수밖에...역사의 그 나날 김형직선생님께서 여기 나루가에 남기신 그 모든 자욱들은 바로 오늘을 위해 찍으신것들이 아니었던가!

그런즉 몇년전 어느날, 웅장하게 일떠세운 봉화갑문 준공식을 위해 몸소 여기 맥전나루에 오셨던 어버이수령님의 심중이 과연 어떠했으랴! 아버님의 기별을 받고 어머님과 동생과 함께 뚝배를 타고 여기 나루에 오시여 봉화리사람들의 뜨거운 마중을 받으시던 잊을수 없는 그날도 회

고하셨을것이고 력사적인 평양회의에서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시고 흥분하여 돌아오신 아버님을 맞던 1917 년 3 월도 추억하셨을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랴!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날 멀리 봉화산쪽을 바라보시며 산마루에서 올려퍼지던 광량한 나팔소리와 명신학교 종소리도 상기하셨을것이고 아버님을 찾아 저 황해도와 전라도, 함경도와 경상도 그리고 멀리 간도와 중국대륙에서 온 독립운동자들을 맞고 떠나보내시던 그 하많은 일들도 기억하시었을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는 열네살때에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굳게 결심하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일찌기 어린 나이에 《광복의 천리길》을 떠나시면서 남기신 이 뜻깊은 명세! ...

하기에 그날 잊을수 없는 감회에 잠기신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은 한없이 설레이면서도 이 행복한 날에 단 한순간이나마 선생님을 모실수 없는 아픔으로 하여 뜨겁게 젖어있었다.

한 시인은 그에 대하여 이렇게 노래하였다.

독립의 큰뜻을 품으시고

싸우시다 너무도 일찌기 가신 부모님들

지금껏 살아계실 년세의 그 부모님들을

아, 여기에 함께 모시고싶은

인민의 마음이어

아름다운 물과 산

지상락원이 소리 합쳐

아버님과 어머님을 부르고 또 불렀거니

간절한 그 웨침소리

그날에 수문에서 울리는

물소리

물소리로 높았던가 목메었던가

그날로부터 몇년이 지나 나루가의 모습은 또

변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그날 손들어 가리키시던곳엔
근로자들을 위한 휴양각들이 줄지어 들어앉고 갑
문의 고기길로는 팔뚝같은 잉어, 초어, 송어들이
꼬리를 치며 떼지어 오르고내린다. 그리고 이제
날씨가 조금 더 따스해지면 어제날 돛배가 빼적
거리며 오르던 푸른 물길로 하얀 유람선들이 노
래를 싣고 떠올라올것이다.

나루가의 풍경은 앞으로도 또 변할것이다. 허
지만 유서깊은 이 나루와 더불어 영원히 변하지
않을것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모두의 마음속에 깊
이새겨진 김형직선생님의 기록하신 영상이며 위
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마련해

주신 락원의 강산에 선생님을 모시지 못하는 인
민의 아픔이다.

나는 경건한 심정으로 마음속깊이 새겨진 선
생님의 영상을 우러른다. 《지원》의 애국사상을 안
으시고 나라와 인민을 위한 투쟁의 먼길을 떠나
시던 그날의 모습이다.

그렇다! 선생님은 오늘도 몰아치는 광풍에 두
루마기자락을 날리시며 양춘을 불러오시던 어제
날의 그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혁명의 먼길을 가
고계신다.

썩! - 갑실을 빠져나가는 저 거세찬 물소리는
잊을수 없는 그날의 추억을 불러오고있다...

영원한 《군화》

김윤철

간백산밀영 귀틀집자리에서
우리들이 찾아낸 지하족바닥
어느 투사가 신었던것일까
깊어지는 생각, 후더운 마음

종이처럼 얇아진 바닥에
세번씩이나 덧창을 꿰맨 자리
눈에 박혀 눈 못떼며 쓸어만지니
가슴가득 채우며 들려오는 목소리

항일의 십오성상 하루같이 걸으면서
삶의 진창길은 한순간도 아니 걷고
만주광야 눈보라길 다 헤치면서
한자육도 대오에서 떨어진 일 없었다오

장군님따라 넘고넘은 혈전만리
땀아 꿰맨 지하족 몇백몇컬레
우등불 밝히고 달빛 벗삼아
돛바늘에 꿰인 베실 몇천몇발

자욱자욱 내딛는 그 발밑에
빼앗긴 삼천리 조국땅이 놓여있어
억척같이 받들어준 지하족바닥엔
그날의 그 숨결 뜨겁게 숨배였소

아, 인민들이 사선넘어 보내준
새 신발 거뜬히 바꾸어신고
멸적의 전장으로 내닫던 그날
귀틀집부엌에 정히 세워두었던가

투사들의 목소리 쟁쟁히 울리는
땀고 꿰맨 지하족 다시 불제
쿵! 인장처럼 가슴에 찍혀오는
영생의 자욱, 충성의 자욱자욱

참된 삶의 길에서 한번이라도
뉘어진 발로는 신을수 없고
그 한길에서 한자욱 떨어질세라
신들메를 조이고 또 조여신을
신념과 의지의 영원한 군화여!

첫 세대 외 1편

림공식

뜨거운 사연
길이 전하듯
끝없이 설레이는 수림속
한그루 구호나무앞에 서니

반세기
세월은 흘렀으나
못잊을 그 모습들 안겨와
눈시울 축축히 젖어들어라

아, 장군님 위업을 만대에 이어갈
백두의 광명성 찬연히 빛나
우리러 감격에 젖고
우리러 환희에 넘쳐
격정을 터치던 투사들이여

천연바위를 쫓고쫓아
영광의 기념비를 다듬어세우듯
정히 또 정히
나무껍질을 벗기던이는
구레나룻 기관총수아바인가

천세만세 빛나라
간절히 기원하며
정가로운 소백수 맑은 물 떠다
싱그러운 먹을 갈던이는
작식대의 그 너대원인가

한자두자
심장으로 새겨가는 글발마다에

맑은 래일이 어려있어
누리에 빛나는 조선이 있어

-백두광명성 만만세!

모시여
모시여
백두광명성 남먼저 모시여
그네들은 빛나는
아, 충성의 첫 세대!

넘치는 그 영광을 안고
부푸는 그 긍지를 안고
백두의 광휘로운 광명성을
희망의 등대로 우러르며
혁명의 먼길을 웃으며 헤쳐왔거니

넋으로
심장으로
친애하는 그이를
열렬히
뜨겁게 모시고 받든
승고한 그 정신이여

날이 가고
산천은 변해도
영원불멸한 충성의 그 글발
피끓는 가슴에 새기고
주체혁명위업의 한길로 가리라!

나의 전우들

정든 고향을 떠나 멀리
조국의 방선 전호가에서
보람찬 병사시절의 그 나날

우리의 우정이 맺어져서인가
부르면

한없이 미덥고
부르먼
더없이 친근한
오, 나의 전우들아
태어난 고향은 서로 다르고
성격과 생김도 서로 달라도
중대라 부르는 한가정속에서
마음과 마음을 하나로 합치며
고향집 친형제처럼

얼마나 살뜰히 정을 나누었던가
갈라놓을수도
깨뜨릴수도 없는
뜨겁고 진실한 우리의 우정은
소꿉시절 노을비긴 강변에서
학창의 나날에 맺어진것 아니어도

천리 강행군길에 부르튼 발에
따끈한 딱총을 놓아주고
무거운 배낭을 서로 뺏아메며
위훈의 걸음걸음 이끌어줄제
가슴속엔 뜨거움이 솟구쳤고

비내리는 속영의 밤
야전밥통의 설익은 밥도
서로 권하며 달게 먹으며
철갑모안에 깊숙이 간직했던
구수한 《비상용》담배도
맛스레 나누어 피울 때는
혈육의 정이 전류처럼 흘렀더라

가사

유서깊은 어은동 산마루에는
투사들이 새겨놓은 글발이 있네
광명성 비칠 날 멀지 않았다
눈물 말고 바라보라 백두광명성

아, 향도성 그려보는 민족의 희망
한가슴 간직하고 구호나무 서있었네

주체위업 빛나게 이어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이십대 령장의 자욱 새기며
령군봉에 백두기상 떨치시었네

저 하늘의 수리개처럼
용맹을 키워가던 날
아찔히 치솟은 칼벼랑앞에서
내 그만에야 주저하며 발걸음 멈출 때
누구였더냐, 폐부를 찌르던 목소리

전우의 그 목소리
얼어드는 보초소에
불들을 놓아주던 그때처럼
고맙게 고맙게만 생각되어
눈시울이 젖어들었거니

참된 동지의 그 사랑으로
마음의 진정을 다 안겨주는
이런 전우들의 가슴속에 내가 있고
행복히 내가 살아
그리도 병사시절을
빛나게 보내고있는것 이 아니더냐

아, 잊지 않으리
내 그 어디에 간대도
순간도 잊지 않으리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받들어
어머니조국을 목숨으로 수호하는
값높은 병사시절에만 만날수 있고
뜨거운 심장으로 사귄수 있는

동지를 위함이라면
청춘도 생명도 서슴을 모르며
영원한 혁명적우정을 지니고있는
아아, 나의 전우들이여!

어은동의 구호나무

렴영

아, 향도성 우러르는 민족의 환희
이 땅에 아뢰이며 구호나무 설레였네

끊임없이 찾아오는 혁명의 세대
충성의 글발앞에 걸음멈추고
광명성 영원히 높이 모시리
일편단심 그 맹세 굳게 다지네

아, 향도성 대를 이어 받드는 마음
소중히 간직하고 구호나무 설레이네

아, 어은동의 구호나무여!

푸른 기념비

윤승홍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의 간고하고 보람찬 로정을 당과 함께 걸어온 우리 인민들은 자기들의 산 체험을 통하여 굳어진 드립없는 신념으로써 우리 당을 끝없이 신뢰하고 따르고있으며 우리 당에 자신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습니다.》

나는 얼마전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불멸의 자옥이 어려있는 령군봉과 룡골산을 다시 찾았다.

최근에 어은동일대에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아로새겨진 수많은 구호나무들이 발굴되였다는 기쁜소식이 나의 발걸음을 못견디게 재촉했던것이다.

더우기 백두광명성이 솟았음을 알리는 귀중한 구호문헌들을 찾아냈다는 격동적인 소식에 접했을때 나는 류다른 흥분과 환희에 휩싸이지 않을 수 없었다.

나의 가슴이 그토록 걱정해 설레이게 된 그 기저에는 사실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다.

나의 어린 시절은 대봉산 기슭의 어느 자그마한 산간마을에서 흘러갔다.

봄이면 대봉산에 올라 푸르른 돌이끼에 빨간꽃잎을 짓궂어 손톱눈에 물들이기도 하였고 가을이면 돌배와 개암을 주으려 산발을 타고넘어 령군봉과 룡골산에까지 나오기도 하였다.

해방을 앞두고 내가 살던 산촌에도 여러가지 백두산전설이 급격히 퍼져나갔다,

그중에서도 나의 어린 가슴을 희망의 봄노을로 가득 채워준것은 백두의 하늘가에 솟아 빛난다는 광명성에 대한 신비로운 이야기였다.

우리 나라에 3 대통운이 텃으니 눈물말고 소물아 발을 갈자는 건드러진 발갈이타령이 나왔고 가난에 울던 아이들이 그 광명성을 바라보면 얼굴에 웃음이 피어나나고도 했다.

저녁이면 나의 아버지는 모기불이 피여오르는 마당가에 아이들을 모여놓고 멀리 북두칠성을 바라보며 우리 나라에 백두의 장수별과 함께 또 하나의 밝은 새별이 솟아 왜놈들은 곧 망하고 3 천리강산에 새 세상이 온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앞으로 백두광명성을 받들어 마음껏 배우고 춤추며 노래부르게 될것이라고 옛말삼아 이야기를 들려주곤하였다.

빨간꽃으로 피고싶어하면 빨간꽃으로 피어나게 파스하게 품어주고 파란꽃으로 피고싶어하면 파란꽃으로 키워주며 꽃나무의 소원을 다 풀어준다

는 백두광명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아버지의 무릎을 베고 솔곳이 잠들곤하였다.

꿈에서도 나는 백두광명성을 찾아가는 꿈을 꾸곤하였다.

그만큼 백두광명성에 대한 이야기는 나의 마음에 지울수 없는 인상을 남겨놓았던것이다.

멀리 흘러간 동요시절의 추억을 가슴속에 고이 간직하고있던 나는 이번에 어은동일대의 푸르른 산발들에서 백두광명성을 칭송한 구호나무들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으니 그 감격, 그 감회 얼마나 크고 깊은것이였으랴.

나는 먼저 령군봉에 올라 꺾질벗긴 소나무에 토박토박 새겨져있는 불멸의 글발들을 뜨거운 눈길로 더듬어보았다.

가까이 다가서면 아직도 향긋한 먹냄새 풍길듯한 구호나무에는 이런 글발들이 새겨져있었다.

《평안민들이여 눈물말고 백두광명성 바라보라》
얼마나 절절하고 심오한 내용을 담은 구호인가!

백두밀영을 떠난 항일투사가 백두광명성에 대한 기쁜 소식을 온 나라에 전하려고 함경산줄기와 북대봉산줄기를 타고넘어 남하하다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켜는지 그곳에서 멀지 않은곳에는 지척에든 만경대 바라보니 사향가창가소리 들려온다는 구호가 썩여져있었다.

또 다른 한 구호나무에는 이런 글발이 새겨져있었다.

《백두광명성 빛나는 조선의 미래 찬란하다》

룡골산의 바위터회합장소 근처에서는 《3 천리강...광명성비...》라는 구호와 《평안상공에 광명성 비칠날 멀지 않다》라는 구호가 현출되였다.

순간 나의 머리속에는 어린 시절 박우물집 할아버지가 조선에 3 대영결이 나섰으니 우리 평안도땅에도 백두광명성이 비칠 날 멀지 않았다고 하면서 무궁화 꽃피는 조선의 미래 찬란하다고 격찬하던 그 모습이 삼삼히 떠올랐다.

지금 생각해보건대 여기 어은동 푸른 숲속에 불멸의 글발을 아로새긴 항일투사들이 대봉산 기슭의 작은 우리 마을에도 들리어 명든 가슴들에 새힘을 안겨준것이나 아닌지...

우리고장에서 가까운 평성시 상차동과 신양, 운곡, 양덕지방들에서도 백두광명성을 칭송하는 수많은 구호들이 나왔다는것은 환희의 이 예감을 확신으로 더욱 굳혀주었다.

최근에는 구월산지구에서도 《2 천만동포들이여 백두광명성 솟았나니 자자손손 백두광명성 받들

고 조국광복 이루자》라는 구호를 비롯하여 시적이며 생활적인 구호들이 수많이 발굴되었다.

백두광명성을 받들고 따르자는 구호는 함경북도 연사군 삼하리에서도 온성군 삼봉로동자구와 회령군 송학리, 선봉군 백학리에서도 발굴되었다.

그리고보면 구호나무는 백두산밀영을 중심으로 한 북부조선일대는 물론 서부지구, 중부지구 그 어디에나 오늘도 푸르려 설레이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의 자랑이며 기쁨이며 온 나라 인민들에게 크나큰 경사를 안겨주는 행복이 아닐수 없다.

나는 샘솟아오르는 뜨거움을 지그시 누르며 새로운 눈길로 나의 어린 발자국이 찍혀져있는 산

밭들에 새겨진 구호들을 다시 한번 더듬어보았다.

세월의 눈비에다 씻기지 않고 백두광명성을 노래하는 구호문헌들...

불멸의 글발을 가슴에 새기고 해와 달이 바뀔수록 더욱 푸르려 설레이는 소나무의 억센 기상...

깊은 감회를 안고 오래도록 바라보는 나의 눈에는 구호나무들이 푸른 기념비처럼 보여왔다.

그렇다.

충성을 다해 효성을 다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받들어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해 나아가는 우리의 가슴가슴에 구호나무는 푸른 기념비되어 영원히 솟아 빛나리라!

그 설레임소리로 하여

원석파

어디서 오는 소리나
고요한 밤이면
언제나 마음속에 찾아드는
푸른 수림의 장엄한 설레임소리

청봉의 천고밀림 첫 잎사귀를 흔들면
개마고원 높은 말기에서도
랑림산줄기 맑은 계곡에서도
화음으로 영기는 구호나무들의 설레임소리

이 강산은, 락원의 이 강산은 온통
교향악의 큰 무대인듯
웅심깊은 가락이 고요를 타고
수만가지 생각을 불러내누나

사연많은 설레임이여!
조국의 운명이 총칼속에 묻혔을 때
백두의 장군별
백두의 광명성을 희망으로 우러러 지키며
혈전의 사선만리를 넘은
투사들의 그 진정 노래로 익어
그렇듯 승엄한것 아니냐

언 붓끝을 더운 숨결로 녹이며 녹이며

달빛 별빛에 글획을 바로잡으며
심장으로 새긴 애국의 녋이 육성으로 남아
그렇듯 가슴 흔드는것 아니냐

눈을 감아도 자리에 누워도
항일의 나날을 속삭이는 다정한 벗인듯
때로는 하늘땅 흔드는 설한풍의 준엄으로
내 신념의 기둥우에
삶의 보람 붉은 노을처럼 피워주거니

심중에 거짓구석을 가지고는 들을수도 없는
너는 신성한 노래중의 노래
지상 명곡을 다 합친다 해도
영원히 미칠수 없는 위대한 신념의 메아리

아, 진정 너는 진정
세월이 갈수록 무거움이 실리는
내 마음속의 가장 큰 재부
가장 소중한 자랑이며 힘이여라

네 설레임소리로 하여
투쟁의 길이 더 즐겁노라
새 미래에 사랑을 쏟으며
수령님과 당을 받드는 충정 더 뜨거워지노라

금지

한호

제 13 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 있는지 벌써 반년이 지나갔다. 편집부의 청탁을 받고 책상에 마주 앉으니 그 뜻깊고 환희롭던 나날이 나의 눈앞에 삼삼히 떠오른다.

세월이 흐르면 사람의 기억도 삭막해진다지만 내가 영예로운 조선청년학생대표로 축전에 참가하여 보고 듣고 느낀 모든것은 영원히 잊을수가 없다. 글로 쓰자 해도 아마 두툼한 장서를 몇십권나마 써야 할것 같다.

평양의 해빛 찬란한 하늘가에 격과인양 치솟아오르던 반제련대성의 우렁찬 함성! 목화구름송이처럼 피어나던 축포의 꽃보라! 온 세상에 메아리치는 친선과 단결의 노래!...

축전개막식이 성대히 진행된 그다음날이었다. 아침 아홉시가 되어오니 국제문예창작실에는 세계 5 대륙의 수십개 나라에서 온 수많은 청년작가들과 문학애호가들, 축전명예손님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뿐만아니라 축전전례에 없던 문예창작실 개관소식을 취재하러 온 각국의 신문, 잡지, 텔레비죤, 방송, 기록영화 기자들로 하여 더욱 이채로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나는 그날 어느 사회주의나라 문학신문기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나에게 조선에서 작가들을 창작적흥분으로 추동하는 힘은 무엇인가고 물었다.

《그것은...》

나는 잠시 생각한후 대답하였다.

《우리의 금지높은 현실입니다.》

《오! 기적과 혁신으로 들끓는 영웅조선의 현실...》

그는 인차 수궁이 되는듯 머리를 끄덕이였다. 더 묻지 않아도 알만하다는것이였다. 그는 이미 여러차례 우리 나라를 방문했었고 그때마다 비상한 속도로 발전하는 사회주의대전설모습을 경탄의 감정을 안고 체험하였던것이다.

우리의 보람찬 현실, 그것은 그대로 우리 창작가들의 열정과 담력을 키우는 생활의 학교이다.

그 외국기자의 물음에 단마디로 대답했으나 그때 나의 가슴은 물밀듯 차오르는 자랑과 행복, 그리고 조선의 청년작가로 된 금지감으로 하여 마냥 설레이였다.

어찌 그러지 않으랴.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로 오늘 이 땅우에 펼쳐진 사회주의의 대 전성기를 본 외국의 벗들은 한결같이 세상에 둘도 없는 인민의 나라, 행복한 낙원이라고 저저마다 감탄을 아끼지 않는다.

하기에 국제문예창작실에 모여온 모든 창작가들과 문학애호가들은 열렬한 흠모의 정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드리는 시를 쓰고 또 썼다.

불과 2 년 남짓한 기간에 하나의 큰 도시와 맛먹는 광복거리와 청춘거리를 일떠세웠고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같은 대화학공업기지를 일떠세운 조선의 현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몸소 진두에서 이끌어오신 전설과 같은 현실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평양축전을 세계청년학생축전운동사에 아직 있어본적없는 최고봉의 축전으로 되게 하시려 그야말로 불면불휴의 나날을 보내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일군들에게 처음부터 잡도리를 든든하게 하고 통이 크게 준비를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고 몸소 진두에서 이끄시였다.

축전개폐막행사조직부터 매장의 장면들 그리고 사소한 세부에 이르기까지 심혈을 기울여 가르치심을 주시고 축전행사를 하나의 거대한 생활화폭으로,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우리 인민의 단결된 힘으로 빛나게 하여주시였다.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축전행사에 참가하는 우리 조선청년학생대표단의 옷차림새며 지어는 소지품까지 일일이 알아보시고 대를 두고도 못다 갚을 사랑의 은정어린 선물까지 안겨주시였다. 그러시고는 개폐막행사의 시연회에 몸소 참석하시여 밤이 지새도록 매 장면들을 보아주시고 귀

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하여 제 13 차 세계 청년학생축전은 이 세상 그 모든 축전과는 대비도 안되게 창조와 예술의 극치로, 반제련대성, 평화와 친선의 장엄한 화폭으로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심장속에 새겨지게 된것이다.

참으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평양축전의 성공을 위하여 기울으신 정력과 수고는 헤아릴수 없으며 그이의 위대한 령도, 빛나는 업적의 산화폭을 이루는것이다.

지금 이 시각도 나의 눈앞에는 축전개막식날의 광경이 감격의 파도속에 떠오른다.

휘젓는 기발, 흔드는 꽃다발... 수십만의 환호를 받으며 주석단을 우러르는 우리의 가슴은 왜

그리도 터질듯 부풀고 들먹이었던가?!

자애로운 손길을 높이 드시여 목메여 만세를 부르는 우리들에게 답례를 보내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두분의 위인을 모시고 혁명하는 크나큰 공지로 하여 우리들의 발걸음도 날개가 돋친듯하였었다.

그렇다. 오늘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소중한 간직하고있는 민족적 공지와 자부심,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안겨 주신 삶의 원천이며 창작의 무궁무진한 터전이다. 위대한 아버지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있는 여기에 바로 우리 인민의 크나큰 공지가 있는것이다.

우리 분공장

리동후

끝없이 끊임없이 흐름선에 실려가고

크고작은 가구제품

넘겨주고 넘겨받아

일손도 흥겨운 우리 분공장

붉은등 푸른등

조종대앞에 앉아

자동단추 눌러가는 처녀의 얼굴에도

피어나는 행복의 미소

연마반의 섬세한 그 솜씨에

분무반이 윤나게 색을 돌구니

하나의 제품에도 공장의 온 정성

그대로 속속들이 어려있다고

저 은은한 이불장마다엔

조화롭게 그려진 황홀경

솟아났소, 금강의 만이천 봉우리가

내리였소, 로송우에 한쌍의 백학이

오가던 발걸음 절로 멈추는가

시원한 삼면경대앞에 선 너인들

여기서 제모습 단장하면

누구나 선녀가 절로 되는듯

모양도 색깔도 가지가지

날마다 가구제품 령넘어 실려가니

분공장 구내길은 넓지 않아도

마을에 도시에 프락처럼 이어졌소

우리 문학은 인민들을 자주성을 위한 투쟁으로 부르는 참다운 주체의 인간학

최언경

문학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인간생활에 없어 안될 이 필수 수단을 두고 오랜 세월 탐구와 모색을 거듭해왔으며 마침내 문학은 인간학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것은 인류에 의하여 발견된 귀중한 진리이다.

그러나 문학을 인간학이라고 불려왔다고 하여 사람들이 그 참뜻을 옳게 깨진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문학을 인간학이라고 부르면서 문학이 그 형상의 중심에 인간을 내세우고 인간을 그려야 한다는것으로 해석해왔을뿐이다.

인간학이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주인은 인간이다.

따라서 인간을 어떻게 보고 그려야 하는가 하는 인간학의 근본문제에 대한 옳바른 해답이 주어지지 않는한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본성이 옳게 밝혀질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적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성에 대한 문제는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비로소 정당하게 밝혀지게 되었다. 주체사상은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이 생명으로 된다는것을 밝힘으로써 사람의 본성에 대하여 완벽한 해명을 주었으며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근본문제,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려야 하는가하는 문제를 옳바르게 풀수있는 열쇠를 주었다.》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은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질적속성이 과학적으로 밝혀짐으로써 비로소 자기의 모습을 뚜렷이 하게 되었다.

1989년 7월 평양에서 열린 제 13차 세계청년 학생축전에 참가했던 외국의 대표들은 인류최상의 예술적정수인 개폐막공연을 보고 경탄을 금치 못해하면서 이것을 통가할 예술은 세상에 있을수 없다고 말하였다. 공연이 얼마나 경이적이였는지 수많은 외국의 관객들은 텔레비존수상기를 통하여 보는것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아 이 예술의 황홀경을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하여 축전이 폐막된 사실에도 막무가내하고 대륙과 국경을 넘어 조선으로, 평양으로 편이어 찾아왔다.

참으로 수천년인류문예사에 있어본적 없는 특기할 사변이라 해야 할것이다.

나는 여기에 인류가 리상으로 그려본 참된 인간학에 대한 현실적인 해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생명인 자주성을 주장하고 옹호하며 사람을 인간존엄의 최상봉에 올려세운 문학예술, 인간이 긍지와 신심을 가지고 인간답게 살수 있는 참된 삶의 길을 밝혀주는 문학예술, 이것이 바로 참다운 인간학이라 해야 할것이다.

나는 웅당한 근거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의 주체문학예술이야말로 참된 인간학이라고 확인한다.

참된 인간생명의 발견과 주체의 인간학

문학이 인간학이라면 문학에 대한 논의는 마땅히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데로부터 시작하여야 할것이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며 그 본성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옳게 해명되지 않은 조건에서는 인간의 운명문제에 대한 옳은 해답이 주어질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인간은 인간의 본성에 맞게 살때, 오직 그 때에만 참으로 인간답게 살수 있는것이다.

돌이켜보면 인간이 이 세상에 생겨난 때로부터 오랜 세월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풀어 보려고 유명무명의 철학자와 사상가, 신학자와 문인들이 세대를 이어가며 고심어린 탐구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인간이 자기의 본성을 똑바로 안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여서 인류사에는 인간이 자기를 모르고 산 시대가 오래 지속되여왔다.

물론 인류사상사에는 《인간은 사유하는 존재》, 《인간은 언어를 가진 존재》, 《인간은 노동하는 존재》라고 보는 견해 등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들도 있었다.

그러나 지난 시기에 존재한 인간본성에 관한 이 모든 견해들은 인간을 사회관계와는 무관계하게 추상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과학적인것으로 될수 없었다.

인간의 본성을 해명하는데서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은 거대한 전진을 하였다.

선형사상가들은 인간을 사회적관계속에서 고찰함으로써 인간을 생물학적존재로만 보던 견해를 극복하고 인간의 본성을 과학적으로 리해하는데

서 큰 걸음을 내디디게 하였다.

이것은 두말할것없이 인간학발전력사에 근본적인 새로운 전환의 길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인간은 사회적관계의 총체라고 규정하는것만으로는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려야 하는가 하는 인간학의 근본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수 없는것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인간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라는것이 밝혀짐으로써 비로소 장구한 세월 그처럼 인류가 모색해온 인간에 대한 완벽한 과학적해명이 주어지게 되었다.

이리하여 인간이 자기를 모르고 살아온 인간비극의 역사는 영원히 끝장나고 인간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힘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인류사의 새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자주성은 인간의 참된 생명이다.

인간은 바로 온갖 예측과 구속에서 벗어나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려는 이 사회적성질로 하여 억만금의 황금과도 바꿀수 없고 비할수도 없는 가치와 존엄을 가지는것이다.

장구한 인류력사가 자주성을 위한 인간의 투쟁사였던것과 같이 인류문예사는 이렇게나 저렇게나 자주성을 체현한 인간성격의 창조사였다고 말할수있다.

그러나 이 모든 긍정적인간행상이 본질에 있어서 자주성을 체현했다고 하여 참다운 자주적인간의 전형이라고 말할수 없다.

지난 시기의 그 어떤 문학도 자주성을 생명으로하는 자주적인간의 전형을 창조하지 못하였으며 또 창조할수도 없었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자주성이 사람의 생명으로 된다는 철학적진리가 밝혀짐으로써 비로소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근본문제,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려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옳바르게 풀수 있는 열쇠가 마련되게 되었다.

이것은 인간학을 확고한 과학적태도에 올려세운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우리 문학은 주체사상에 기초함으로써 명실공히 인간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인민들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참다운 로동계급의 문학, 주체의 인간학으로 되었다.

일제의 초대조선《총독》이었던 데라우찌가 《조선사람은 일본의 법률에 복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고 한 폭언에 대하여 우리 민족은 반일민족해방투쟁으로 맞섰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피어린 항일무장투쟁을 벌려 마침내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였다.

이것은 그 어떤 구속과 예측도 허용하지 않는 인간의 자주적본성의 발현이며 민족자주정신의

발현이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인 《피바다》, 《꽃피는 처녀》, 《한 자위단원의 운명》 등은 그에 대한 가장 빛나는 인간학적해답으로 된다.

바로 이때로부터 참된 인간학의 력사,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인간에 대한 문학의 새 력사가 시작된것이다.

일찌기 수천년인류문예사의 그 어느 시대의 문학도 인간의 자주성을 그처럼 열렬히 주장하고 옹호하지는 못하였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그토록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지못하였으며 인간에 대한 존경과 사랑으로 차넘치지는 못하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피는 처녀》는 인민들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참된 인간학의 빛나는 본보기이다.

여기에는 자주성을 생명으로 간직 한 우리 시대의 참다운 인간전형이 있으며 주체시대가 제기한 인간문제,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문제에 대한 심오한 해답이 있다.

오늘 세상사람들은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각색한 혁명가극 《꽃피는 처녀》를 가리켜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대행진곡, 우리의 리상의 언덕에 나뭇기는 붉은 기발》, 《어둡고 침침한 밤공기를 뒤흔드는 우뢰소리와도 같이 사람들을 각성시키는 진리의 웨침》이라고 높이 칭송하고있다.

그것은 혁명가극이 주인공 꽃분이와 그 일가의 비극적운명을 통하여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이며 사람이 자주성을 잃어버리면 사람이라고 말할수 없으며 민족이 자주권을 잃어버리면 상가집 개만도 못하게 되고 민족의 존엄도, 나라의 독립도 지킬수 없게 된다는 주체사상의 위대한 진리를 심오하게 밝혀주기때문이다.

혁명가극 《꽃피는 처녀》의 주인공 꽃분이의 형상은 나라잃은 민족의 설움을 전형적으로 체현한 민족수난의 모습일뿐아니라 그 어떤 강권으로도 꺾을수 없는 인간의 존엄과 민족자주정신의 영원한 상징이다.

정녕 그 이름과도 같이 용모도 마음도 아름다운 애어린 처녀 꽃분이에게 들썩워진 인생최악의 비극은 그대로 망국의 비운속에 몸부림치던 1920년대-1930년대초 조선민족의 가공한 정상이었다.

지주놈에게 좁쌀 두말을 빚진 《죄》로 아버지가 머슴을 살고 아버지가 머슴을 살다가 죽은 그 방에서 아들이 다시 8년 머슴을 살아야 했고 아들이 잡혀가자 어머니가 또다시 6년 머슴을 살고 어머니가 골병이 들자 그대신 딸이 또한 머슴을 살아야 하는 기막힌 현실...

대추 한알때문에 두눈을 빼앗긴 불쌍한 어린 동생 순희, 죄아닌 《죄》로 억울하게 감옥으로 끌려간 오빠 철용이, 머슴살이에 골병이 들어 세상

을 떠난 어 머니...

혁명가국은 일제와 지주놈이 판을 치는 사회에서 벗어지는 이 모든 악덕과 비극은 결국 일제에게 민족의 자주권을 빼앗긴데 근원하고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보이고있다.

왜놈들이 활개치며 주인행세를 하는 유흥거리, 질신도 못신은채 누데기옷을 걸치고 어린 손녀의 손에 이끌리어 류랑걸식하는 눈먼 할머니, 무거운 족쇄에 얹매여가는 죄없는 수인들...

조선은 실로 온 강토가 그대로 감옥이고 온 민족이 《수인》들이었다.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이 참상이 바로 잃어진 조국의 모습이며 자주권을 빼앗긴 민족의 운명이였다.

이처럼 혁명가국은 나라 잃은 민족의 설움을 절절하게 설토하고있을뿐아니라 죽음도 서슴지 않고 자주권을 지켜가는 민족의 넋을 보여주고있다.

꽃분이는 정녕 죽을지언정 꺾이지 않는 인간자주성의 권화이며 자주권을 찾기전에는 죽을수도 없고 죽어서도 안되는 민족자주정신의 결정체이다.

더는 한치도 발끝을 옮길수 없는 아아한 벼랑 한끝과도 같은 인생의 막바지에 서게 되었을 때 마침내 꽃분이는 꽃으로는 호도할수도, 살수도 없으며 자주성을 짓밟는 지주놈과는 한하늘을 이고살수 없다는것을 뼈저리게 통감하게 된다.

이리하여 꽃분이는 죽음도 두려울것 없는 필사의 각오를 가지고 지주놈에게 항거해나서는것이 다.

주인공의 이러한 형상은 압박이 있는곳에는 반항이 있기마련이며 사람이 사람답게 살자면 사람을 못살게 구는 원쑤와 맞서 싸워야 한다는 삶의 진리를 가르쳐준다.

설움과 호성의 꽃바구니를 투쟁과 혁명의 꽃바구니로 바꾸어안고 기쁨에 넘쳐 희망에 차서 혁명의 꽃씨앗을 뿌려가는 꽃분이의 아름다운 모습은 죽어도 버릴수 없는 인간의 존엄과 자주성에 대한 열렬한 주장이고 옹호이며 송죽과도 같은 조선의 민족정신, 민족자주정신의 생동한 상징이다.

이리하여 혁명가극 《꽃과는 처녀》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비극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을 계급해방, 민족해방, 인간해방으로 부르는 투쟁의 교과서로, 인간의 자주성에 대한 열렬한 송가로 되었다.

지구상에 착취와 압박을 필수의 생존방식으로 하는 착취계급이 남아있는한, 전쟁과 침략을 일삼는 제국주의가 지구상에 남아있는한 이 불후의 명작들은 자주성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고무하는 불멸의 기치로 영원히 빛날것이다.

우리 문학에서 인간의 참된 생명, 자주성에 대

한 열렬한 옹호의 사상은 비록 혁명문학, 혁명적 주체의 작품에서뿐만아니라 력사적주체, 민족고전을 각색한 작품에서도 강하게 울리고있다.

우리 인민들에게 널리 알려져있는 귀중한 민족고전작품인 《춘향전》을 각색한 민족가극 《춘향전》은 자주성을 짓밟는 사회적 예속과 구속에 대한 강렬한 항거인 동시에 인간의 자주성에 대한 뜨거운 옹호의 화폭이다.

량반도 사람이요, 천민도 사람인데 사랑에도 귀천있고 빈부가 있다더냐.

천민이라 하여 딸 춘향과 생리별을 하고 한양으로 떠나가는 몽룡을 원망하며 부르는 월매의 이 노래에는 인간의 자주성을 짓밟는 《빈부귀천》의 봉건적사회악에 대한 항변이 강하게 울리고있다.

고조되는 관현악과 함께 대방창으로 울리는《아, 빈부귀천 원쑤로다!》는 이 사상을 더욱 뚜렷이 부각해주고있다.

그런가 하면 눈서리에 상할세라, 찬바람에 질세라 옥과 같이 소중한, 금과 같이 소중한 고이 지킨 춘향의 절개높은 사랑에 대한 칭송의 노래는 자주성을 생명으로 간직한 참인간, 참사랑에 대한 열렬한 칭송의 노래이기도 하다.

이처럼 인간의 참된 생명, 자주성에 대한 열렬한 주장과 옹호는 우리의 모든 문학예술작품에 일관하게 관통하는 근본사상, 근본정신으로 되고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주체문학이 인간중심의 참된 인간학으로 되는 근거가 있는것이다.

자주성의 실현은 운명개척의 참된 길

인간의 생명이 자주성이라면 그 운명개척의 참된 길은 어디에 있는가?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은 응당 이 인생의 근본문제에 올바른 해답을 주어야 한다.

바로 여기에 먹고 입고 쓰고 사는것만으로는 결코 만족할수 없는 인간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의 수단으로서의 문학의 존재가치와 력사적 사명이 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분명에 대하여 생각지 않는 사람이 없으며 인간의 모든 활동은 본질상 자기 운명의 개척과정이라고 말할수 있다.

인생은 두번 주어지는 이생이 아니라 단 한번 밖에 없는 일생이며 그것도 기껏해야 70~80년을 넘지 못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이 길지 않은 인생을 참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며 그 실현방도는 무엇인가를 두고 오랜 세월 모대겨도 왔고 제 나름의 리론과 력설로 시대인들을 현혹시키기도 했다.

력대의 관념론자들은 인간의 운명이 세계의 《창조주》인 초자연적인 정신적실체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인간은 그앞에 무력하며 오직 주어진 운명에 순종해야 한다는 숙명론을 설교하였다. 인간의 운명문제에 해답을 준다고 요란하게 떠들던 《인간철학》도 결국은 운명문제를 개별적 인간의 운명문제로 본것만큼 신비주의와 숙명론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비애와 염세, 극단의 리기주의를 고취하는데로 나아갔다.

유물론적인생관은 신비주의를 반대하면서 사람의 삶에 미치는 객관적환경의 영향을 과대평가하고 그것을 단순화한 인생관이라고 할수 있다.

인간의 운명문제에 옳은 해답을 주려면 인간의 운명이란 무엇이며 그것을 규정하는것이 무엇인가에 대답할뿐아니라 운명개척의 합법칙성과 방도를 밝혀야 한다.

인간의 운명을 개척하는 직접적담당자는 인간 자신이다. 생활의 주인도 사람이며 생활의 창조자도 사람이다.

운명이란 곧 사람이 살아가는 길을 가리켜 하는 말이므로 그것은 생명의 운동, 생명의 본성을 실현해나가는 과정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인간의 생명이 자주성이려면 인간의 운명을 개척하는 참된 길은 한마디로 말하여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해야 할것이다.

인류의 리상사회인 공산주의사회도 다름아닌 인간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사회이다.

인간의 자주성을 주장하고 옹호할뿐아니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옳바른 투쟁의 길을 밝혀주는 문학만이 운명개척에 이바지하는 참된 인간학, 공산주의적인간학이라고 말할수 있다.

착취사회의 사람들은 실생활속에서 착취사회의 불합리성을 깨닫게 되고 반동적착취계급을 미워하게 되며 마침내 혁명을 해야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게 된다.

혁명가극 《피바다》와 《꽃파는 처녀》의 어머니와 꽃분이의 형상은 지금 사람들을 자주성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고있는 우리 문학이야말로 사람들에게 운명개척의 참된 길,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의 옳바른 길을 정당하게 밝혀주는 참다운 공산주의인간학이다.

만민의 심장속에 영원한 삶의 별로 뜨겁게 빛나는 혁명영화 《조선의 별》(1~10 부)과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들이 그에 대한 가장 진실하고 훌륭한 예술적대답으로 된다.

이 기념비적작품들에 의하여 대표되여지는 우리 문학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영생하는 삶의 길을 밝혀준다.

우리 문학은 바로 참된 영생의 길이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간자신에게 있으며 사람이 자기자신의 힘을 믿고 투쟁하여야 한다는것을 가르쳐준다.

예술영화 《조선의 별》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조선의 첫 청년공산주의자들인 김혁, 차광수, 최창걸, 서정애는 20 대의 청춘을 조국광복의 성전에 바쳤다.

그들의 한생은 너무도 짧았다. 그러나 그것은 값없이 흘려보낸 50년의 인생, 100년의 인생에도 비길수 없는것이다.

오래 사는것이 삶이 아니라 짧게 살아도 값있게 사는것이 참다운 인생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바쳐진 사람들의 삶은 영생한다.

한몸을 던져 크다운 청춘의 목숨을 스스로 끊으면서도 이 강산에 동터오는 새 아침을 바라보며 조선의 위대한 한별, 영원한 세기의 위인

《**김일성, 김일성**》을 높이 부르며 간 열혈혁명시인 김혁, 자신은 뜻하지 않은 총에 맞아 황막한 만주광야백설우에 선혈을 뿌리며 쓰러지면서도 눈을 뜨고도 갈길을 못찾아 헤매는 수십의 사람들을 참다운 인생의 길, **김일성**장군님의 품으로 불러주고 간불같은 심장을 지닌 최창걸, 한몸이 그대로 작탄이 되여 이 세상에 육신조차 남기지 못하고 가면서도 너무도 짧은 자기의 생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돌아오기를 기다리고계실 인정많은 그분, 한별동지의 가슴아픔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동지들에게 수령을 모시는 전사의 마음은 의무이기에 량심이어야 한다는 영생의 진리를 안겨주고 간 청년공산주의자 차광수...

이 값높은 인생을 두고 누가 그들을 죽었다고 하겠는가.

그들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시대의 언덕을 넘고넘으며 만민의 심장속에 영생한다.

이 불멸의 형상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라며 수천년을 두고 인류가 그려온 영생의 길은 결코 나 한몸의 육체적생명을 오래 유지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사회정치적생명을 빛내이는데 있다는 인생의 참된 진리를 밝혀준다.

바로 여기에 사람들에게 운명개척의 참된 길을 밝혀주는 진정한 인간학으로서의 우리 문학의 존엄과 궁지가 있는것이다.

력사를 되돌아켜보면 지금껏 사람들은 인간의 생명이라고 할 때 오직 육체적생명만을 생각해왔으며 그와는 비할바도 없이 귀중한 사회정치적생명이 있다는것은 알지도 못하고 살아왔고 인생을 룬해왔다.

사람에게는 부모가 준 육체적생명과 함께 사회정치적생명이 있으며 육체적생명과 비할수 없이 귀중한 사회정치적생명을 빛내여 나가는데 인간영생의 참된 권리가 있다는것을 밝혀준 여기에

영생불멸의 철리로 되는 주체철학의 위대성이 있고 그를 구현한 주체문학의 진리성이 있는것이다.

사회정치적생명이란 사회정치적집단의 품속에서 받아안게 되는 생명이며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지켜지고 빛내여지는 값높은 생명이다.

우리 문학이 사람들에게 운명개척의 옳은 길을 밝혀주는 참된 인간학으로 되는것은 영생하는 삶의 길을 밝혀줄뿐아니라 또한 운명개척의 현실적 방도,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방도를 밝혀 주기때문이다.

사회정치적생명을 빛내어나가는 거기에 영생하는 삶의 길이 있다면 사회정치적생명을 빛내이기 위한 근본방도는 혁명적수령관을 세우는데 있다.

이것은 인간중심의 확실한 주체사상이 밝혀준 위대한 진리인 동시에 조선민족사와 국제공산주의운동사가 피로써 얻은 력사의 교훈이며 생활과 혁명의 진리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와《혈분만국회》는 수령을 모시지 못한 민족의 망국사이며 비극의 력사이다.

수령이 없이는 인간의 자주성도, 민족의 자주권도 실현할수 없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최고뇌수이며 통일단결의 중심인것만큼 인민대중은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통일될 때에만, 오직 그때에만 력사의 자주적주체로 될수 있으며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의 길에서 고귀한 사회정치적생명을 받아안고 값높은 삶을 빛내일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에서 빛나는 시기를 이루는 항일혁명투쟁시기의 혁명활동력사를 방대한 대서사시적화폭에 담은 총서 《불멸의 력사》에 속하는 15 권의 장편소설이 그것을 뚜렷이 확증해준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에서 항일혁명투쟁시기권은 태동하는 시대의 맥박에서 자주의 요구를 통찰하시고 력사의 새 시대, 주체시대를 펼쳐나가는 위대한 수령님의 항일혁명투쟁시기의 혁명활동력사가 가지는 특수한 세계사적의의를 빛나게 확증하고있으며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절대적인 지위와 결정적역할을 심오하고도 폭넓은 예술적화폭으로 훌륭히 펼쳐보이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일찌기 인류력사가 그 료를 알지 못하는 간고하고도 피어린 항일혁명투쟁의 나날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어 력사박에 버림받았던 인민대중이 세계의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주체시대를 열어놓으시였으며 압박받고 천대받던 인민대중이 자기 손으로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이룩하는 세계적모범을 창조하시였다.

총서 《불멸의 력사》는 인류력사의 새 시대를 열어놓은 위대한 사상리론가의 빛나는 력사이며 정권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는 최악의 역경속에서 발톱까지 무장한 강대한 일본제국주의를 타승

하고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독립을 이룩한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자의 력사이며 인민에 대한 한없는 사랑으로 수놓아진 진정한 인민의 아버지의 숭고한 력사이다.

동시에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항일혁명투쟁시기권은 인민대중이 위대한 수령을 단결의 중심, 통일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게 될 때 얼마나 강대무비한 혁명의 자주적주체를 이룰수있으며 그 어떤 지배와 예측도 타승하고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을 실현할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불멸의 기념비적화폭이다.

실로 간고하고도 시련에 찬 조선혁명만은 인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철의 신념으로 간직한 위대한 수령님의 그 의지, 그 사상에 떠받들리어 영광찬 주체의 진로를 개척할수 있었고 마침내 침략과 예측에 대한 자주성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이 위대한 진리를 힘있게 확인한 여기에 사람들에게 운명개척의 참된 길을 밝혀주는 주체의 인간학으로서의 우리 문학의 빛나는 지위가 있는것이다.

《인간이란 일정한 생존조건하에서만 생을 부지할수 있는 수동적인 존재》라고 하면서 조선인민혁명군으로 하여금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며 쉬지못하게》 하여 전멸시켜버리겠다고 한 일제의 간악무도한 《토벌》작전에 대처하여 령하 40 도의 혹한, 기아, 백만대군의 포위 등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 최악의 역경속에서 력사적인 100 날 행군을 단행하여 조선혁명의 새로운 양양을 마련한 《고난의 행군》에 대한 서사시적화폭은 실로 인민대중이 위대한 수령의 령도밑에 자기의자주성을 지켜 일떠설 때 그 힘은 이 세상 그무엇으로써도 꺾을수 없다는 혁명의 진리를 힘있게 확증해준다.

참으로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들은 운명개척의 참된 길,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길은 오직 인민대중이 위대한 수령의 령도밑에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루고 수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데 있다는 혁명의 진리에 대한 빛나는 예술적화폭으로 된다.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비단 사회적예속과 구속을 반대하는데서만이 아니라 자연개조, 사회개조, 인간개조를 위한 투쟁에서도 끊임없이 계속된다.

자연과 사회와 인간, 3 대개조를 위한 사상, 기술, 문화의 3 대혁명의 수행과정은 곧 로동계급이 정권을 잡은 다음, 특히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시기에, 그리고 공산주의가 종국적으로 승리할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되는 자주성의 실현과정이다.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변희근 작), 《빈터우에서》(김보행 작), 《철의 신념》(김리돈 작) 등 우리 문학이 이룩한 빛나는 성과작들은 그에 대한 웅변적확인으로 된다.

장편소설 《빈터우에서》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과 의리로 간직한 우리 로동계급의 영웅적투쟁에 대한 잊을수 없는 화폭이다.

주인공 용녀를 비롯한 락원기계공장 주물직장의 10 명 당원들은 맨주먹밖에 없는 빈티우에서, 게다가 계급적원수들과의 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서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끝내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대로 자체의 힘으로 대형양수기를 만들어냈다.

그들에게는 용선로를 만들 철판도 없었다. 반당중과분자들은 음으로 양으로 방해해나섰으며 파피암해분자들은 없어서는 안될 합금소재를 웅덩이에 파묻고 무장습격을 감행하였으며 양수기 본체에 오작을 내는가 하면 양수기제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홍만석기사를 협박하였다.

이런 조건에서 양수기를 만들어낸다는것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소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주인공 용녀와 락원의 10 명 당원들은 칼바람 휘몰아치는 엄동설한에 얼어붙은 강물을 까고 전쟁때 처박힌 용선로를 건져내며 한치한치 얼음을 까고 물길을 내어 그것을 운반해다가 기어이 대형양수기를 만들어낸다.

만약 그들의 심장속에 자기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 없고 그 사랑, 그 믿음에 보답하려는 불같은 충성이 없었다면 어찌 이처럼 불가능을 가능으로, 무를 유로 전환시키는 기적이 일어날수 있었겠는가.

수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또한 수령을 믿는 일심단결의 위력속에 이 세기적인 기적의 비결이 있고 자연도 사회도 인간자신도 자기의 자주적요구대로 개조해나갈수 있는 인간의 위대한 힘이 있는것이다.

수령과 대중의 일심단결, 운명을 같이하는 수령, 당, 대중의 사회정치적생명체, 바로 여기에 운명개척의 옳은 길,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참된 투쟁의 길이 있는것이다.

우리의 주체문학은 인간의 생명인 자주성을 옹호하고 그 실현을 위한 옳바른 투쟁의 진로를 뚜렷이 밝혀줌으로써 참다운 인간학, 주체의 공산주의인간학으로 되었다.

이 위대한 힘으로 하여 보다 찬란한 대전성기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우리의 주체문학은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성스러운 인류의 위업에 더욱 힘있게 이바지할것이다.

우리집

김곤

불밝은 창가에
별들이 고요히 내려앉은 밤
온 가족이 모여앉았네
당원증을 받고 온 나를 둘러싸고

주름살 환히 편 아버지
첫 쇠물 뽑던 46년 봄
그날의 젊음 다시 받아안는가
내 어깨에 손을 얹은 만형은
철탑결에서 화선입당의 영예를 지냈던
그날의 맹세를 새겨보는가

내 어이 몰랐으랴
잠든 내 머리맡에 앉아
당원증주머니에 수를 놓아주던 어머니
나를 낳아 키워준 그 사랑만이 아니었음을

내 어이 몰랐으랴
입당청원서를 쓰던 그밤
결에서 조용히 먹을 갈아주던 만형
한피줄을 나눈 인정만이 아니었음을

빈티우에서 용광로를 일떠세운
우리고장 당원들의 이야기
어릴적부터 전설처럼 들려주던 아버지
내 언제나 출근길 남먼저 걸으라고
새벽잠을 모르던 어머니

나를 두고 바란 소원 오늘에 꽃폈는가

내 심장에 부어준 그 사랑 있어
내 걸음걸음 받아들여준 그 손길 있어
나의 작은 가슴도
우리 당의 크나큰 심장에
하나의 피줄로 이어졌거니

아버지와 어머니, 만형과 함께
우리 당의 구령에 한목소리로 대답하며
우리 당의 심장에 박동을 맞추며
천만리 먼길을 함께 헤쳐갈
내 오늘 참된 아들이 되었다!
내 오늘 참된 형제가 되었다!

그 무엇으로도 식히지 못할 혈육의 정에
가장 뜨거운 동지의 정을 더해 안고
그 무엇으로도 끊지 못할 형제의 피줄기에
영원한 동지의 피줄기를 더해 안고
수백만 당원들과 한식술이 된
아, 우리의 가정!

한 가정의 작은 프락을 넘어
조국의 넓은 프락에서
영생의 삶을 한모습으로 꽃피워가는
행복한 우리 집!

전사의 마음

김기호

남들보다
잘 입혀주어서만
자식의 효성이 있다더냐
남들보다
잘 먹여주어서만
그 효성이 크다더냐

낳아주고 키워준
어머니의 그 은혜
값으로는 계산 못해
돈으로도 갚지 못해

주는것이 많다해서
받을줄만 안다면
그 어이 자식이리
아침 저녁 때때로
시키는 시중이나 든다면
그 어이 효성이리

어머니 생각하는것
어머니 걱정하는것
누구보다 먼저 헤아려
풀어드리는 그 마음
돌우에도 꽃을 피웠다더랴
눈속에서 딸기도 따왔다더랴

생을 준 어머니에 대한
자식의 효성이란
그러한것
무엇이 다르랴
정치적생명의 어머니
당의 아들된 전사의 마음이어!

이끄는 길이라면
이끄는 그 뜻을
꽃처럼 아름답게 꽃피워놓고
바라는 길이라면
바라는 그 뜻을
별처럼 빛나게 펼쳐가고싶어라

순간이나마

당에 기쁨을 드릴수 있다면
열백밤을 지낸대도
내 눈빛 흐릴줄 몰라
추위에 얼고 불속에 탄대도
내 심장 두려움 몰라

이름없는 들꽃도
빛을 준 태양을 향해
향기를 풍긴다 하거늘
내리는 사랑에
오르는 충성이 없다면
그것은 불효!
그것은 배신!

광풍이 몰아쳐도
그렇게는 아니살리
황금비단옷속에
백년을 산대도 나는 싫어
진수성찬속에
천년을 산대도 나는 싫어

아, 생각의 시작도
인생의 끝도
우리 당의 기쁨속에 두고 사는
자식된 도리
새벽이슬처럼 맑고 깨끗한
전사의 효성이여!

내 삶의 순간순간
꽃피워가리
한생을 한순간에 다 바친대도
그 효성만은 못버려
불효는 아니될 자식의 마음

살아도 당의 아들
죽어도 당의 아들
위대하고 친근한 어머니
우리 당을 영원히 받들고 따르는
참된 효자가 되리
참된 충신이 되리

배꼭새가 노래하는곳

1

홀러가는 벌판끝에 솟은 먼 산발이 빙글빙글 돌아가는가 하면 밋밋한 구릉우에 펼쳐진 과원이 차창바투 다가서기도 했다. 깎아지른 절벽아래로 맹렬히 돌진한 렬차가 빨려들어가는 국수오리마냥 시꺼먼 굴속으로 들어갔다가 연한 안개발을 휘감은채 빠져나오자 산비탈을 치달아오른 검푸른 강냉이밭이 설렁이는 잎새를 펼쳐들고 눈앞에 다가왔다.

《보시오. 얼마나 잘된 농사요. 별방이나 산골이 나...》

《예, 우리 농민들의 수고가 많지요. 나두 며늘애가 한번 다녀가라구 하두 조르는 바람에 떠나기는 했습니다만... 허허, 자기네 병원이 뭐 이번에 3대혁명붉은기를 받았나요.》

렬차방송에서 홀러나오는 바이올린협주곡의 황홀한 선율에 흠뻑 취해있던 나는 맞은편 의자의 두 손님이 청높이 주고받는 이야기바람에 자기 생각에서 깨어나고말았다.

보매 어느 기관의 사무원인듯한 뿔뿔바지의 그 손님은 소아과 의사라는 머느리와 화가인 아들자랑을 하지 못해 몸살나하는듯싶었다.

하긴 자랑자랑해도 자식자랑처럼 신나는 자랑은 없다. 나도 저처럼 아들자랑을 할수 있다면... 질투비슷한 야릇한 감정속에 고개를 돌리니 또다시 만아들 영익이의 얼굴이 차창가에 우뚝이 떠오르는것이였다. 아들을 데리러 가는 내 마음이 초조한탓에 그 애 얼굴이 자주 눈앞에 밟히는것이 아닐가.

나는 한숨과 함께 슬며시 눈을 감아버렸다. 그러자 최근 몇달어간에 겪은 심적고충이 온몸을 엄습해오는것이였다.

도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 부위원장인 아버지의 술하를 떠난 그 애가 외할머니와 함께 농사일을 하고있는 사실을 두고 나는 지금처럼 마음 써본적이 일찌기 없었다. 솔직히 말해서 도소재지의 고등중학교에서 20 여년째 물리학을 가르치고있는 나에게는 종종 세 자식의 어머니라는 자각을 일으키만치 분망한 사업이 있었던것이다.

그러던 내가 불쑥 계모라는 자신의 위치를 깨

리래운

달게 된것은 언젠가부터 마을에서 떠돌고있는 불쾌한 소문을 들은 다음부터였다. 영익이가 친자식이 아니기때문에 촌에 내다 농사일을 시킨다는 것이였다.

《신익 엄마, 기분나빠두... 참작해들어요.》

한번은 인민반장이 나한테 직접 이야기하기까지했다. 기분나빴다. 그러나 애써 참았다. 더는 참을수 없는 말이 그뒤를 따랐다. 도의 큰 간부라는 량반이 가정혁명화 하나 제대로 못해서 전처의 자식을 딸잃은 장모의 손에 맡겨 키운다는 것이였다. 그날저녁 애들이 잠든 다음 나는 남편방으로 건너갔다. 내 말을 끝까지 다 들은 그이는 묵묵히 내 얼굴만 쳐다보았다. 마치 처음보는 사람을 보듯이 창문보를 두렵게 드리우고 탁상등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방안공기는 무겁고 탁했다.

《여보, 뜻밖이구려. 당신이 그런 소리에 귀기울일줄은 정말 몰랐소. 부위원장의 아들이 농사일을 못한다는 법은 없지 않소. 난 그래두 집안에 농사꾼이 하나 있는걸 큰 자랑으로 여기고있는데... 당신 혹시 만아들이 농사꾼이라는 말을 듣는것이 싫어서 그러는게 아니요?》

이야기는 더이상 진척되지 못했다. 론박할 여지없이 정당한 그이의 말에 나는 그저 공감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또 한해가 흘러갔다. 지난 겨울 영익이가 농업대학통신수업에 올라왔었다. 그때의 일이나의 결심을 굳히는데 결정적작용을 하였다.

...그날은 일요일이였다. 나는 오래간만에 영익이를 앞세우고 산보길에 나섰다. 고향의 변모도 보여주고싶었지만 내판에 노리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나의 제자들 가운데 은주라는 처녀가 있다. 지금 경공업전문학교 교원을 하는데 술한 제자들을 키워냈지만 그 애만큼 똑똑하고 인물잡고 레절바른 처녀는 보지 못했다. 일전에 처녀의 어머니를 만났는데 딸의 일로 걱정이 하늘만 했다. 변변치도 않은 아이를 놓고 이런 말하기 뭇하다면서 하는 말이 여기저기서 술한 혼담이 일어나는데 어쨌으면 좋겠는지 종잡을수 없다는것이였다. 그때

머리속에 번쩍 떠오른것이 영익이었다. 그래서 좋은 총각이 하나 있는데 다음 일요일에 데리고 갈테니 보고 맘에 들면 짝을 무어주자고 약속이 있었던것이다. 물론 아들이라는 소리는 하지 않았다.

이번에 새로 만든 양복을 입히고 반외투에 밤색의혁구두까지 신겨 놓으니 세상에 내 아들만한 총각이 있어보이지않았다.

《네가 이제 아버지키만하구나!》

약속한 공원이 가까와올수록 나는 공연히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해 군소리를 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만났다가 헤어졌다. 오늘따라 은주는 유난히 더 예뻐다.

《어떻니 처녀가... 맘에 드니?》

그들의 모습이 저쪽공원어구에 이르렀을 때 나는 던지시 물었다.

《꼭구만요. 배운가요?》

영익은 거듭 뒤돌아보았다.

《아니 교원이란다. 교양있는 집안이지.》

나는 은주칭찬에 성수를 냈다. 말을 마치면서 내 의도를 슬며시 비쳤더니 그 애는 비죽이 웃었다.

《참 어머니두!》

그리고는 한참 있다가야 《농촌처녀들두 팬치 않아요.》 하고 왕청같은 소리를 했다. 나는 그제서야 이해한테도 애인이 있을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 혹시 봐둔 처녀라두 있는게 아니냐?》

내 말에 영익은 대뜸 얼굴이 벌개졌다. 그러면서 함께 일하는 한 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더듬더듬했다.

《한번 와서 보시라요. 어머니 맘에 들거야요.》

나는 패히 응낙했다. 옆집사위 안돼보는 총각없다는데 봐서 제일 좋은 대상을 택하는거다. 바쁜 나이도 아닌데.

만약 이때 영익의 유치원때 동무인 진석이를 만나지 않았던들 그날 나는 더없이 흡족한 기분으로 아들과의 산책을 마쳤을것이다.

신문사에서 식자공을 하는 진석은 까만 바지에 팔색 외투를 입고 그야말로 배우처럼 차린 처녀와 산보를 하고있었다. 나의 소개로 영익이와 인사를 하고나자 그는 대뜸 소꿉시절 동무답게 영익의 일을 근심했다.

《아직 외가집에 가있다지. 힘들겠구나.》

런민의 정넌친 목소리였다. 그는 그 시절 동무들의 소식을 한참 내리쫓고나서 영익의 어깨를 툭쳤다.

《너두 빨리 오라. 그러다 아주 촌사람 되구말겠다야.》

《나야 이왕 촌사람 다된걸 뭐.》

그들은 웃으며 헤어졌다. 허나 나는 웃을수 없었다.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돌변한 내 기분에 영익은 오히려 어리둥절해했다.

집에 들어서는 길로 나는 랑장고에서 맥주병을 꺼냈다. 골럭골럭 거품을 일으키는 맥주고뿌를 들여다보며 나는 영익이를 위로했다.

《적지적작, 적기적작이란 말은 농업술어만이 아니란다. 사람두 때가 있구 뿌리내릴고장이 있는거야. 너두 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하자. 이제 대학을 마치구 존경받는 직책에 들어서면 자연히 오늘과 같은 동정도 없어지지 않으리.》

《참 어머니두. 그럴수 있지요 뭐. 그 애가 난알가꾸는 재미를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식자공일이 얼마나 재미있는지를 모르듯이 말이예요.》

태연히 웃으며 도리어 진석이를 편역드는 아들을 놀랍게 쳐다보던 나는 슬며시 눈길을 돌려버리고말았다.

신경이 든든한건 좋은 일이지만 모욕에 분개할 줄 아는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인것이다. 오직 높은 지성을 소유한 사람만이 한없는 겸손과 함께 도고한 자존심을 지닐수 있다고 나는 굳이 믿고있었던것이다.

나는 그밤을 울고싶은 심정속에서 보냈다. 누가 저 애를 저렇게 만들었는가. 두말할 여지없이 그것은 나였다. 내가 이 집에 들어옴으로 해서 저 애는 외가집으로 갔고 단조로운 농촌정서속에서 역시 단조로운 생활을 누리며 머리마저 단조로와진것이다.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결정적인 대책을 취해야 한다. 그것으로서 나는 지난날의 잘못까지를 속죄해야 하고 생활은 농촌마을이라는 좁은 울타리안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으리만치 다양하고 즐기하며 환희롭다는것을 그 애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며칠후 등교수업을 마친 영익이가 돌아가자 나는 남편과 다시 마주앉았다. 내 말을 다 듣고나서 남편은 말없이 한숨을 지었다.

《글쎄 당신은 이 일에 비치지 마세요. 이젠 전적으로 저에게 속하는 문제예요. 그 애를 키우는

데 전 단돈 한푼 들이지 못했어요. 제발 부탁이
예요. 이제라도 좀 어머니노릇하게 해주세요.
네.》

하여 나는 필요한 수속을 밟아가지고 학생들이
여름방학에 들어간 틈을 타서 이렇게 아들을 데
리러 떠났던것이다.

2

《아이구 이게 누군가! 》

어머니는 맨발로 달려나왔다. 제작년 겨울에
잠깐 다녀간 이후로는 처음 보는 어머니다. 짐보
통이를 받아들며 어머니는 내 얼굴이 축갔다고
걱정이 여간 자심하지 않았다.

《왔었니? ... 에그 여름을 타는게구나.》

이러는 어머니앞에서 나는 영익이를 데리러 왔
다는 말을 선뜻 꺼낼수 없었다.

내가 왔다는 소리를 어디서 들었는지 일나갔던
영익이가 쾅충거리며 뛰어왔다. 싱긋싱긋 웃는
그 얼굴만 봐도 무더위속을 걸어오느라 노그라질
듯하던 심신이 대뜸 거뜬해졌다. 그 애는 내가
때맞추었다고 좋아했다.

《같이 나가보지요, 어머니. 참외랑 수박이랑 한
물 쥘어요. 도지에서야 그런 신선한걸 언제 잡쥘
랐겠어요.》

《먼길 오느라 힘들텐데 좀 놔두지 못하겠니.
원자식두. 그까짓 멀 보일게 있다구 어미한테 뽀
내지못해 그러니.》

어머니는 대견한 기색을 가무리지 못했다.

내걸을 떠나지 못해 안타까이 땀돌아치던 영익
은 끝내 나를 분조포전으로 끌어내야말았다.
나역시 아들이 일하는 포전을 보고싶었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다.

분조에서는 가을남새과종준비로 오이밭을 설꺀
어내고있었다. 한켠에서는 남새들을 수확했다. 순
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장에 지원물자로 보낼것
이라고 한다. 그러고보니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을 힘있게 지원하자! 》라는 구호판을 내붙이
고 관리위원회 앞마당에 주련이 서있던 자동차들
생각이 났다.

다락지기로인이 버짚구력에 잘 익은 수박과 참
외, 도마도를 따가지고와서 내앞에 내려놓았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고맙수다. 영익이가 가꾼
것이니 맛이나 보시우.》

《말씀 낫추십시오, 아버님. 아버님은 참 좋은

일을 하시누만요.》

《좋다마다요. 옛날부터 여름철 신선은 다락우
의 농부라고 했다오.》

그 말에 나는 문득 진석이를 생각했다. 그 애
가 이런 궁지높은 실농군들앞에서 그따위 건방진
소리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가. 모름지기 따귀나
맞기 십상일것이다. 혹 달리될지도 모른다. 이분
들 역시 농촌을 홀시하는 그런 류 인간들의 정신
상태를 들여다보기에는 영익이 못지 않게 순박한
사람들일테니까.

나는 분조원들과 함께 진거름도 운반하고 오이
손도 모아쌓았다. 굳이 만류했으나 나는 웬일인
지 부쩍 일손을 잡아보고싶었다. 아니 그럴 필요
성을 느꼈다고 하는것이 더 정확할것이다.

일은 힘겨웠다. 땀이 비오듯했다. 허나 남새분
조여서 그런지 태반이 녀성들인 분조원들은 조금
도 힘든 기색이 없었다. 칠새없이 웃고 떠들며
노래를 부르는 축들까지 있었다. 나는 아까부터
간간이 들려오는 노래소리에 귀기울이고있었다.
저쪽 양배추밭머리에서 제수변을 돌리고있는 분
조장처녀가 부르는 노래소리였다.

빼꼭새가 노래하는곳

사랑하는 내 고향일세...

갈피리소리처럼 애잔한 그 목소리는 화려하지
않았으나 대신 심장의 박동소리마져 놀러가며 귀
기울이게 하는 강렬한 견인력이 있었다. 솟구쳐
오르는 분수비, 곳곳에 펼쳐진 무지개, 설렁이는
일새들과 푸르른 하늘... 광활한 대자연의 품속으
로 파고드는 그 노래소리는 그대로 요람을 흔드
는 어머니의 자장가였다. 그 노래에 맞추어 오탁
은 자라고 열매맺는듯싶었다.

(어쩌면 저리두!)

문득 저 처녀가 아닐가 하는 의혹이 번쩍 떠올
랐다. 나는 종달새알처럼 교잔등에 주근깨가 다
문다문한 처녀의 얼굴을 다시금 익히 보았다. 그
리고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은주와는 너무나도
대조되었던것이다.

딱장벌레처럼 생긴 통통거리는 기계를 밀며 다
가온 영익이가 싱긋 웃음을 던지고 지나갔다. 그
애는 우리가 설꺀어놓은 밭을 갈고있었다. 사람
들의 말이 저 기계는 영익이가 창안한 이랑짓는
기계라고 했다.

《말하자면 영익이 <만아들>인셈이라우.》

그 말에 나도 웃고 다른 녀인들도 웃었다. 말

아들! 그 말이 옳다. 어떤 창조물이건 열정과 희망의 산아이니까.

지난해 가을 점심참에 집에 들어온 영익이 아버지가 오늘 도과학기술협회에서 올려보낸 창안자명단을 보느라니 영익이 이름도 있더라고 좋아하던 일이 생각났다. 그때 짜릿한 환희와 기대 속에 그려보았던 기계를 오늘 비로소 마주하고보니 아들도 그의 창조물도 새삼스럽게 대견하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저녁때가 되자 영익이는 날더러 먼저 들어가고 했다.

《소를 먹어야 해요.》

《소?! 소두 먹이니?》

《그럼요. 한번 볼래요. 잘 생긴 황소야요.》

(참 애두, 잘 생겼어야 황소겠지.)

뭐든지 제것이 젤이라고 생각하는 그 애의 우울감에서 나는 오히려 농촌젊은이답게 순진하다고 해야 할지 고지식하다고 해야 할지 모를 사고방식을 보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러면서도 순순히 그의 말을 따르게 되는 것은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그애의 소원을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이었다. 얼마나 어머니품이 그리웠으면 저러랴. 그것은 눈물겹도록 가슴아픈 심정이면서도 나로서는 고맙기 그지없는 마음이었다.

소를 풀판에 풀어놓고 영익이가 미역을 감껐다면서 내물에 뛰여든 다음 나는 천천히 내가를 거닐며 락조에 붉게 물든 마을을 바라보았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아름다운 마을이었다. 뒤에는 자장산이 병풍처럼 둘러섰고 산미를 감돌아 창포전이 흘렀다. 지금은 산그늘에 가리워 검은 일색이지만 산에는 아름답리나무가 우거져 사시절 새소리, 짐승소리 그치지 않는다.

문득 이 땅에 처음 발을 들여놓던 15 년전의 일이 생각났다. 고드름끝에서 툭툭떨랑 떨어지던 락수물, 눈석이로 질척거리던 동구길...

결혼한지 얼마안되어 뜻하지 않은 사고로 남편을 잃은 내가 미처 슬픔에서 깨어나기도전에 3 년세월이 흘렀다. 곁에서들 끊기 시작했다. 특히 어머니의 성화는 생가실 지경이었다. 마침내 학교 교장선생님의 주선으로 재혼하게 된 것이 지금의 영익이 아버지였다. 처음 남편과 함께 집에 찾아갔을 때 두손을 바지주머니에 꼭 지르고 경계하듯 치며보던 영익이의 당돌한 눈빛을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있다.

《인사해라, 너의 엄마다.》

부디 온 집안이 화목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가볍게 떨렸다.

《아니야, 아지미야. 우리 엄만 죽었어.》

《그래 아지미다. 이제부터 아지미가 영익이 엄마노릇해줄게. 좋지?》

두팔을 벌렸으나 아이는 오히려 뒤걸음쳤다. 어수선한 장판바닥위에 어린것의 버들잎같은 발자국이 다문다문 찍혔다.

《밥두 해주나?》

《그래 밥도 해주지.》

《빨래두?》

나는 눈물이 글썽해서 고개를 끄덕이었다. 너자의 손길이 없을 때의 이 집안풍경이 눈에 선했던 것이다.

《이리 온 영익아, 그 양말부터 빨가?》

아래를 굽어보던 아이의 눈길이 나에게로 날아왔다. 의혹과 호기심, 기대로 쉽없이 뒤바뀌는 눈빛이었다. 마침내 씩 웃었다.

《이제부턴 아지미가 날 데리러 유치원에 일찍 오지?》

일종의 조약과도 같은 조건부를 연방 내놓는 철없는것의 모든 요구를 무조건 전폭적으로 접수한 대가로 나는 아이를 품에 안아볼수 있었다.

생활은 즐겁게 흘러갔다.

영익이가 아홉살 나던 해 동생 신익이가 태어났다. 기별을 받고 촌에서 영익이 외할머니가 올라왔다. 친정어머니라고 부를수도 없고 시어머니라고도 부를수 없는 무던하게 생긴 이 늙은이를 불적마다 나는 죄를 지은듯한 웅색함을 느끼곤하였는데 그것은 어머니의 가슴속에 아물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간 그 자식을 대신해야 할 내가 도저히 그 임무를 감당해낼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정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다 마다하고 먼곳에 있는 이 어머니에게 방조를 청했던 것이다. 어머니는 이것을 더없이 대견해하고 기쁘게 생각했다.

내가 바깥출입을 원만히 하게 되자 어머니는 떠나면서 영익이를 데리고 가겠다고 했다.

《내가 너무 적적해서 그러는구나. 네가 섭섭해할줄은 안다만... 작은놈이 좀 크면 인차 보내주마.》

하많은 사연이 깃들어있을 어머니의 간절한 요구를 나는 도저히 거절할수 없었다. 이튿날, 이

를밤을 눈물속에 보냈다. 그다음 떠나는 영익이를 따라 외가집마을까지 갔다. 이제 그 애가 살게 될 마을과 집, 학교를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서는 한시도 마음놓을것 같지 못했던것이다.

닷새만에 나는 혼자 떠나왔다. 논벌을 가로지른 저 동쪽길이다. 지금은 두렁콩포기가 소담하게 우거졌지만 그때는 저 길우에 하얗게 눈이 덮였었다. 앞에서는 갈길을 재촉하는 기차의 기적 소리가 목매여 부르고 뒤에서는 연 띄우는 아이들의 고향소리가 엄마를 부르는 영익이의 목소리처럼 그냥뒤쫓아왔다. 나는 동쪽길을 걸으며 울고 또 울었다. 영익아, 이 불쌍한것아, 너는 결국 엄마를 잃자 고향마저 잃었구나. 기다려라. 한해만 참아라. 내 꼭 너를 데리러 오마.

영익이는 그렇게 고향을 떠나왔었다. 그후 그 애를 데리러 올적마다 어머니는 《때가 되면 어련히 보내주지 않으리.》 하는 말로 나를 달래군했다. 그《때》는 좀체 찾아오지 않았다. 영익이가 자라 이북엄마의 지청구를 더는 받지 않아도 될 때, 신익이네가 자라 맏이를 존중할줄 알게 될 때, 그리고 중요하게는 내가 썸이 들어 자식이 얼마나 귀중한것인가를 깨닫게 될 때... 그 《때》가 구비해야 할 온갖 조건들은 오직 세월만이 가져다 줄수 있었으니 나는 이제야말로 그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있었다...

목욕을 마친 영익이가 신선한 기운을 풍기며 다가왔다. 물에 젖은 검은 머리가 속새풀처럼 영키여 바람결에 거침없이 날렸다. 그것은 땅거미 드리운 한적한 전야의 서정과 어울려 자연속에 사는 인간의 청동조각상처럼 역세고 림름했다.

《어머니, 아까 그 처녀 봤어요?》

변성된 그 애의 목소리는 잘 울리는 고음이었다.

《그 처녀라니?》

《선희말이에요요, 분조장.》

(으응 ?!)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실망감이 조수처럼 밀려들었다. 허나 그것은 순간이고 이어 사랑의 감정은 그 어떤 외적면모에 의해서만 싹트는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구나련정에 예민한 한창나이 젊은이들인것이다.

《봤다. 똑똑하게 생겼더구나.》

(네가 그래서 날 한사코 끌어냈구나.)

너석의 엉큼한 속심에 나는 혼자 웃으며 영익

이가 소고뺨를 매고있는 나무둘레를 천천히 돌았다. 온 저녁 지저귀던 참새소리도 잦아들고 미풍에 살랑이는 잎새들만이 조심조심 고요를 휘젓는 뽀뿌라나무우듬지에는 어느덧 새별이 걸렸다.

《이악쟁이지요뉘. 일 잘해요.》

별참은것이라는듯 뇌까리는 영익의 어조에는 궁지가 어려있었다.

(물론 일이야 잘할테지. 하지만 생활이란 그것 하나만으로야 만족할수 없지 않은가.)

《그 다음 또 뭐가 있니?》

내가 웃자 영익이도 씩 웃었다. 신통히도 어릴적모색 그대로다.

분조실로 잇닿은 포전길은 벌써 이슬에 함초름히 젖어있었다. 어둠속에서 분수비 내리는 소리가 소나기소리처럼 들려왔다. 영익의 말에 의하면 밤물을 줘야 식물생장에 좋다는것이였다.

《래일새벽엔 순천비날론공장 건설장에 보낼 오이를 따야 하거든요.》

허나 나는 이미 그 말을 듣고있지 않았다. 때맞추 차례진 이 조용한 기회에 영익이를 설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영익이만 응하면 어머니는 문제가 아니다. 나는 자연스럽고도 설득력있는 말마디들을 고르기 시작했다. 마침내 말머리가 떠올랐다. 그런데 이때 영익이가 발이랑사이로 들어가버렸다. 잠시후 되돌아나온 그의 온몸은 물에 흠뻑 젖어있었다. 물흐르는 소리가 나서 들어가보니 발최뚝이 퍼그나 패워나갔더라는것이였다.

《그냥 뒤두면 땅속의 영양분이 다 씻겨나가요.》

그 애는 안심참은듯 자꾸 뒤돌아보았다. 그것은 젖먹이 어린것을 잠재워놓고 떠나는 어머니의 모습을 련상케 했다. 이런 순간에 이 땅을 떠날것을 권고한다는건 어딘가 온당치 않아보였다. 나는 묵묵히 그의 뒤를 따랐다. 침묵의 그 공간을 나직이 부르는 처녀의 노래소리가 메꿔주었다.

《선희야요. 저 노래밖에 몰라요.》

영익이가 목소리를 죽여가며 속삭였다. 어둠속 어디선가 그도 발을 돌보고있는 모양이였다.

노래소리가 멀어지자 영익은 자기들이 친하게 된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거기에는 아무런 기이한것도 없었다. 그저 그나이포래 젊은이들한테서 흔히 듣게 되는 련애담이였다.

《사람을 안다는건 좋은 일이지. 하지만 그것두 한생의 값을 보탬하는 한개 꽃으로 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는 될수록 영익이가 내 말의 숨은 뜻을 깨닫기를 바랬다. 하찮은것에 몰두하면서 보다 큰것을 놓쳐서는 안될것이였다. 지금이야말로 그 애의 한생이 규정될 때라고 나는 생각하고있었다.

《그건 그래요. 그래서 우린 고향을 꽃피우는데 한생을 바치자고 약속했어요.》

그 애의 말은 교과서처럼 정당했고 구호처럼 성스러웠다. 그건 좋은 일이다. 허나 저처럼 생활을 낭만적으로만 생각했던 젊은이들이 자그마한 풍파앞에서도 놀라고 실망하며 고민하고 후회하는것을 적잖게 보아온 나였다. 더우기...

이야기를 마친 영익은 코노래라도 부르듯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아 언제나 좋은곳일세

아 내 고향 어머니품아

선희가 좋아하는것으로 해서 선희이상으로 이 노래를 좋아할 영익이를 보며 나는 생각이 깊었다. 어쩌면 저리도 순진할가. 내가 키워낸 같은 또래 제자들과 대비해봐도 그렇다. 때로 우연히 처녀와 한자리에서 나를 만나면 그들은 황황히 자리를 피한다. 부득이 마주치는 경우에도 동무라느니 누이동생이라느니 하는 말로 변명한다. 나는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했고 모르는척 관용을 베풀었다.

그렇다. 사랑의 감정이란 숭고한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가슴속 제일 깊은곳에 보물처럼 은밀히 묻어두고 누가 알세라, 지어 부모에게까지도 숨기는것이다. 그런데 영익이는... 그 애는 검붉은 자기의 육체를 홀랑 드러내놓고 사는 땅처럼 자기의 모든것을 숨길줄 몰랐다.

3

저녁상을 물리자 나는 그자리에 가지고온 보따리를 풀어놓았다. 어머니한테 올릴 옷가지들과 영익이가 쓸 필수품들이였다. 다른 가방에서는 그 애의 여름철 나들이옷이 나왔다. 입혀보니 어깨품이며 기장이며 꼭 맞았다.

《허허 깡은서방 같구나!》

새로 사온 돋보기를 꺼보던 어머니가 안경너머로 손자를 쳐다보며 흐무지게 웃었다. 지나간 생활과 결별하는 의미에서 여기서부터 아예 새로운

차림으로 데리고 떠날 생각에 가지고온것들인데 어머니가 좋아하는걸 보니 내 마음도 기뻐다.

《밀이 좀... 바지가랭이가 너무... 나비날개같지 않아요?》

영익이가 꼭 끼우는 사타구니를 어기적거리며 불안을 표시했다.

《요즘 도시에선 이 형이 류행이란다. 꼭 맞는다.》

허나 영익이는 끝내 시원한 소리 한마디 없이 옷을 벗어놓았다. 도로 작업복을 걸치고 꺾적이 주저앉는 그 모습은 마치 나한테는 이 옷이 젤이야요 하는것만 같애 서운한 생각이 들었다. 사실 이옷을 짓느라고 얼마나 분주히 뛰어다녔던가.

나는 불쑥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 방안을 휘둘러보았다. 특별히 화려하지는 않아도 정갈한 방 안에는 기름기가 돌았다. 아까 집에 들어서는데로 일일이 살펴본바이지만 화보밀에는 아직 비누물에 잠가본적 없는 여름철 가름옷이 두벌씩이나 걸려있고 이불장안에는 꽃무늬 화려한 이부자리가 층층 쌓였다. 양복장과 텔레비존을 지나 나의 눈길은 책꽂이옆에 걸린 너인의 사진에서 멎었다. 영익이 친어머니다. 내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어머니는 황황히 저 사진을 내리웠었다. 그러는걸 빼앗아 내 손으로 저자리에 붙였었는데 그사이 여러차례 도배도 하고 가구위치도 변경되었으나 사진만은 의연히 그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오늘 이렇게 다시금 마주하고보니 볼 때마다 연연한 그 아름다움에 정이 가는 너인의 모습이 새삼스럽게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럴수 있지!)

나는 저도 모르게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고향에가면 그리한탓에 더구나 정성을 다하려 하는 이붓어머니가 있고 외가에 오면 다심한 할머니와 함께 늙음을 모르는 친어머니의 사진이 늘 아들의 성장을 굽어보는 이 모순된 생활속에서 영익은 생활의 궁색을 파히 못느꼈을것이다. 바른것 없는 생활이 은연중 사람을 바려놓을수 있다.

영익이가 밤물대는걸 나가봐야겠다면서 일어서는바람에 나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힘들했는데 무슨 밤일을 또 나가느냐고 만류하자 그 애는 빙그레웃었다.

《학생들의 실력제고를 위해 선생들은 과외지도라는걸 하더군요. 우리 농사꾼들한테도 그런 기쁨이 있답니다.》

(과외지도? 농사군의 기쁨?)

경쾌한 휘파람소리가 담장밖으로 멀어진 다음에도 나는 한동안 선자리에 굳어져있었다. 과연 땅을 다루는 농사일에도 교육자가 느끼는 것과 같은 환희가 있을수 있단말인가?!

《허허, 뒤두라구. 저 하고파서 하는 일은 힘든 줄을 모른다네 .》

삶은 풋강냉이 몇이삭을 바가지에 담아두고 마루끝에 와있으며 어머니가 하는 말이였다.

《저 애가 이제는 룡이 됐지. 처음 농사일을 시작할 때 갈아서는... 에그!》

중학교를 갓 졸업한 영익이가 할머니의 속을 얼마나 썩였는지를 나는 안다. 그 애의 정신은 온통 아버지가 있는 도시에만 가있었다.

중학교졸업을 앞두고 나는 영익이를 데리러 왔었다. 어머니도 기뻐했고 영익이는 그보다 더 좋아했다. 이제야 《촌바우》를 면했다면서 노상 헤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고 때식마저 잊은채 들떠서 돌아갔다. 그러한 영익을 보며 나는 벌써 데리러오지 못한 자신을 후회했다. 그날밤 모기장안에서 살퐁이 잠이 들었던 나는 코끝을 간지럽히는 담배냄새에 눈을 떴다. 처음 눈에 뜨인것은 곁에 누운 영익이였다. 활짝 열여졌힌 미달이로 행장 밝은달빛이 흘러드는데 네활개를 쭉 펴고 누운 그 애는 만시름을 잊은 모습이였다. 그런데 그곁에 있어야 할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벌떡 일어나앉았다. 문앞 마루끝에 어머니가 돌미륵처럼 앉아있었다. 빨갛게 피어오르군하는 담배불이 보였다. 순간 나는 가슴이 섬찟했다. 어머니의 심정을 내 왜 미쳐 생각지 못했을까. 어머니에게 있어서 영익은 곧 저세상사람이 된 딸의 모습이였고 체취였으며 숨결이였다. 어쩌면 그것은 늘그막에 어머니가 기대고있는 생의 마지막 지탱점일지도 모른다. 이제 그 애를 데려간다는것은 바로 그 지탱점을 뽑아가는것과 같은 모진 행위였다.

(어머니, 이 미련한 자식을 용서해주세요.)

나는 어푸러질듯한 심정을 다잡으며 어머니가 놀랄세라 조심히 마루에 나섰다. 마음속으로는 이번 기회에 어머니도 아예 함께 떠나는데 어떡냐고 말하고싶었으나 선뜻 그 말이 나오지 않는것이 안타까웠다. 한참만에야 겨우 《어머니, 밤이슬이 찬데... 들어가시지요.》 하고 나무뿌리같이 껏쫓한손을 감싸쥐었다.

어머니는 푸른 달빛이 물감처럼 녹아내리는 허공중천을 이윽도록 쳐다보더니 흐느끼듯 한숨을 내쉬었다.

《이번에는 혼자 가야 할가보구나.》

《네-에 ?》

《내가 저 애를 잘못키웠나보다.》

그 목소리는 한숨소리보다 더 처절하였다.

《아니예요.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나는 아직도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의 뜻을 다 이해 못한채 서둘러 말했다.

《날 위로할 생각은 말아. 난 발머리에서 태어나 평생을 땅에만 정들이고 살아나니 아는게 별로 없다. 하지만 난 어쩐지 가슴이 아프구나. 저 애가 어쩌면 이밤을 저렇게 태평스레 잘수 있단말이나. 아무리 철이 없기루서니...》

《...》

《난 저 애가 꼭 농사군이 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땅에 정이 들어 떠나기 섭섭하다는말만은, 어디 가서든 이 땅을 잊지 않겠노라는 말만은 하리라구 믿었다. 그런데...》

내 평생에 울며 이 땅을 떠나서 웃으며 돌아오는 사람은 봤어두 웃으며 이 땅을 떠나서 웃으며 돌아오는 사람은 못봤다. 아서라. 애를 좀더 두어뒀라. 아직 애비한테 보내기엔 때가 안된가보다.》

한갓 촌늬은이인 어머니에게 그처럼 강렬하고 당당한 생활철리가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해본나였다. 마을의 세포위원장이던 남편을 고향을 지키는 싸움에서 잃은 다음 딸마저 일찌기 앞세운 어머니를 존경보다 동정에 가까운 도의적감정으로 대해오던 나는 이 순간 지금껏 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어머니의 참모습을 보았다. 어머니의 말은 비록 짧고 류창하지 않았으나 나는 거기서 다하지 않은 속대사까지도 충분히 읽을수 있었다.

하물며 설복이 다 무엇이랴.

그렇다고 영익이를 타이르지도 못했다. 집에만 있다고 그리도 좋아하는 애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할수 있단말인가....

마음의 안착을 얻지 못한 영익이한테서는 연방편지가 날아왔다. 때로 고향집에 도망쳐와서 한동안씩 들어박혀있기도 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시름질은 얼굴로 손자를 데리러 오군했다. 나나 영익이 아버지가 민망스럽고 죄스러워 차라리 애를 내놔달라고 하면 어머니는 괴로와하며 우리를

타일렀다.

《아이하구 다듬이방치는 주무른것만큼 대우가 난다네.》

세월이 흘렀다. 언젠가부터 그 애한테서 오는 편지도수가 점점 떨어지더니 이즈음에 와서는 마지 못해 정초에 년하장이나 한장 띄우는 형편에 이르렀다. 그것은 또 그것대로 나를 불안케 했다.

(혹시 이애가 영영 내결을 떠나는게 아닐가?)

참으로 이제는 그 애가 통이 되었다.

《그새 어머니 수고가 컸어요.》

나는 이런 말 하는게 아닌줄 알면서도 어머니의 수고를 치하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자 어머니는 도리어 웅색해했다.

《내야 무슨 수고야 관리위원장이랑 마을사람들이 했지. 속도 수태 썩이구… 하긴 나무를 한 그루심어놓구 꽃을 보자해두 오만가지 시중이 드는데 사람을 하나 키운다는게 오죽하겠나.》

허. 다 옛말이 됐지. 저 애가 이제는 어디 가지 사람구실 하게 됐으니 나두 시름놓구 눈을 감게 됐어.》

그물그물 피어오르는 모기불연기 사이로 맞은편 헛간지붕우에 핀 박꽃이 하얗게 보였다. 돌멩이처럼 떨어지던 박피관놈이 지붕용마루를 스칠듯 날아넘으며 짹짹 소리를 냈다.

이윽고 어머니마저 작업반장을 만나봐야겠다면서 나가버리자 울안에는 때아닌 고적이 깃들었다. 설것이를 끝내고 돼지물까지 주고나니 더는 할일이 없어졌다. 영익이의 수학통신교재를 뽑아들고 다시 문지방에 나앉았으나 피곤이 몰려들며 눈길이 자꾸만 그 애가 가있을 벌판쪽으로 돌아갔다. 아무리 젊었기로서니 얼마나 피곤할가. 그런데도 들놀이라도 가는듯한 기분으로 밤일을 나갈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것일가. 파외지도라구? 아니 교육자의 희열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안다. 그것은 자기가 희망하고 소원하던 모든것을 짱그리 심어주는 헌신적인 사업이며 그로 하여 먼후날에 가서까지도 궁지와 자부 속에 살수 있는 신성한 직무인것이다. 농사일에도 그런것이 있을수있을가 하고 의심하고있는 나는 이밤 그 애를 들판으로 이끌어낸 힘은 분명 사랑의 열정일것이라고 믿어의심치 않았다.

아까 포전길을 걸어들어오며 영익이가 하던 말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귀전에 쟁쟁히 울려왔다.

원래 영익이는 선희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했다. 선희는 별치 않은 일을 가지고도 영익이한테 까박을 붙이기가 일쑤였고 영익이는 또 영익이대로 관리위원장인 아버지를 등대고 못되게 구는것만 같은 선희를 늘 모주 먹은 돼지 버르듯했다는것이였다. 선희의 태도가 돌변한것은 영익이가 밭이랑짓는 기계를 구상하기 시작한 때부터였다. 영익은 지난해 가을 창의고안증서가 내려왔을 때 농장원총회끝에 그것을 수여받았다. 수여식에서 관리위원장이 한 말을 영익은 지금도 기억하고있었다.

《…아직도 우리 농장 젊은이들가운데는 농장원이 된 궁지가 없이 덮어놓고 도시만 쳐다보는 경향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동무들은 레외없이 농촌처녀들이 공장총각들한테로 시집가는것 하나만 가지고도 자기 리론의 정당성을 백가지도 나마 꾸며낼줄 아는 말공부쟁이들이란말이요.》

왜 영익동무처럼 가슴을 쭉 펴고 농장원된 궁지속에 살지 못하는가. 왜 영익동무처럼 애써 공부하고 자기가 하는 육체로동을 기술로동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가. 이런 총각들에게 딸이나 누이동생을 맡기기를 주저할 사람은 우리 농장에 한사람도 없습니다. 나부터도 이런 총각이라면 춤추며 딸을 맡기겠단말이요.》

그날 선희는 영익이와 나란히 앉았었다. 회의장이 떠나갈듯한 폭소를 자아낸 관리위원장의 그 말에 선희는 두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어마나, 아버지가 왜 저러니.》 하고 비명을 질렀다.

회의끝에 영화구경까지 하고나서 그들은 함께 밤길을 걸었다. 풀벌레우는 동쪽길은 호젓해서 좋았다. 곧추 가는 큰길을 버리고 먼 돌음길로 들어선 이 말없는 공모는 청춘의 가슴을 더욱 울렁거리게 했다.

참 이렇게 싹싹한 처녀가 그새는 왜 따벌처럼 툭툭 쏘기만 했을가. 조심스럽게 그 까닭을 묻는 영익의 말에 선희는 눈부터 핏졌다.

《난 동무를 언제든지 도시로 가버릴 사람이라고 생각했지요뎁. 글썽 생각해봐요. 우리 마을이 뭐 제비동진가. 몸에 왔다 가을에 가는… 난 그런 사람이 싫어요.》

제비동지, 영익은 그 비유가 맘에 들었다. 자기 역시 이 청룡마음이 《제비동지》가 되는걸 용납할수 없었다. 그리고 별치도 않은걸 만들어놓은 자기의 노력을 이 땅에 대한 사랑의 표시로 값높

이사주는 이 자그마한 처녀가 한없이 고마왔다.

무슨 말인들 안했으랴. 지난날 이야기, 오늘 이야기, 래일의 이야기… 그리고는 묵묵히 생각에 잠겼다. 자장산마루에서 소쩍새가 울었다. 소쩍, 소쩍… 하많은 사연을 간직한 곡진한 그 울음소리는 역시 하많은 말마디를 품은 이 뜻내기 련인들의 가슴속에 추억의 드레박줄이 되어 길게 드리웠다. 오랜 침묵 끝에 선희는 나직나직 노래를 불렀다.

삐꾿새가 노래하는곳

사람하는 내 고향일세…

갈피리소리같은 그 목소리에 영익은 자기의 목청을 합쳤다.

로동으로 행복을 열고

로동으로 꽃이 피는곳…

그날밤 될수록 천천히, 될수록 먼길을 에돌아 마을앞 실개울을 건넌던 영익은 발을 헛짚어 징검돌에 무릎을 짓찧었다.

《상하지 않았어요?》

선희는 한사코 바지가랭이를 건어울렸다. 몽롱한 달빛에 천천히 흘러내리는 지렁이같이 꺼먼것이 보였다. 처녀는 두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잠시후 언덕위로 달려올라갔던 그는 조뱅이일사귀를 한줌 뜯어가지고 왔다.

《체, 그까짓게 무슨 맥을 추겠어.》

시답지 않아하는 영익의 말에 처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손수건을 찢어 상처를 정성껏 싸매주고나서야 허리를 펴며 조용히 한마디 했다.

《우리 고향의 풀이 아니나요.》

《우리 고향의 풀》의 신통력때문인지 가을상처는 빨리 아물었다. 그자리에는 콩알만한 허물만 하나 남았다. 지금도 그 허물을 보노라면 그때가 신비롭게 그리워지면서 오히려 그런 허물을 하나 더 얻고싶은 엉뚱한 욕망에 사로잡히곤한다고 영익은 말했다.

… 그렇다. 영익이는 그 처녀에게 반해있었다. 어느모로 보나 조금도 남다른데 없는 그의 무엇에 매혹되었는지 나로서는 알수 없는 일이었다.

4

그 처녀가 이른새벽에 집에 찾아왔다. 대문밖에서 나는 차소리에 고개를 드니 남새구력을 산 더미처럼 실은 자동차에서 선희가 내리고있었다.

토방앞 판가마에 쌀을 안치던 나는 그의 이슬에 젖은 신발과 바지가랭이를 보았다. 어깨우에 드리운 머리카락끝에도 이슬이 맺혀있었다. 그것으로해서 그의 전체가 아침공기처럼 청신하고 싱싱해보였다. 상냥한 미소를 머금고 마당에 들어선 선희는 영익이를 찾았다. 집을 나간지 한동안 됐다고 하자 그는 고개를 가웃하며 난색을 지었다.

《어쩌나. 빨리 차비해야 할텐데.》

《왜 무슨 일이 있나?》

《순천에 가야 해요. 농장대표루.》

내가 그런데야 관리위원장이나 부위원장같은 어른들이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자 선희는 입을 싸쥐며 웃었다. 관리일꾼들이 농사를 지휘해야지 그런데는 뭇하러 가겠느냐는것이였다.

《이번 지원물자를 마련하는데서 영익동무 수고가 컸답니다.》

오직 땀흘린 사람만이 모든 자격을 가진다는것을 주장하는듯 선희의 목소리는 당당했다.

《아마 지금두 장수샘물뜨려 올라갔을거예요.》

《아니 이 이슬발에…》

《일없어요. 욕심같아선 우리 마을의 이 맑은 공기두 한차판 실어보내고싶은데…》

선희는 맑게 개인 하늘과 안개발이 연하게 깔린 돌레를 휘돌아보았다.

(어쩌면, 한바리에 실어두 찌글지 않겠구나!)

나는 새삼스럽게 아들이 가진 어머니의 눈으로 처녀를 잔잔히 뜯어보았다. 역시 평범한 보통처녀였다. 은주처럼 아름답지도 않았고 누구처럼 미끈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분성적에 연지끈지를 찍은 도시처녀들로서는 도저히 따를수 없는 순수한 자연그대로의 아름다움이 그에게서 풍겼으니 모름지기 그것은 자연을 가꾸는 사람들에게만 배풀어지는 대자연의 혜택인듯싶었다.

그가 돌아간 다음 나는 서둘러 방에 올라와 영익이가 입고갈 새옷을 꺼내놓았다. 구태여 손질할나위는 없었으나 그래도 농장을 대표해가는 아들의 몸에 자그마한 흠이라도 잡힐세라 정성껏 다림발을 세웠다.

땡땡… 벽시계가 다섯점을 쳤다. 지금쯤 도시에서는 잠을 깬 새날의 새 생활이 기지개를 켤것이다. 살수차가 물을 뿌리며 거리를 질주하고 창문들이 열리고 아침밥을 재촉하는 처녀들이 거울앞에서 눈섭을 그리겠지. 우리 집 늦잠꾸러기들은 아직도 침대우에서 덩굴것이고 영익이 아버지

는 밥공장으로 종종걸음을 칠것이다. 손에 든 냄밥통을 덜렁거리며.

그런데 여기서는 새날의 일과가 벌써 얼마나 멀리 전진하였는가. 영익이만해도 그렇다. 나는 그애가 어제밤 몇시에 들어왔는지 모른다. 선풍한것이 이마에 와닿는바람에 눈을 번쩍 뜨니 영익이가 싱글싱글 웃으며 머리맡에 앉아있었다. 그의 손에는 크고 잘 익은 도마도가 들려있었다.

《잡쉬보라요. 이슬채루... 어때요? 별맛이지요?》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 애는 좋아서 어쩔줄 몰라했다.

《우리 농장 도마도는 특별히 더 달아요. 땅이 그렇다나봐요.》

《호호. 넌 그저 뭐나 다 우리 농장것이 젤이라누나.》

《실제 그렇지요 뭐. 세상에 우리 마을보다 더 아름다운데가 어데 또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고장에서는 장수가 많이 났대요. 저 자강산에 올라가면 큰 장수바위가 있는데 그밑에는 장수샘이라는 샘물이 있어요. 그 물을 마시며 힘을 키운장수가 벼랑우로 날아올랐는데 지금도 그 바위에는 매생이만한 발자국이 있어요. 그건 좀... 진짤가요?》

《글쎄, 옛날에야 무슨 일인들 없었겠니.》

《체, 어머니두 꼭 리당비서동지처럼 말하네. 얼마나 우습게 말하는분인지 몰라요. 뭐 날보구 <봄을 심고 가는 총각>이라나요.》

《그건 또 무슨 소리냐?》

《우리 분조에 비닐온실이 있지요 뭐. 2 월의 명절을 앞두고 부루랑 속갓이랑 소형트럭뜨르에 싣구 락아소, 유치원을 찾아갈 땐 핑장해요. 술한 사람들이 서서 쳐다봐요. 지난 봄이었어요. 저 기계화반앞에서 리당비서동지를 만났는데 자전거를 척 비켜세우더니 찬찬히 쳐다보지 않겠어요. 내가 인사하자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멋있어. 백설 팡야에 햇남새라. 허허, 봄을 심고 가는군. 영익인 봄을 심고 가는 총각이야!> 이러지 않아요.》

나는 가슴이 몽클해서 그 애의 어깨며 잔등을 자꾸만 쓰다듬어주었다.

사람의 값이란 다른데 있지 않다. 주변사람들의 눈이야말로 자기의 몸값을 달아보는 가장 정확한 저울추인것이다. 내 아들이 바로 그 주변사람들의 선망의 눈빛속에 살고있지 않는가.

(장하다. 영익아, 너는 끝내 할머니의 소원을 풀어드렸구나!)

그 애는 마치 철부지 어린애마냥 나의 애무에 온몸을 맡긴채 실새없이 떠들어댔다. 온실에 자동화요소를 받아들여 명년부터는 온실남새를 로

동자구에까지 공급할 계획이라느니, 대학통신간에 외국어 두개를 완전히 뽕 결심이라느니... 그러더니 내 무릎을 벤채로 급기야 잠들어버렸다. 잠든 그애의 얼굴은 관골이 두드러지고 수염터가 잡혀서 어딘가 낯설어보였다. 어방없이 자란 그의 정신세계가 나로 하여금 더욱 낯설어보이게 했는지 모른다. 그렇다고 섭섭치는 않았다. 오히려 기뻐다. 내 아들은 결코 지성의 고갈자가 아니었다. 북반쳐오르는 기쁨속에서 나는 다만 이애가 이 모든것과 헤어지기가 험치 않으리라는 새로운 근심때문에 오래도록 잠못들고 뒤적거렸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그 애는 벌써 마당을 가로질러나가고있었다. 손에는 커다란 비닐통을 들고...

(원 그까짓 샘물이 뭐게. 그새 조금이라두 더쉬지 않구.)

미끈해진 옷을 옷걸개에 거는데 술렁거리는 소리를 앞세우고 어머니가 마당에 들어섰다. 그뒤에 작업반장이 따라섰다. 이미 면식이 있는 작업반장은 나를 향해 벌쭉 웃으며 《오셨수다레.》하고 고개를 끄떡했다. 돼지우리앞으로 간 그들은 또 거기서 무슨 말인가 한참했다.

《참 어머니두. 영익이 잔치두 해야겠는데 돼지를 내구 잔치는 뭘루 할라우?》

작업반장은 난처하다는듯 나를 바라보았다.

《괜한 소리. 세상에 제 밥그릇 먼저 떠놓구 자식들 밥그릇 담는 예미는 없어. 사람들이 배가 불룩해가지구 팡팡 일하는걸 보는게 우리 농사군들의 락이구 재미지. 안그런가?》

어머니는 구유삽으로 돼지잔등을 쿵 찌르며 《한 80 키로 될가?》 하고 반장을 쳐다보았다.

《왜 그렇게만요. 백키로는 잘되겠수다.》

(그래서 어제저녁부터 어머니가 분주했구나!)

작업반장이 나간 다음 조금 지나 자동차 한대가 대문앞에 와 멎었다. 널판자로 덧장을 친 적재함우에는 술한 돼지들이 꿀꿀거리고있었다.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고 그뒤를 따라왔다. 운전칸에서 내린 자그마한 녀인이 돼지심는 일을 거들어주며 상글상글 웃었다. 자동차를 빙 돌아본 작업반장이 녀인과 무슨 말을 주고받으며 초조한 눈길로 자장산쪽을 바라보군했다.

《에그, 혁이 예민 좋겠다. 나두 래년엔 한 댓마리 길러놓구 저런 대접을 한번 받아와야겠다.》

어머니의 말에 작업반장이 시까슬렀다.

《래년엔 벌써 늦어요. 순천비날론은 뭐 당대건 설한답디까.》

《걱정두 팔자지. 순천비날론 끝나문 더 큰 건설이 있다는걸 모르나.》

왁자한 웃음소리가 터졌다. 꼭 실행바리를 떠나보내는 각시집마당같았다.

영익이가 달려왔다. 랑손에 커다란 비닐통을 무겁게 들었는데 그뒤로 선희며 그러루한 청년들 네댓이 따라섰다. 짐을 받아 차에 실으며 사람들은 영익이를 치하했다.

《영익이가 참 실통한 생각을 해냈어!》

《사람이 실통하니 그런 공리도 트인게지.》

《우리 마을 장수샘물까지 마시면 순천에서 또 한바탕 기적이 일어나게 됐수다. 허허허.》

《암, 여부가 있소.》

영익이가 세수를 하는 사이에 나는 아침상을 차렸다. 부뚜막에 걸터앉은채로 가래질하듯 밥을 떠넣는 그 애의 얼굴을 나는 측은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저도 모르게 힘들겠다는 소리가 불쑥 새어나왔다. 영익은 빙그레 웃었다.

《힘들어요. 하지만 힘두 나요. 어쨌든 공산주의 사회에는 우리가 제일 먼저 들어갈테니까요.》

《으응 ?!》

《아버이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시지 않았나요. 공산주의식책은 먹는 문제에서부터 실시해야 한다구.》

(그렇구나. 원 자식두!)

불시에 코마루가 쪼해지며 눈물이 솟구쳤다. 뽕안 안개속에서도 나는 그 어느때보다 생생히 아들의 모습을 새겨볼수 있었다. 그와 함께 온 세상이다 듣도록 내 아들을 자랑하고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었다.

《보시라. 보랍을 잡고 발머리에 선 이 젊은이가 바로 나의 아들이다!》

새옷을 벗겨들고 마루에 나섰을 때 영익은 벌써 자동차에 올라있었다. 그 돌레에서 사람들은 영익이에게 뭔가 열렬히 당부했다. 작업반장의 목청이 제일 컸다. 무슨 노래에 대한 소리였다. 건설장에가면 오락회같은것도 벌릴수 있으니까 동네체면을 생각해서 미리 준비를 시키는 모양이다.

《영익동무, 그 노래 있지요. <뽕새가 노래하는곳...> 그 노래 불러요.》

선희의 쟁쟁한 목소리에 영익은 웃음으로 대답했다.

(옳다. 그 노래가 좋지. 거기에는 마을의 모든 것이 다 깃들어있으니까.)

내가 옷을 쳐들어보이자 영익이는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안심시키듯 크게 소리쳤다.

《일없어요 어머니. 이게 있지 않나요.》

그 애가 손을 들어 빙 돌려 원을 그리는 그속에 남새며 돼지며 갖가지 과일을 실은 자동차들이 주련이 서있었다.

하긴 중요한거야 옷이 아니지. 자식들을 배불리 먹이고 따뜻이 입히고... 거기에 어머니의 기쁨이있고 행복이 있는거야. 착한 어머니가 되려는 이세상 모든 너인들의 간절한 념원을 여기 모인 이 수수한 사람들이 지니고있구나. 그 앞장에 나의 아들이 서있어!

비로소 나는 내가 아들을 너무나도 모르고있었다는 생각이 미쳤다.

지향이 강렬한 사람은 자기 지향이외의 모든것을 우습게 여기는 법이다. 옷차림도 지위도 지어 육신의 고달픔까지도, 하물며 자신들을 이 땅위의 어머니들이라고 자부하고있는 사람들임에랴.

누가 내 아들을 이렇게 키웠는가. 땀흘려 일하는 로동인가. 아니면 끝없이 아름다운 이 자연인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땅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한품에 안아 영광의 상상봉에 세워준 자랑찬 이 시대였다. 머지 않아 이 시대는 또 한 차례의 희한한 변혁을 이 땅에 선물할것이다.

자동차는 떠나갔다. 그들이 달려가는 먼 앞쪽에 아직도 꿈속에 묻힌 자장산이 길게 드러누웠는데 창포전에서 피어오른 물안개는 잠버릇세찬 아이가 차던진 홀이불처럼 이리 몽실 저리 몽실 제멋대로 몽쳤다. 그속에서 뽕새가 구성지게 울었다.

그제서야 나는 비로소 아직까지 누구에게도 내가 온 목적을 이야기하지 못하고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의 목적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못하리라는것도 깨달았다. 그렇다고 서운하지는 않았다. 도리어 이성의 첫 애무를 받고 취할듯한 환희에 휩싸여있던 그 순간처럼 이 사람들에게 감동되어 버린 자신을 발견하였다.

나는 손채양을 하고 멀어져가는 자동차를 점도록 바라보고있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감동에 겨워 말했다.

《어머니 손에서 저 애가 인젠 룡이 되였군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혼연히 대답했다.

《아니지, 영익이가 내 손에서만 크게 아니야. 당에서 저 애를 맡아 키웠어. 그리구 우리고장이라는데가 워낙 물이 좋구 뭐나 잘 자란다네.》

나는 더 할말이 없었다.

만약 영익이한테 친어머니가 있었다 한들 아들을 이보다 더 림림하고 씩씩한 젊은이로는 키워내지못했을것이라는데 생각이 미치는 순간 나는 지금까지의 온갖 자질구레한 속박에서 벗어나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끼었다. 그것은 두텁게 얼어붙었던 얼음장을 쪼쪼 깨뜨리고 용용하게 굽이치는 대하의 흐름을 보는듯한 장쾌한 순간이었다.

역시 생활은 나라는 또하나의 인간을 새롭게 키워내주었다.

물소리

박상민

물소리가

예나제나 갈을건데

절골장등 넘어오는 물소린

왜 이리도 발목을 잡는걸가

온 나라를 감고도는

관개수로 자랑하며

지줄지줄...

농산기사 되어오는 처녀

서둘러 마중하며 속삭이는걸가

토지개혁 이듬해 봄

청천강 물 퍼올려 논풀자고 물길 썰 때

몸소 찾아오신 우리 수령님

피앗골을 쌀고장으로 만들자고

양수장자리도 잡아주신 이야기며

오늘은 절골보다 더 큰

연풍이며 기양

태성이며 서흥

서해갑문도 썼으니

이게 다 우리 수령님 덕이라고

속삭이는 물소리...

오, 보도랑에 발 잠그고

한웅큼 불을 뜨니

주르륵- 손가락새로 새는 물은

나서 처음 흘렀다는

할아버지의 그 기쁨의 눈물이런듯

물소리, 물소리!

할아버지가 들어도 손녀가 들어도

예나제나 사랑의 물소리!

전설처럼 전해오며 가슴적시는

전번의 물소리!

지금이야

랑림산줄기 넘어 물이 흐르고

동서해가 손을 잡는 개벽천지인데

장들 낮은 더기 물소리에 가슴적신다고

탓하지 마시라

아, 진정

내 고향의 보도랑은 크지 않아도

우리 수령님 안겨주신

주체농법 노래하며

조국의 논벌 적서가는

관개의 첫걸음이였다고

자랑스레 지줄대는 기쁨의 물소리!

절골 낮은 더기 넘고넘어

토지개혁 이듬해 그 봄부터

해마다 물풍년에 쌀풍년 안아오는

물소리 물소리는

만풍년 쌀폭포소리로나!

사시절의 노래

김정곤

겨울의 들판에서

흰눈 두툼히 덮고
아득히 여울진 구룡 베개삼아 베고
네 활개 쭈욱-퍼고 잠들었구나
들판아, 나의 땅아

세상모르게 자는 네 숨결에
흰 이랑들이 들먹인다
거인같이 내뿜는 입김에
눈보라 자욱히 하늘에 휘말려오른다

자장가를 불러주라
너의 머리말에 종일토록 앉아
그 풍만한 가슴 도닥여주고싶다
저 하늘의 구름을 헤쳐
따뜻한 별을 안아 가슴에 얹어주고싶다

참으로 수고가 많았다, 들판아
찌물구는 왕가물도 나와 함께 이기며
덮쳐드는 찬서리도 나와 함께 물리치며
봄내, 여름내 삼백예순다섯날
씨앗을 품고 이삭을 안고
다심한 어머니처럼
잠시도 마음놓은 날 없었지

금빛웃자락 품이 벌게 입혀놓고
하늘땅 가득 겨울도록 이삭 뒤설레일 땐
들아, 나는 너를 열싸안고

너는 나를 품에 안고

그 어디 짚어보면 너의 심장이 있느냐
저 지평선에 피는 붉은 노을
네 얼굴에 미소로 고이 담고
들아, 지금 너는 무슨 꿈을 꾸느냐

그 어느 새벽
때아닌 강추위에
랭상모나래 안고 발을 구르던
애어린 처녀의 뺨에 타던 눈물
꿈속에도 진주같이 어려오느냐

내 가슴깊이 안긴 꿈처럼
금나락 차고넘칠 들길 저기
해빛같이 웃으시며 마주 오실
아버이수령님께
만풍년 오곡을 거느리고 달려갈 그날을
너도 가슴헤쳐 하늘끝에 펼쳐보느냐

그래 들아!
나의 땅아!
지금은 꼭 자거라
계절에 앞서, 봄에 앞서
들판아, 이제
나는 너를 흔들어깨울테니

봄

계절따라 오는 봄이라면
무슨 노래 또 이렇게 엮으랴
아지랑이밑에 돋는 새 움이라면
무슨 사랑 이리도 뜨거우랴
온 세상 마주

그 얼마나 기뻐 넘실대며 춤추었더냐

양지에도 음지에도
흰눈 상기도 두터운데
벌써 랭상모 나래 안고

털목도리속에 웃는 처녀의 두볼...

구름재 오르는 프락푼 창머리엔
버들개지 꿈꾸듯 흔들리고
부식으로 나르는 청년분조원들
청맑은 노래에 짜리풀이 들썩이니

봄이여라 봄!
봄은 어디서부터 오는것일가

아, 못잊을 그날
금나락 일렁이던 하늘끝 저기
수령님 마중하여 온 별이 뚫던 그날

우리 수령님
배미에 내려서시여
고개숙인 이삭 손에 얹어보실 때엔
제 어깨 쓰다듬어주시는것만 같아
부푸는 가슴 두손으로 누르던 가슴

기쁘시여 환히 웃으실 때엔

이삭결에 고개숙여 천년을 서고싶던 마음
못이겨 가슴에 태동치다가
대지우에 태어난 봄

또다시 이 벌에 수령님 모실
기다리고기다리는 들끓는 마음들이
들에
산에
가슴에 차넘치여
서리며 아롱이며
뜨거웁게 소리없이 내려앉은 봄

강얼음 터지는 동지달 그름에도
봄은 그 어디에 떠난것이 아니여라
이 땅의 봄은
가슴에 안겨
터지도록
가슴에 부풀었다가
계절에 앞서
태어나는 봄!

여름에 대한 이야기

말없는 땅에
말 못하는 씨앗을 묻고
한줄금 물을 찾으며
하늘에 빌던 운명들이었다

이삭이 애기라면
땅에 젖이라도 물렸을 사람들
여름의 문어구에 드러누웠던
그 보리고개는 어떻게 넘었으며
이름의 막바지에 다닥친
그 폭우와 열풍은 어떻게 헤쳤으랴

마치도
길들일수 없는 야생말처럼
무더위에서 폭우에로
사나운 갈기우에 운명들을 싣고
여름은 뽕박질쳤다

그 운명들을 검불처럼 휘뿌려던지며

그래서 기우제도
여름의 땡벌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구슬픈 호곡도
여름의 비구름속에 우뢰처럼 매달렸다

오! 터갈린 그 땅을 밟아
사람들의 손등은 거북등이었고
생명을 짓누르던 떼장구름을 밟아
사람들의 얼굴은 죽음의 그늘처럼 시꺼맸다

여름
여름
말 못하는 땅을
말없는 이삭을
그처럼 태질치며

땅과 운명을 희롱하던 계절이어

...지금은 그 운명들이

광폭한 갈기에 굴레를 엮고

튼튼히도 고삐를 틀어잡았다

말없는 땅에

말 못하는 씨앗을 묻고

하늘에 빌어도

하늘조차 입을 다물던 여름

지금은

땅의 마음과 이삭의 속삭임을

속속들이도 들으며

여름은 아기를 품은 어머니처럼

금나락 두리에 차넘친

이 좋은 날에

고개들라고

하늘은 저렇게도 높이 들렸는데

어서들라고

하늬바람도 이삭 어루만지는데

봄내, 여름내

벌에 내리는 피약벌에

갑스러이 탄 고운 얼굴들

금물결에 둥둥 달같이 띄워놓고

소곳이 가을은 고개숙였네

첫 싹트던 그 봄날

싸락눈 쫓으며

숨옷 벗어 감싸주던 그 처녀들

생각만 해도 절로 머리 숙어진다고

애벌김 매주고 떠나간 지원자들

그 고마움도 못잊어

들을 살지우며

풍만한 가슴을 이삭들에 맡기고

지금은

만풍년의 큰 자옥우에

봄과 나란히

가을과 나란히

풍년가의 전주곡처럼

조화로운 음향으로 박차를 울리나니

오! 우리 수령님

주체농법을 펴시어

하늘에 빌던 그 손에

계절을 다스리는

튼튼한 고삐를 쥐어주시었다

가을의 동요

머리숙여 절하면

이랑이랑 정든 얼굴들

자꾸만 끝없이 또 보여와

동을 보라

서를 보라

비료가 오고 기계가 오고

온 나라의 마음이 굽이쳐와

알알이 이삭에 스며

지금은 한껏 무거워졌으니

가을은 인사하는 계절

겨우내

봄내

여름내

벌을 가꾼 그 마음에...

큰상 받은 순박한 녀인처럼

웃음머금고

가을은 고개숙여 절을 하네

역사적인물과 현대인간들에 대한 생각

리유근

《격강이 천리요, 관산이 만리》란 말이 있다.

가까이 보이면서도 먼것처럼 느껴진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지척인데도 자주 가보지 못해서 것처럼 멀어보인다는 뜻에서 쓰는 말이기도 하다.

룡천군 신암리는 내가 나서자란고장이다.

철산분창작실로 기지를 옮긴이후 나는 최근 몇해동안 거의 고향에 다녀오지 못했다. 거리는 불과 백여리-기차와 버스를 타면 한두시간이면 오갈수 있는 길인데도 이래저래 그럴 기회가 없었다. 그야말로 《격강이 천리》처럼 느껴지는 고향이었다.

고향에는 아직 부모님 산소와 내가 다니던 중학교며 함께 뛰놀던 소꿉시절 동무들이 있다. 전에도 그러했지만 이번에 새로운 장편력사소설창작을 준비하면서 나는 인물들의 성격은 물론 지어 그이름까지도 어린 시절 내 뇌리에 새겨진 고향사람들의 모습과 그곳 지명들을 많이 상기하며 그리려고 힘썼다.

허나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지나간 역사적인물들의 성격이 아무리 궁정적이고 훌륭한 것이었다 해도 오늘의 고향사람들의 면모와는 결코 대비도 할수 없는 시대적제한성을 가지고있었기때문이다.

궁정이 투철한 역사적인물이면서도 오늘날 인간들에게 교훈으로 될수 있는 그러한 성격을 그려내는것이 역사주체의 본연의 과제이며 기본요구라고 생각할 때 이는 더구나 그러했다.

나는 이번에 쓰는 새 작품에서 《외유내강》한 과거 우리 여성들의 성격적전형을 한번 창조해보려고 시도하였다. 물론 기본주인공은 아니지만 주인공성격을 부각하는데 중추적역할을 노는 직계인물이기에 이는 특별히 중요한 형상과제의 하나로 나섰다.

그러나 정작 그렇게 하자니 역시 뜻대로 되지 않았다. 조선녀성의 전형적특질이며 하나의 미덕이라고 할수 있는 그러한 성격이 그 당시 환경에서는 이러저러하게 제시될수 있다 해도 그것만으로 작품의 현대성의 요구를 다 구현했다고 볼수는 없는것이기때문이다.

즉 시대와 생활의 기본 지향인 시대정신을 어떻게 체현시킬것인가 하는것은 좀처럼 힘에 부치는노릇이었다. 역사적인물이 현대성의 풍격을 갖추고 나타나지 못하면 이처럼 무의미한것은 없을

것이다.

하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들끓는 현실은 문학예술의 무궁한 원천이며 창작가, 예술인들의 창작적재능을 꽃피울수 있게 하는 비옥한 토양입니다.》

지난해 한가위에 나는 머리도 쉬우는 겸 부모님산소에도 다녀오기 위해 오래간만에 고향땅을 밟아보았다. 아니, 보다는 고향사람들의 참모습에서 시대정신을 느끼며 내가 창조하려는 역사적인물들의 새로운 특질을 보충할수 있는 정신적풍모들을 발견해낼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확신에서였다.

나는 기차에서 내리기가 바쁘게 고향마을로 들어가는 낮익은 동쪽길에 나섰다.

땅이 꺼지게 잘 영근 벼이삭들이 선드러운 가을바람에 춤추듯 흐느적이었다. 어디를 둘러보나 구수하고 들크무례한 낱알향기가 한껏 무르익었다.

심신이 한결 상쾌해지는듯한 기분을 느끼며 나는 성큼성큼 부모님묘소가 있는 나지막한 야산기슭으로 접어들었다.

《아니, 작가동지 아니세요 ?》

저만치 샘치는 한복판에서 웬 체소한 녀인 손을 높이 쳐들어보였다.

(?)

《접니다, 저예요! 》

그제야 나는 그가 관리위원장 김희삼동무인줄 알았다.

《아, 위원장동무!》

나는 너무 반가와 옆으로 돌파서 다닥다닥 쥐여붙인듯한 두렁롱사이를 누비며 마주 뛰여갔다.

《이게 얼마만이에요?》

그는 내가 내미는 손을 반갑게 잡으며 부르짖었다.

《참 오래간만입니다. 그새 편안했는가요 ?》

《그러문요. 작가동지도...》

《예, 현대 한가위날 혼자서 무얼 합니까?》

《별거 아닙니다. 포전을 돌아보느라니 돌피들이 눈에 띄어서...》

나는 그제야 그의 줄안에 쥐여져있는 몇대의 돌피를 가려보았다. 그리고는 저절로 뜨거워지는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논판에 있는 몇대의 돌피가 마음에 걸려 쉬는 날에도 포전에 나와 그것을 뽑아주고야 마음을 놓는 그의 깨끗하고 성실한 일본새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가 우리 고향 신암리관리위원장사업을 맡아한지도 이제는 근 10년이 돼온다. 이 10년동안을 그는 늘 이런 본색으로 일했다. 주체농법을 꽃피워해마다 알곡수확을 높인것은 말할것 없고 농장살림살이를 다심한 주부의 심정으로 보살피 농장의 면모를 새롭게 일신시켰다.

평범한 뜨내기농사군의 딸인 자기를 작업반장으로부터 관리위원장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서까지 내세워준 당의 은덕이 하도 고마와 무엇을 바치면 자기 정성이 다 미칠까 늘 반성하며 사는 그였다. 하물며 어버이수령님께서 두 차례씩이나 다녀가신 영광의 땅에서 살며 일하는 그 보람과 긍지야 더 말해 무엇하랴.

내가 그를 처음 만나던 10년전 그때나 이제는 이미 40고개를 넘어서서 눈귀에 주름살이 잡히기 시작한 오늘이나 애오라지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을 공산주의리상촌으로 꾸릴데 대해서 주신 그 간곡한 교시를 충성과 효성을 다해 받들어가려는 그의 불타는 신념과 의지는 변함이 없는것이다.

《위원장동문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군요.》

나는 진실로 감복하여 한마디 했다.

《필요. 아직 본분을 다 하자면 멀었는데요. 호-》

그는 손등으로 입을 가리며 수집게 웃었다.

순간, 번개처럼 뇌리를 스치는 그 무엇이 나의령감을 자극하는것을 나는 느꼈다. 결보기에 유순하고 부드럽기만한 이 녀인의 진심의 말과 소박한 행동이야말로 내가 창조하려는 작중인물의 외유내강한 그 기질의 뚜렷한 표상이며 본보기가 아닌가. 결은 소박하나 속에는 강毅한 의지가 깃들어있는 인간! 나는 머리속에서 점차 하나의 성격으로 무르익혀지기 시작한 그 참모습을 눈앞에 그려보며 흥분된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그날 나는 약속대로 성묘를 하고 오후에 그를 찾아 관리위원회에 들렀다. 허나 그는 그때까지도 들판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주인없는 방에 혼자 있기 멋하여 내가 공부하던 중학교로 나가보았다.

그시간에 고향은 또 몰라보게 변모되었다. 2층 문화주택만 해도 30여동이나 더 생겨나고 옛날에 있던 교사옆에는 3층짜리 새 교사가 보란듯이 일떠섰다. 그옆의 2층짜리 교사는 나도 아는바여서 그닥 놀랄것은 없었지만 3층교사는 언제 세웠는지 참으로 뜻밖이었다. 문득 언젠가 내가 기차칸

에서 김희삼동무를 우연히 만났을 때 학교지를 세멘트를 받으러 구장에 간다고 하던 말이 생각났다. 그러구보면 이 새 교사에도 역시 그의 지성과 노력이 깃들어있는것이 틀림없었다.

나는 교장실에 들렀다가 천천히 원형식계단을 밟고 3층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어렸을 때 내가 공부하던 교사는 납작하게 내려다보였다. 해방직후 지주 윤리권이란자가 살던 집을 몰수하여 중학교교사로 만들었는데 어렸을 때는 것처럼 크고 어마어마하게 보이던 집이 지금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한때 지주 윤리권은 아흔아홉칸짜리 이 집에서 3천석타작을 하면서 앞으로 만석타작을 하겠다고 우쭐렁댔지만 제 당대도 못살고 망해버렸다.

허나 그에 비하면 체대도 작고 결모습도 연약해보이는 평범한 우리 시대 녀성인 김희삼동무는 단 몇해어간에 수십동의 아담한 문화주택과 이처럼 으리으리한 교사를 일떠세우고 3천석이 아니라 한해에도 몇십만석을 거두어들이고있으니 지주 윤리권이 땅속에서 이 사실을 알면 아마 복통이 터져 두벌죽음을 했을것이다.

저녁에 나는 권에 못이겨 그의 집에 같이 갔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것이 옷벽면에 정중히 모셔진 기념사진액틀이다. 본래 다섯상이였는데 그사이 두상이 더 늘어 일곱상이 되었다. 그중에는 전국영웅대회기념사진도 있다. 나는 김희삼동무의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의 높이를 여기서도 보는것 같아 또 한번 머리가 숙어졌다.

후에 안일이지만 그렇게 그는 농촌테제 발표 25돛이 되는 지난해에 논벼 정당 8톤반이라는 최고수확년도의 기준을 돌파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는 영광을 지녔다고 한다. 허나 10톤을 내라고하신 어버이수령님의 현지교시가 자꾸만 마음에 걸려 내내 송구한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는것이다.

나는 이 말을 전해듣고 참으로 가식없는 깨끗한 량심과 의리가 비낀 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간소하게 차린 저녁상에 마주앉았을 때 그는 이것저것 나에게 음식을 권하며 이렇게 말했다.

《매해 농사를 지어놓고보면 전 늘 혹시 내가 일을 더 잘할수 있었는데 못하지 않았나 하는 후회를 하군합니다. 실례로 아까와 같은 경우가 그렇지요. 난 올해 다섯벌감을 매서 논판에 돌피한대없는걸루 알았습니다. 그런데 글썽 아직 빈구석이남아있거든요. 그러구보면 아직 농사의 여유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그는 이렇게 자문하고나서 잠간 사이를 두었다가 나직이 말을 이었다.

《성실성이지요. 주인다운 성실성말입니다.》

그렇다. 주인다운 성실성!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대 인간들의 그 무궁무진한 창조와 기적을 낳는 정신적여유이며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미덕의 발현이 아니겠는가.

하다면 역사적인물들의 성격창조에서 여유는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그들의 제한성을 잘 그리는것일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어버이에 대한 효도가 높고 남편에 대한 충실성이 강하다 해도 오늘 우리 시대 인간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에는 도저히 미치지 못할것이다. 이런 차이와 여유-성격적제한성은 역시 그 당대현실이 빚어낸 제한성이다.

무지몽매한 봉건적압제와 질곡은 인간의 창조력을 마비시키고 정신적불구로 만드는 마약과 같다. 아무리 깨끗하고 진실하게 살려는 인간들도 그속에서는 오히려 범죄와 탄압의 대상으로 되어 종당에는 비참한 종말을 면할수 없게 되는것이

다.

이러한 시대적 및 성격적 제한성을 깊이있게 그리면 그럴수록 오늘 우리 시대의 밝고 빛나는 모든것들이 더욱 찬란히 빛을 뿌리게 될것이며 인간들의 도덕과 례의도 높은 자원에서 뚜렷한 대조를 이루게 될것이다. 역사작품의 현대성, 시대정신은 바로 이렇게 구현되는것이 아니겠는가.

현실과 오늘 우리 시대 인간들의 고귀한 정신적품모를 더 잘 알고 깊이 체험할 때 지난날에 대한 대조와 차이도 더 깊어지고 명백해지며 그것을 재현하려는 창작의욕도 강해진다는 우리 당이 밝혀준 진리를 나는 매양 들끓는 현실에 나와서 김희삼동무와 같은 성실한 인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느끼고 체험하군한다.

나의 머리속에는 봉건적질곡속에서 삶의 권리를 무참히 유린당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쳤으나 오히려 불행한 수난과 비참한 운명만 강요당하는 나의 너주인공들의 성격이 뚜렷하게 살아올랐다.

독자편지

《고향시초》를 보고

조선문학 1989년 8월호에 실린 《고향시초》(박성선 작)는 민요풍의 아담한 형식에 고향에 대한 심오한 철학적내용을 재치있게 예술적으로 형상하여 독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혁명임무를 수행하는 실천투쟁에 커다란 힘을 주고있습니다.

참으로 시초안의 매 시구절을 읊어보느라면 구나의 고향에 대한 생동한 화폭이 펼쳐지면서 숭고한 사랑의 감정을 안겨주고있습니다.

더우기나 작품의 서정적주인공의 머리칼이 군모안에서 절반은 희여졌다고 한것처럼 나의 머리칼도 탄광안전모자안에서 희여진 같은 년령기에 처하여있기때문에 같은 감정에 더욱 휩싸였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시작품에 등장한 장태화영웅이 나에게 아버지수령님께서 《나라의 맏아들》이라고 탄부들을 불러주신 그 믿음을 안고 지하전초병의 대오에서 떨어지지 말고 시대정신의 높이에서 주체형의 혁명가답게 살자고 속삭이면서 나의 손을 잡아 이끌어주는것만 같습니다.

《고향시초》는 생활세부까지 적중하고 미묘하게 묘사되었기때문에 독자들의 심장을 틀어쥐었고 뻔 말도 더할 말도 없는 주옥같은 시어들로하여 우리의 가슴속에 소중히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평안남도 덕천시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덕천탄광 전차갱 최호상

진달래꽃무늬

차승철

전쟁전, 유평방직공장에서 방직기수로 일하던 함일신이는 나와 특이한 연고가 있는 사람이였다.

너자처럼 해사한 얼굴에 가느다란 목이 상큼하던 방직기수, 생긴것처럼 마음도 연약하던 그가 살벌한 그 전쟁관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만약 살아있다면 그도 이제 인생의 말년에 이르렀을것이며 때때로 자기가 생사존망의 어려운 고비에 다달았던 그때에 저에게 지내 모질고 무정스러이 굴었던 나를 쓰겁게 추억하군하리라.

한데 얼마전 의외에도 어느 고향사람으로부터 함일신이가. 일년전부터 북방의 한 도시에서 화학섬유공장 지배인으로 사업한다는 놀라운 소리를 들었다. 그것이 엄연한 사실임을 알게 되자 마침그쪽으로 출장을 갈 일이 생기여 검사해서 길을떠났다.

5월화학섬유공장에 도착한 나는 울렁이는 가슴을 애써 누르며 지배인실에 들어섰다.

나는 그를 첫눈에 알아보았지만 함일신이는 나를 미처 알아보지 못했다. 하긴 안해의 말마따나 오십줄에 들어서면서부터 몸이 좋아지고 얼굴살이 올라 젊은때의 모색을 찾아볼수 없다는 나를 40년가까이 떨어져있던 사람이 선뜻 알아볼리 만무하였다.

나는 이 김승표를 그렇게도 몰라보겠느냐는 소리가 금시 튀어나오려는것을 가까스로 삼키며 중국에서 생산정상화상태를 료해하러 왔다는 용건만을 간단히 비치였다.

함일신지배인은 수인사를 나누면서 나를 잠시 쳐다보기는 했으나 그러루한 용무로 수없이 찾아오는 보통 출장자로부터 여기지 못한듯 무표정한 얼굴로 쏘파에 앉으라고 권했다.

수천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웃감을 비롯한 여러가지 섬유제품을 생산하는 화학섬유공장 지배인의 사업은 퍼그나 분주하였다. 책상우에 놓인 세계의 전화기가 겨끔내기로 울었고 부서책임자와 참모성원들이 무시로 나들었다. 그는 책상우에 차례로 놓이는 갖가지 문건과 청구서 전표들을 깐깐스레 풀어보며 천천히 수표를 하군하였지만 일처리가 매우 민속하였고 여러가지 물음들에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대답을 주군하였다. 아무리 쇠소리나던 사람도 예순을 넘기면 목청이 무디어 진다는데 그는 예순줄을 절반이나 넘었겠는데도 목소리가 쟁쟁하고 모가 났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던지 사람들의 출입이 뜨음해지고 지배인이 나에게 낯을 돌리려 할 때 흑곤색 양복우에 카바진잠바를 덧입은 계획과장이 들어왔다. 말쑥한 차림의 첫 인상부터가 단정하고 치밀해보이는 계획과장은 옆구리에 끼었던 문서철에서 한장의 문건을 꺼내여 지배인앞에 내놓았다.

《아무래도 다음달 생산계획에서 일부 품종을 조절해야 할것 같습니다.》

일신이는 문건에 눈길을 머문채 투박스레 반문했다.

《조절하다니, 어떻게?》

계획과장은 기분이 언짢아진듯 눈섭을 치켜올리는 지배인결에 조심히 다가섰다.

《여느것보다도 증산계획분으로 넣었던 비단천지표를 다음분기로 미루었으면 합니다. 선행공정인 합성직장의 확장공사를 벌려놓은데다 새로운 꽃무늬의 색섬염도 아직...》

일신이는 코등에 걸었던 돋보기를 벗어들며 계획과장의 말허리를 끊었다.

《확장공사나 꽃무늬엔 빙자하지 마오. 우리 스스로가 높이 세운 계획이니만치 무조건 수행해야 하오. 신심을 가지고 내밍시다. 기어이 해내겠다는 마음만 지니면 아무리 어렵고 불안전한 조건도 유리하게 전환시킬수 있소.》

계획과장은 지배인이 내미는 문건을 도로 받아 쥐기는 했으나 안심치 않은 기색으로 서성거리었다.

《어째 자신이 없는 모양이군.》

지배인은 대답을 못하고 주뒤통리는 과장을 잠시 지켜보더니 웅골차게 말했다.

《정 그렇다면 이렇게 하지요. 이제부터 계획과장동무가 이 공장 지배인이라치구 비단천계획을 내게 맡겨주시오. 책임적으로 해낼테요. 어떻소?》

《아니 그건...! 》

계획과장은 바빠맞은듯 손을 황급히 내저었다.

지배인은 소리내어 꺄꺄 웃더니 아들별이나 될 젊은 과장에게 타이르듯 말했다.

《거듭 말하지만 일거리를 쳐다볼게 아니라 굶어보아야 하오. 아무리 멀고 험한 길도 기어이 가야할 길이라 생각하고 접어들면 가깝게 여겨지는 법이요. 여러날동안 출장을 갔다오다니 요즘의 공장형편을 채 모르는것 같은데 실정을 정확히 료해하고 와서 다시 만납시다.》

계획과장의 등을 떠밀어보내는 지배인의 어조는 자신만만하고 설득력이 있었다.

나는 책상앞에 바위돌처럼 듚적이 앉아있는 일신이를 거듭 여겨보았다. 모든 거동 하나하나에서 자기 사업에 대한 신념이 여실히 감득되는 대가 센 저 지배인이 겁이 많고 잔악해보이기만 하던 39년전의 그 함일신이가 뉘단말인가?

서리가 불린듯 하얗게 세기는 했어도 술이 성기여지지 않은 총굽은 머리칼이며 젊었을 때보다 뼈대가 굵고 장대해보이는 함일신이를 새삼스레 더듬는 나의 망막에는 황토색 락엽이 훑날리던 음산한 그 가을날이 금시 있는 일인듯 선명하게 비쳐들었다.

…유평읍 언저리에서 태백산줄기를 향해 뻗어 오른 산등성이를 타고 걸음을 다그치는 세사람이 있었다. 두사람은 배낭과 총을 땃지만 한사람은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빈몸이었다. 무장을 한 사람은 유평군당지도원인 리달수와 군내무서외출배기 상등병인 나였고 무장없이 우리 사이에 끼워선 다른 한사람은 유평방직공장 방직기수인 함일신이였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시작되자 인민정권기관에서는 군내공장들의 설비와 제품을 민속하게 소개매물하도록 하였는데 누구도 모르게 일신이가 파묻혔던 방직공장의 천통구리들이 적에게 발각되어 탈취당하였다. 뜻하지 않던 그 불상사는 산에 들어갔던 일신이가 무엇때문인지 읍에 내려온 그밤에 벌어졌고 적들이 달려들기 직전에 매물장소에서 어성거리던 함일신을 보았다는 소리가 읍거리에 남아 공작임무를 수행하던 리달수와 나의 귀에 날아들었다. 우리 의심을 격증시킨것은 천을 잃은 다음에도 일신이가 읍거리에서 계속 은밀히 맴돌고있는 그것이였다. 우리는 즉시 함일신이를 찾아내어 비밀공작장소인 파괴된 정미공장 지하실로 데려갔다. 리달수는 피발이 별결계선 눈으로 일신이를 면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무엇하러 산에서 내려왔댔소?》

일신이는 멍청해진 눈길을 초점없이 허둥거릴 뿐 입을 열지 못하더니 몇번이나 다우쳐물어서야 떠듬떠듬 대답했다.

《…헤덤버치며 대충 파묻은 천통구리들이 안심치 않아서 다시 묻으려고 왔었는데 그만…》

《한데 왜 산으로 들어가지 않고 시내에 여직 남아있소?》

《…빈손으로 … 차마…》

리달수는 사려깊고 인정많은 전날의 군당지도원과는 판판 달라진 썩늘한 어조로 찌르듯 말했다.

《여기는 지난날의 유평거리가 아니라 적강점지구요. 지휘부의 승인도 없이 제멋대로 근거지를 리탈하여 이곳에 내려온것은 탈주행위나 같소. 왜 애당초 든든히 매물하지 못하고 이런 손실을 가져오게 했소? 나는 동무가 적들에게 천을 넘겨주려고 잡도리한거나 다름없는 우직스러운 행동을 했다는게 통 믿어지지 않소.》

일신이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는듯 수세미처럼 마구 뒤엀킨 머리칼을 가슴앞에 드리우며 고개를 숙이였다. 지하실밖의 큰길로는 적땅크의 종대가 지나가는모양 천정과 벽체가 드렁드렁 울리였다. 일신이는 주위를 온통 제압하는듯한 스산한 그 동음에 겁을 먹었는지 아니면 리달수의 엄한말마디에서 자기 종말을 느꼈는지 무릎을 짚은 두손이 와들와들 떨리였다.

리달수는 가궁하리만치 초래한 일신이의 몰골을 오래동안 주시하더니 나를 지하실밖으로 데리고나갔다. 비발을 머금은 두터운 구름장사이로 간신히 드러난 별들이 창백하게 반짝이는 을씨년스러운 밤이였다. 달수는 굵직하게 말아문 엽초를 절반나마 피우도록 아무말 없더니 가슴속 울화를 더는 달렐길이 없는듯 억양이 무딘 어조로 입을 열었다.

《승표동무는 저 사람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오? 마음 짚이는대로 터놓고 이야기해보우.》

일신이를 증오하는지 동정하는지 구분 못할만큼 착잡한 심중이 느껴지는 달수의 질문에 나는 선뜻 대답이 나가지 않았다. 쉬이 풀수 없는 난점을두고 모대기는것 같은 군당지도원에게 될수록 좋은 말을 해주고싶었고 방직공장종업원들속에서 근면하고 머리가 총명한 기술자라는 평판을 받아온 일신이에게 동정이 가기도 하였다.

하지만 적들에게 천을 빼앗겼다는 사실이 그의 모든 장점들을 무색케 하며 의심과 적의를 불러 일으키었다.

밤의 공간을 응시하던 나의 시선은 달수에게 돌려졌다.

《천을 고쳐 묻으려 내려왔다는 말부터가 끝이 들리지 않습니다. 엄격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가령 후퇴를 한다더라니까 우리 공화국이 영영 망한줄 알고 천을 대충 묻는척했다가 적들이 들어오자 팔아넘겼을수도 있지 않습니까.》

달수는 담배불이 입술에 당도록 연기를 곁담스레 들이빨고나서 무겁게 입을 뗐다.

《사람에 대한 평가에서 그렇게 속단을 앞세우면 안되지. 함일신이를 믿는가 믿을수 없는가 하는건 여기서 논할 문제가 아니요. 내가 내무원인 승표동무에게 묻는건 그가 천을 잃게 된 자세한 경위를 명확히 알자는거요.》

그 시각부터 리달수는 일신이가 지하실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나에게 맡겨두고는 밖에 부지런히 나돌았다. 아마도 일신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사실들을 거둬 알아보며 확인하는듯했다. 그렇게 웅근 이틀이 지난 날 새벽, 달수는 나에게 말했다.

《아무래도 이 사람을 은자산으로 데리고 가야겠소. 빨리 떠나시오.》

여기서 시간을 끌며 어물덜게 아니라 모든 조직선의 통보가 집중되는 인민유격대지휘부로 끌고가 진상을 명백히 구명하고 판결하자는 투다.

이렇게 되어 우리는 은자산으로 향하게 된것이다.

나는 내무원으로서 어느 누가 뭐라던 함일신이를 은자산까지 기어이 《호송》해가야 한다는 남다른 책임을 느끼며 길을 다그쳤으나 일신이는 접지른발목때문에 다리를 절뚝거리며 힘겹게 따라왔다. 얼마쯤 갔을 때 일신이가 갑자기 발은 신음소리를내며 간청하듯 중얼댔다.

《더는 못걸겠소. 좀 쉬었다 갑시다.》

나는 금시 쓰러질듯 비척거리는 일신이의 팔을 잡아일कु며 소리쳤다.

《어서 빨리 걸소.》

나는 내 나이보다 십여년이나 이상인 그의 등을 총끝으로 마구 때밀기까지 했다.

일신이는 피기가 짝 가시어진것 같은 창백한 얼굴로 나를 얼핏 쳐다볼뿐 대꾸 한마디 못했다.

그때 리달수가 눈을 홑뜨며 나를 쏘아보았다.

《어디다 총끝을 함부로 들이대나 영?》

나는 짧으면서도 준절한 군장지도원의 말 한마디에서 내가 지내 란쪽하게 굴었다는것을 다소 느끼긴 했으나 열여덟살 나이의 단순하고 격렬한 증오심은 의연 가시여지지 않았다.

일신이에게 잠깐 다리섬을 시키고 다시 길을 떠났다. 날밝기전에 읍거리를 떠나 한것 가까이 걸어왔는데도 일신이가 빨리 따라걸지 못하다나니 절반길도 측내나마나했다.

그렇지만 달수는 골살하나 쟁그리지 않고 《죄인》을 부축해주었다. 나는 기왕 내친 걸음이니 목적지까지 무사히 달기만을 바랐다. 하나 일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 통수골이라 부르는 작은 산간마을이 굽어보이는 산등성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룡선 아래쪽에서 《서라!》 하는 고함소리가 날아왔다. 이어 《따쿵》 하고 총성이 울리었다. 도토리나무와 잡관목사이로 우리를 향해 치달아올라오는 여러개의 보위색철갑모가 어른거리었다. 산중을 싸다니던 적수색대였다.

《저것들이 어느새 냄새를 맡았군.》

달수는 썸뽕종게 뇌이며 총을 채워들었다.

달수의 기관단총 대응사격에 몇놈이 꺼꾸러지자 적들은 미친듯 달려들었다.

《저쪽으로 빨리!》

달수가 가리키는대로 우리는 참나무가 별배기듯 들어선 수림속으로 스며들어가며 맞총질을 했다. 그러면서도 일신이를 업다싶이하고 끌고갔다. 비오듯 날아드는 총탄에 나무가지가 부러지고 발부리의 흙이 파헤쳐졌다.

《승표, 겁내지 말구 똑바로 겨냥해서 쏘라.》

뒤쪽에서 따라오며 나를 고무하던 달수가 불시에 가슴을 움켜쥐더니 천천히 쓰러졌다. 급히 뛰여가보니 그는 가슴에 심한 관통상을 입고 마치 막숨을 몰아쉬고있었다.

《저 함일신이를... 그를 꼭 은자산에...》

나는 그 한마디만을 겨우 남기고 숨을 거둔 달수를 흔들며 그의 이름을 비통하게 부르짖었다.

하나 위급하고 고립무원하게 된 그 정황에서도 어떻게 하나 함일신이만은 은자산지휘부까지 데려가야 한다는 양심이 불같이 일었다. 나는 달수의 무기를 벗겨들자 일신이를 다시 이끌고가며 사격전을 벌리었다. 그러던차에 쇠뿔치로 어깨박죽을 내려치는것 같은 둔탁한 타격에 중심을 잃

고 나뒹굴었다. 텅기쳐 일어나려 했으나 육신이 말을 듣지않고 온몸이 노그라들었다. 일신이는 총에 맞아넘어진 나와 검질기게 달려드는 적들을 엿바꾸어보며 어쩔바 몰라하더니 급히 허리를 굽혀 나의 총을 집어들려 하였다. 순간 나는 혼미해지는 의식속에서도 이사람에게 결코 무기를 넘겨주어서는 안된다는 창끝같은 각성이 일었다.

《총에는 손을 대지 마시오.》

나는 힘자라는것 소리치느라 했으나 입안에서 뱀도는 그 한마디를 남긴채 정신을 잃었다.

내가 의식을 회복한것은 제2전선부대의 어느 한 군의소에서였다. 생사기로의 중태에서 여러날 헤매이다가 겨우 살아난 나는 군의와 간호원들을 통하여 내가 적후정찰을 나갔던 군인들에게 구원되었다는 극히 요약된 사연만을 알수 있었다.

나는 몸이 완쾌되자 인민군대에 입대하였다. 재진격때에는 원주, 횡성 계선까지 진출했던 보병사단에서, 진지방어전때에는 전선동부 무명고지의 박격포수로 수많은 전투에 참가하는동안 나는 철없고 경망스럽던 외줄배기 내무원의 풋기를 가시여버린 림름한 병사로 자라났다. 전쟁은 끝났으나 함일신이에 대해선 알수 없었다.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수도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 간혹 일신이에 대한 이러저러한 풍문이 어렴풋이 들려오긴 했으나 명확치 않았다. 하긴 눈에 크게 띄우지도 않던 자그마한 촌 방직공장 기수이던 함일신이를 사람마다가 알리 없었다. 오랜 세월이 흐르도록 통 소식을 모르던 그 함일신이가 지금 나의 앞에 앉아있는것이다...

계획과장이 나가고 방이 조용해졌을 때에야 일신이는 곁에 사람을 앉혀놓았었다는것을 느낀듯 나에게 다가왔다.

《이거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나는 일신이가 레의적으로 원하는 담배를 받아 쥐고는 나직이 건넸다.

《나를 모르시겠습니까?》

일신이의 시선이 나의 얼굴에 머물렀다.

《50년도에 유평군내무서에 있던 김승표입니다.》

《?!》

일신은 놀란듯 얼굴을 찡히더니 뒤로 한걸음 물러섰다. 그리고는 가늘게 좁힌 눈에 시력을 모아 나의 얼굴을 청명경이나 직시했다. 뒤이어 그의 볼이 알릴듯말듯 떨리더니 와락 다가들며 나

의 어깨를 부여잡았다.

《옳구만. 통수골에서 헤어졌던 상등병내무원 김승표동무가 옳구만!》

나의 얼굴로부터 아래우를 거듬 더듬는 일신이의 눈에는 기쁨에 겨운 눈물이 즐쩍하니 고이기까지 했다.

《이렇게 싱싱히 살아있으면서 왜 이제야 나타났소. 이제야!》

나는 우려했던바와는 달리 추호도 꺼려하거나 거북스러워하는 빛이 없이 나를 반겨맞는 그를 어떻게 응수해야 할지 몰랐으나 그는 죽은줄 알았던 친지를 만나기라도 한듯 나의 어깨를 쓸어보고 손을 감싸잡기도 하였다. 그러는동안 몇사람이 방문을 열었으나 우리를 방해하지 않으려 조용히 물러갔다.

《바쁜 시간을 보내던것 같은데 일을 보셔야 하지않겠습니까?》

내가 잠겨든 목소리로 말하자 일신이는 나의 어깨를 가벼이 쳤다.

《무슨 소릴. 아무리 일이 바쁜들 40년만에 만난 사람과 마주했을 시간이야 좀 못내겠소. 자, 점심때도 가까왔는데 갑시다.》

일신이는 모자를 집어쓰더니 나의 팔을 무작정 잡아끌었다.

×

우리가 들어선곳은 공장사무청사 한구석에 위치한 방이었다.

《요즘 인조합성직장의 확장공사를 벌리면서 일거리가 많아진데다 집에 드나들기 성가스러워서 여기서 살지요. 끼니는 마누라가 날라다주고.》

그닥 넓지도 좁지도 않은 남향방이의 방안에는 모포를 포개여엮은 침대며 원탁이 놓여있었고 나들문결의 말코지에는 작업복과 비옷이 단정히 걸려있었다. 깨끗이 정돈된 방은 아늑하고 조용하였다. 일신이는 원탁결 의자에 나를 앉히더니 침대머리의 사물함에서 목이 긴 병을 꺼내놓았다. 상우에 가지런히 놓인 두개의 유리잔에는 발그레한 빛갈의 액체가 가득 부어졌다.

《우리 로친이 만든 약술이요. 공복에 조금씩 마시면 몸에 좋다나. 한잔 들어보우.》

나는 굳이 뒤여주는 잔을 두손으로 받아들기는 했으나 쉬이 마실수가 없었다. 일신이도 잔을 내려놓더니 상대의 심중을 헤아려보는듯한 온화한

눈길로 나를 쳐다보았다.

《내가 여기에 있다는걸 알았을 때 무척 놀랐을 테지요?》

상대의 마음속을 정통으로 알아맞춘 일신이의 말을 접하자 나는 웅색스럽던 기분이 풀리어 솔직한 심정을 터놓았다.

《특 빼개놓고 말하면 이렇게 살아계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멀리로 지나가는 비행기의 프로펠라소리같은 섬유합성탑의 동음이 은은하게 들려올뿐 방안에는 얼마간의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일신이는 다시 입을 열었다.

《승표동무로서야 의례히 그렇게 생각할수 있지요. 이 함일신이를 한편으로는 동정하였을테지만 그보다는 제 죄를 씻지 못한채 사라져버린 가공한 인생으로 치부했을수 있소. 그랬을 동무에게 나의 그후 태력을 씨원히 알려주고싶었지만 만날 길이 없었소. 그러던 사람이 이렇게 제발로 찾아왔소그러. 이야기합시다. 동무의 용서를 받던 못받던 있는 그대로 다 터놓을테니 끝까지 들어주시 바라오.》

함일신이는 리달수가 희생된데다 승표까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망연자실하여 한순간 멍청하니 서있었다. 세사람중 남은것은 오직 자기 하나뿐이었다. 하지만 총알이 연거퍼 날아오고 뭐라고아대는 적들의 왜가리청이 가까와오자 본능적으로 승표의 총을 집어들었다. 땅바닥에 꿰어앉아 몇방 쏘았으나 총이라고는 난생처음 쥐여보는 손이 사시나무 떨듯 후들거리여 총알은 모두 허공으로 날아갔다. 그는 총을 내리우고 승표를 들쳐업었으나 접지른 발목이 쭈서나서 몇걸음 옮기지 못하고 꼬꾸라졌다. 뒤를 돌아보니 행복하라고 소리치며 접근해오는 적병들의 얼굴이 푹푹히 보이였다. 살기를 띤 짐승같은 상관들을 눈 가까이 띄여본순간 죽더라도 피값은 해야 한다는 답력이 생기여 총을 꼬나들고 굼직한 참나무 밑동에 의지했다. 첫방에 맨 앞에서 다가오던놈이 피멍이 된 얼굴을 싸쥐고 나자빠졌다. 동시에 적들이 란사하는 총탄이 소낙비처럼 날아들었으나 죽음이 불가피하다는것을 느낀 그 시각에는 무아경에 빠진듯 아무것도 두렵지않았다. 그는 정신없이 방아쇠를 당기였다. 그때 가까운 어디선가 색다른 총소리가 자지러지게 울려오며 놈들이 무리로 쓰러졌다. 극악스레 덤벼들던 적들이 날벼

락을 맞은듯 전멸되고 총소리가 잦아들었을 때 화약내 풍기는 따발총을 든 군인들이 달려왔다. 적후에서 활동하던 인민군정찰병들이였다. 정찰조를 지휘하던 얼굴이 까무잡잡한 젊은 중위가 일신이의 신분을 확인하고나서 전후사연을 물었다. 일신이는 신출귀몰하듯 나타나 사경에 처했던 자기들을 구해준 군인들에게 모든걸 죄다이야기하면서도 자기가 달수와 승표에게 호송되어가던 사람이라는것만은 차마 실토하지 못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승표가 뭐라고 헛소리를 쳤다. 군관은 승표의 상처를 살펴보더니 그를 일신이에게만 맡겨둘수 없다고 생각한모양 결연히 말했다.

《중상당한 이 내무원은 우리한테 맡기고 동무 한사람만이라도 유격대지휘부로 꼭 찾아가시오. 그래야 이들이 어떻게 되었다는걸 그곳에서 알수 있을게 아니요. 다리를 접지른것 같은데 꽤 가낼수 있겠소?》

일신이는 지팡막대기까지 꺾어주며 묻는 군관의 말에 눈을 습벽이며 료량없이 고개를 끄덕이였다.

군관은 더는 긴말 할 겨를이 없다는듯 병사들에게 승표를 업혀가지고는 수림속으로 사라져버리였다. 일신이는 군인들이 순식간에 자취를 감춘 산숲을 바라보며 얼이 나간듯 한자리에 굳어져있었다. 다시는 살아나갈 길 없는 절해고도에 홀로 내던져진듯한 고독감과 절망에 휩싸여든 이 시각, 일신이는 제 죄가 얼마나 큰것인가를 통감했다.

함일신이는 늦가을의 락엽이 우수수 날리는 깊은 산중에서 갈길을 질정 못한채 점도록 서있다가 지질대로 지친 몸을 나무에 기대고 눈을 감았다. 수많은 별찌가 아물거리며 해피한 문양을 그리는 뇌리에는 제손으로 묻었던 옥양목과 광목필들이 금시 손에 잡힐듯 비껴들었다. 아! 그게 어떤 천들인가. 섬세하고 곱게 짠 꽃다지무늬광목의 날실과 씨실마다에는 인민을 위한 자기들의 로동을 더없는 락으로, 자랑으로 여기던 직포공처녀들의 정성어린 손길이 스미여있고 눈이 부시도록 새하얀 옥양목 갈피마다에는 인민의 새 나라를 티없이 길이 받들어나가려는 깨끗한 넋이 어리여있다. 것처럼 신성한 재부가 나 하나의 잘못으로 원썬들의 손에들어갔다. 크게 믿고 맡겨준 임무를 드팀없이 수행해야 한다는 투철한 자

각 대신 적에 대한 공포로 떨며 천을 전송 파묻은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 자신의 동요와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 그 후과는 한낱 실수가 아니며 보통 범으로는 다스릴수없는 엄중한 범죄이다. 아니 인간으로서의 초보적인 도리와 의리마저 저버린 배신행위이다.

일신이를 더욱 절망게 한것은 자기를 이끌고가던 리달수, 김승표가 모두 적에게 실상된 것이었다. 필경 나만 아니었다면 그들은 위험한 이 길에 오르지 않았을것이고 희생되지도 않았을것이다. 이제 유격대지휘부에 나혼자 돌아가면 참담한 이 사실을 무슨 말로 변명하랴. 피눈물을 흘리며 입이 닳도록 설명한댔자 누구도 끝이듣지 않을것이다. 적들을 리롭게 하고 귀중한 동지를 죽게 한 나에게 준엄한 판결을 내리리라는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 어디서나 힘을 주고 의지가 되던 리달수를 잃은것이 가슴터지도록 진통하였다. 마주하기 싫을만큼 뻥뻥하던 승표조차 그리워났다. 그라도 곁에 있었으면 진상을 바른대로 밝혀줄수 있지 않겠는가. 한데 그들은 모두 없다. 오직 피치 못할 엄한판결만이 기다릴 은자산을 제발로 걸어 기어이 찾아가야 한단말인가. 일신이에게는 이제 삼사십리길도 남으나마나한 은자산이 첩첩한 험산준령너머에 있는 아득히 먼 곳으로 여겨지었다. 하지만 어차피 가야 한다.

번뇌와 절망, 저러나는 발목의 동통에 허기증까지 겹치며 눈앞이 자주 아찔해나군했으나 발길 놓이는대로 정신없이 걸었다. 길아닌 길, 중중첩첩이 막아서는 험한 가시덩굴과 산속을 헤쳐가는 동안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앞이 흰히 트이며 밋밋이 흘러내린 골짜기가 나타났다. 그 아래쪽으로 넓은 밤나무밭이 보이였다. 셋노랑게 락엽이 진 밤나무숲사이로 희끗희끗 드러난 백사질 땅이 퍼그나 눈에 익었다. 순간 일신이는 발목을 잡힌듯 그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자기는 지금 은자산과는 정 반대방향인 벌방쪽으로 내려왔으며 모래골이라 불리우는 이곳에서 멀지 않은곳엔 재밤중이건 꼭두새벽이건 자기가 문턱을 넘어 들어서기만 하면 온 집안이 반겨맞던 처가가 있다는 생각이 뇌리를 강하게 때리였다. 은자산으로 간다던 내가 무엇에 홀리워 예까지 내려왔는가. 어떻게 되여? ... 저도 모르게 길을 잘못든바엔 차라리 처가에 가서 은거해있는것이 낫지 않을까? 하긴 홀로 남은 지금에 와선 은

자산이건 처가집이건 그리고 적들이 있는 읍거리이건 아무데나 갈수 있다. 곁에 지켜선 어느 누구도없는 이상 마음내키는대로 가면 그뿐이다. 세찬바람을 맞은 나무우듬지처럼 대중없이 휘청거리는 상념이 색다른 유혹을 불러일으킨 순간 일신이는 뺨을 뺨은듯 흠칫 놀라며 눈을 지릅떴다. 자기로서도 이미 각오한바 있던 제재와 판결에서 벗어난 이 비정상적인 《자유》가 죽음보다도 몇배더 무섭고 치욕스러운 막바지길임을 전불하리만큼 뼈아피 절감한것이다. 천을 빼앗기는 죄를 짓고도 정신을 못차리고 헤어나지 못할 죄악의 구렁텅이에 두번 다시 빠져들려 하다니. 폭발적인 그 경악에 쫓기여 다시 숲속으로 스며들어간 일신이는 무릎을 꿇으며 펄쩍 주저앉았다.

그 언저리에조차 가지 말아야 할 지옥같은곳에 발을 들여놓았다가 소스라쳐 텅기쳐나온듯 식은 땀이 꼭 내뿜으며 골이 돌리웠다.

그는 두방망이질하는 심장을 진정하려 나무등 곁에 비스듬히 기대여앉았다.

하늘을 열기설기 가리운 나무가지사이로 피부를 따스하게 어루만지는 가을해별이 사선으로 비껴들었다. 일신이는 습하고 어둡침침한 수림속을 밝히며 줄줄이 비쳐드는 그 광선이 직기들이 주련이 놓인 공장창문으로 흘러들던 해살처럼 생각되며 갖가지 유정한 감회를 불러왔다.

지난해 가을, 일신이는 공장설비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던 재래식수동직기들을 동력화된 력직기로 개조하였다. 일신이가 처음 개조안을 내놓았을 때 몇몇 공장관리일꾼들이 완고하게 반대해나섰다.

《사람손과 목화실만 있으면 수동직기로도 천을 얼마든지 짤수 있소. 개조요 뭐요 하며 멀쩡한 기계들을 모두 뜯어놓았다가 성사 못되는 날엔 2개년인민경제계획을 어떻게 해내겠소. 귀신이 해주겠답디까?》

우려와 함께 야릇한 조소가 어린 그 말속에는 왜정때 전문학교를 나온 방직기수라고는 하지만 아직 온전한 기술자구실 한번 해보지 못한 주제에 중뿔나게 굴지 말라는 불신이 담겨있었다. 그런데도 일신이는 도면을 들고다니며 제주장을 고집하다 못해 맥이 풀려 물러나고말았다.

그날저녁, 리달수가 의의로 함일신이네 집에 찾아왔다. 군당에서 방직공장사업을 담당하고 나와있던 그는 일신이가 마구 구겨던지듯 방구석에

밀어놓았던 력직기의 도면을 세세히 훑어보더니 조용히 물었다.

《터놓고 이야기해주시오. 일신동무는 어떻게 되어 력직기를 만들어야겠다는 큰마음을 먹었겠습니까?》

일신이는 제 가슴에 못을 박히운 그 일을 더는 생각지 말자고 이를 사려문터였지만 마음깊이 젖어드는 군당지도원의 말에 끌리어 탄식섞인 어조로 대답했다.

《큰마음이기까지야 뭐, 그저 직포공들의 힘을 자그만치나마 덜어주고싶어서였지요. 천 한메터라도 더 짜려고 아득바득 애쓰는 그들이 낡아빠진 기대를 가지고 땀흘려 일하는게 마음에 걸려 시작했던 노릇인데... 부질없는짓이었지요.》

달수는 아래터에 모가 지도록 입을 앓다무는 일신이의 팔굽을 가버이 쳤다.

《부질없는짓이라니요? 그래 결에서 밀어준다면 력직기를 꼭 성공할 자신이 있소?》

일신이는 그 말의 진의도를 가늠하려는듯 자기에게 머무른 달수의 억식억실한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물론 자신을 가졌기에 덤벼들었지요. 하지만 남들이 눈밖에 둔 나의 기술같은게 무슨 소용이라 생각하니 제 능력조차 의심되며 자신이 없어 집니다.》

《그래서 맥을 놓고 주저앉았다는건가요?》

《어찌겠습니까. 내판의 념원과 의욕을 한껏 발휘하려 했는데도 지지를 못받는걸. 모욕은 둘째치고 손맥이 풀려 더는 못하겠습니다.》

달수는 고개를 한쪽으로 기웃하더니 가쁜한 이틀에 난 백옥같은 땀을 매력있게 드러내며 소리없이 웃었다.

《약해빠진 소리 그만하시오. 나는 그래도 뼈대 있는 속마음을 들어볼가 해서 왔는데 고작 생각했다는게 그겁니까? 기수동무답지 않구만.》

달수는 침통스러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외로 돌리는 일신이를 능청스레 쳐다보았다.

《사람이 자기생애에 저지를수 있는 가장 큰 잘못은 잘못을 범할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히는것이라는 명언이 있지요. 말이 났으니말이지 나는 한기술자의 의욕에 찬물을 끼얹은 일부 일군들보다도 자기를 미처 리해 못한 사람의 편협한 말 한마디에 질겁해 넘어진 기수동무가 더 답답스럽소. 그래도 력직기 창안을 시작할 때엔 노동자들

을 위한다는 큰 마음에서였지 몇몇 일군의 낮을 보고 접어든것은 아니겠지요? 진짜 배신은 자신을 배반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되구 그것은 참담고 빛이 나게 살아가려는 지혜가 모자라는 바보들의 짓이라는데 그래 동무는 자기 신념과 목표란 꼬물만치도 없는 바보, 겁쟁이, 건달군들처럼 살겠다는거요?》

《사람을 함부로 모욕하지 마시오! 무엇때문에 당신들은 저저마다 나를 괴롭히려드는거요. 나를 내버려두고 어서 나가주시오.》

달수는 자기를 건잡지 못하고 펄펄 뛰는 일신의 반발에 불쾌해하기는 고사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웃어댔다. 그리더니 일신이의 도면을 정히 말아서 옆구리에 끼었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떠미니 나갈테요. 하지만 력직기에서 물러날 생각은 아예 마오.》

며칠후 리달수가 무슨 바람을 어떻게 불어넣었는지 이제 당장 력직기를 설치하게 된다는 말이 공장안에 짹 퍼졌다. 력직기개조를 누구보다도 팔견고 지지해나선 노동자들은 신중한 협의끝에 낡은 직기들을 몽땅 해체하였다.

일신이는 쉬임없이 돌아가던 기계소리가 일시에 멎고 공장이 숨을 죽인듯 조용해지자 어깨가 무겁다기보다 두려움이 앞섰다. 예상외로 일판이 크게 벌어지는통에 당황해나서 일의 선후차를 미처 가리지 못하는 일신이에게 달수는 말했다.

《겁낼것 없소. 노동자들이 하겠다고 덤벼드는데야 못해낼게 뭐겠소. 대중에게 파악된 리론은 어김없이 물질적힘으로 전환되기 마련이요. 일신동무의 력직기가 지금에 와선 노동자들의것이라는걸 믿구 선만 똑바로 그어주시오.》

낡은 수직기를 동력화된 력직기로 개조하는 작업이 련일 치렬하게 벌어졌다. 수리공, 전공, 직포공, 사무원 할것없이 종업원모두가 일신이의 설계에 반영된 선과 점들에 따라 직기의 틀을 고치고 새로운 부속을 만들어냈다. 로숙한 수리공도 난생처음 답뽀로 나사치기를 해보는 직포공처럼도 무슨 일이건 일신이가 요구하는대로 열번, 스무번 다시 해서라도 기어이 제대로 해놓곤하였다. 거기에다 온 군이 방직공장을 지원하였다. 국영철공소에서는 동력용 장축과 치차를 만들어보내왔고 선박수리공장에서는 목재를, 송배전부에서는 전기줄과 변압기를 가져왔으며 소비조합식당에서는 옥수국물에 만 씨원한 탕면을 점심때마

다 날라다주었다. 리달수도 기름칠한 작업복을 입고 일신이와 함께 일했다. 일신이는 추호의 사심과 분식도 없이 오직 공통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성심껏 펼쳐나선 그들과 휩쓸려 일하는속에서 사람의 능력과 지혜는 제 하나뿐이 아닌 사회와 전체를 위한 의무를 수행하는 길에서만 옳게 발휘되고 빛이 난다는 새로운 진리를 난생처음 체득하였다. 그것은 왜정때 일신이가 다니던 방직회사에서나 안온한 집안구석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정가롭고 상쾌하고 벽찬것이었다. 일판을 벌리어 보름도 되나마나한 짧은 기간에 직기들의 동력화를 완전히 끝내고 기대에서 첫 제품을 뽑던 날, 일신이는 생활에서 가장 고상한 향락인 자기 념원을 실현했을때의 기쁨을 맛보았으니 집단의 존대와 믿음을 받으며 밤과 낮이 어떻게 가는줄도 모르고 일에 심취했던 그때야말로 철없는 자기의 응석과 투정도 락으로 받아주고어 찌다가 마당비 한번든것조차 대견스레 여기던 부모의 슬하를 룡가하는 잊지 못할 시절이었다. 그 시절에 새 나라의 은덕과 인민의 힘을 알았으며 진짜 인생을 배우기 시작했으니 제구실 할것같지 못하던 연약한 《방직쟁이》를 벽찬 생활의 한복판에 들여세워준 리달수야말로 평생의 은인이였다. 그 고마움을 빛이 나게 보답할대신 시련의 첫시작부터 일을 망쳤다. 그러고도 정신을 못차리고 어떤 구렁텅이에 빠져들번했는가. 만약 리달수가 곁에 있다면 인정도 의리도 모르는 무퇴한이라고 뺨을 쳤을것이다.

일신이는 제생각에서 깨어나자 무릎마디에서 으드득 소리가 나도록 힘주어 자리를 일었다. 그리고는 오던 길을 되짚어 산발을 툭아올랐다. 내려오던 때와는 다른 울리막길인데도 걸음은 갑절로 빨랐다. 보이지 않는 어떤 거대한 힘에 이끌리어

떠났던 자리에 다시 다들은 일신이는 부근의 어느한곳에 이르러 조용히 멈춰섰다.

바로 그의 눈앞 해묵은 굴밤각지가 웅단처럼 두툼히 깔린 도토리나무밑에는 리달수가 자는듯 누워있었다. 일신이는 흑흑 흐느끼며 불디불은 저녁노을이 비쳐든 달수의 얼굴을 점도록 굽어보았다. 그리고나서 참나무꼬챙이를 땡이 삼아 가까운 양지쪽에 묘혈을 파기 시작하였다. 땅은 흙발이 부드러워서 그닥 굳지 않았다.

영원히 잊을수 없는 환희롭고 행복하던 그 나

날에 자기를 참된 인생의 문어구에 들여세워준 사람을 제손으로 묻는 일신이의 두눈에서는 수는 방울같이 목직한 눈물이 줄지어 흘러내리였다.

그는 티검불 한오리 없이 한줌한줌 정히 골라낸흙으로 리달수를 깊이 감장하고나서 봉분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이렇게 먼저 가버리면 홀로 남은 나는 어떻게 하라오. 하늘처럼 믿고 의지했던 언덕이 허물어졌으니 나는 바람 한점 막아줄데 없는 사지판에 홀로 남았구려. 하지만 내 력직기를 만들 때와 조금도 다름없는 마음으로 그리운 공장사람들이 있는 은자산으로 기어이 가겠소. 백번 죽을지언정 그곳지휘부에 한사코 찾아가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으며 군당지도원과 승표가 어떻게 피 흘리며 쓰러졌는가를 죄다 말하고 심판을 받아도 인민의 심판을 받을테요. 죽어도 살아도 지도원동무앞에 지은 죄를 씻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는 결코 가지 않을 함일신이라는걸 믿고 눈을 감아주오!》

일신이는 달수와 승표의 총을 거두어 메고 길을떠났다. 접지른 발목을 끌며 적들이 언제 나타날지 모를 산속을 헤쳐가는 험한 밤길은 한걸음 한걸음이 백걸음 맞잡이로 힘겨웠으나 그 이튿날 밝을무렵에는 기어이 은자산에 가닿았다.

유형인민유격대근거지는 판암사라는 절간이 들어앉은 은자산 안골짜기에 자리잡고있었다. 안침진 계곡의 산력에는 림시로 꾸러놓은 산막들이 널려있었는데 거기가 바로 지휘부였다.

함일신이가 총탄과 나무가지에 굽히워 마구 찢어진 옷자락을 너풀거리며 그곳에 겨우 다달았을때 몇사람이 마주 달려나와 그를 지휘부로 데려갔다. 보위색 솜옷에 혁띠를 두르고 목갑권총을 찬 군당위원장이 웃음이란 당대 지어본것 같지 않은 근엄한 얼굴로 일신이가 그동안 격은 자초지종을 주의깊게 들었다. 그는 일신에게서 의심스럽고 리해가 안되는 말이 나올 때면 거듭 되묻곤하였는데 그 낮빛이 어찌나 칼칼하고 엄숙하였던지 일신이는 자기의 말마디들이 그의 귀에 하나도 흘러들지않고 도로 튕기여나오는듯한 위압을 느끼였다. 하지만 일신이는 떠듬떠듬 끊기우면서도 명료한 목소리로 제가 저지른 모든 일과 일시 동요했을 때 품었던 생각까지도 하나 숨기지 않고 다 터놓았다.

특히 리달수의 최후에 대해서는 마디마디 찍어

가며 자세히 말했다.

퍼그나 오랜 시간에 걸친 담화가 끝나자 어떤 사람이 일신이를 린접한 초막으로 데려내갔다. 아무도 없는 외딴 《방》이었다. 일신이는 극도의 피로로 파김치처럼 나른해지는 몸을 더는 지탱할 수 없어 새초를 깔아놓은 바닥에 비스듬히 누웠다. 눈을 좀 붙이려 했으나 잠은 오지 않고 정신이 더욱 말뚱말뚱해졌다. 꼬리를 맞물고 일어나는 잡다한 생각중에서도 자기는 지금 누구도 얼굴한번 들이밀지 않는곳에 억류되어있으며 이시각 지휘부에서는 자기에 대한 판결을 두고 칼끝같은 론의가 벌여지리라든 죄의식이 머리를 지배하였다. 판결은 기껏 늦잡는다 해도 오늘 저녁중으로 떨어질것이다. 아니 그보다 훨씬 이전인 방금후에 내릴수도 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포와 비애의 감은 없고 마음 밑바닥은 깊은 물속처럼 평온하였다. 따라서 모든게 결판난 이후의 제 운명같은것보다도 그것이 도래하기 직전인 이 짧은 시간에 귀중하고 환희롭던 시절을 추억하며 그때에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생활의 진수와 의미를 두고 깊은 생각에 잠기고싶었다.

…력직기 설치를 끝낸 어느날, 리달수는 산에서 진달래나무 몇그루를 떠왔다.

일신이는 공장구내의 화단에 나무를 열성스럽게 심는 달수를 의아롭게 바라보며 말을 건넸다.

《멋진 관상용 화초도 많은데 하필이면 산에까지 가서 이걸…》

달수는 삽질을 멈추고 허리를 펴더니 앉은키만한 나무의 암회색 가지를 다정히 쓸어만지었다.

《물론 이 진달래는 어느 산에 가나 흔하오. 하지만 사람들은 이 꽃을 좋아하지요. 일제를 쳐부시며 조국에 진군했던 항일유격대원들도 이 진달래꽃에 불을 비볐다지 않소. 추운 겨울을 곳곳이 이겨내며 망울을 여물구었다가 봄이 오기 바쁘게 맨먼저 피어나 투사들을 맞이한 이 진달래꽃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답소. 나는 이 꽃에 모진 설한 풍속에서도 오직 위대한 장군님만을 우러러 따르며 싸워이긴 투사들의 신념이 어리여있는듯싶어 더욱 곱고 소중하게 여겨지오.》

달수는 시적인 명상이 어린 다심한 눈길로 일신이를 마주보았다.

《기수동무, 앞으로 우리 공장에서 이 진달래꽃 무늬를 새긴 비단천을 짜는게 어떻겠소. 산에만 피던 진달래꽃이 우리 인민들의 옷감에 옮겨져

그들이 언제나 새삼이 약동하는 희망의 봄을 사철느낄수 있도록 말이요.》

일신이는 리지적이고 뜻이 깊은 달수의 말에 점차 끌려들어가느라니 금시 봄을 맞이한듯 주위의 모든것이 생신하고 다감하게 비껴들었다. 동시에 이 진달래나무의 래일과 함께 자기의 앞날, 공장의 앞날이 여러가지 즐거운 화폭으로 련상되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한낱 공상이 아니라 력직기도입을 성사시킨것과 같은 래일의 현실이며 그런 실천의 련속으로 잇닿은 환희로운 미래가 공고하고 뚜렷한 룡곽으로 마음속깊이 비쳐드는 것이었다. 달수와 함께 나무를 심은지 몇달후인 올해 봄, 진달래나무에서는 연분홍색의 탐스러운 꽃송이들이 화단을 뒤덮으며 활짝 피어났다. 코가 알싸하도록 짙은 향기를 풍기는 그 꽃송이들을 보며 일신이와 달수는 얼마나 기뻐했던가…

밖에서 급한 발자국소리가 울리더니 자기를 여기까지 데려왔던 사람이 다시 나타났다.

《빨리 나오시오.》

(드디어 왔구나!)

잠시후 함일신이는 군당위원장을 위시한 유격대지휘성원들이 빙 둘러앉아있는 산막에 들어섰다. 말없이 자기를 지켜보는 그들속에는 군인민위원장, 군내무서장, 검찰소장과 몇몇 녀성일군들도 섞여있었다. 다가올 겨울과 더불어 삼키워질 제 잔명을 한탄하며 흐느낀다는 늦가을 베짖이의 처량한 울음소리가 명료하게 들릴만큼 물을 뿌린듯한 침묵이 얼마간 흘렀다. 고개를 떨구고있는 일신이에게있어 제 혼신을 압착하는듯한 몇초간의 그 침묵이야말로 축정의 한계를 초월한 무한히 긴 시간이었다. 언제부터인지 석싹하면서도 저력있는 군당위원장의 목소리가 일신이의 고막을 울리었다.

《…제 자의로 근거지를 리탈한 한사람의 무규률적인 행동은 우리 대오안에 실로 엄중하고 가슴아픈 결과를 가져왔소. 원썬들에게 한알의 쌀, 한모금의 물도 주지 않으려는 피어린 싸움이 벌어지고있는 이때에 많은 천이 적의 손에 들어가게 했고 더우기는 귀중한 동지를 두사람이나 잃게 했소. 그죄과가 얼마나 큰것인지 아오? 어디 말해보우.》

높지 않으면서도 찌렁하니 가슴에 울려드는 그 목소리에 온몸이 가다든 일신이는 자기에겐 겨누어진 창끝같은 눈초리들을 시각으로가 아니라 전

신의 감각으로 느꼈다.

격양된 증오와 규탄을 담은 피타는 웨침소리들이 금시 정수리를 내려치는듯했다.

아, 나는 인간이 아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빛이 나게 지켜가야 할 숭고한 의리를 저버렸을뿐더러 만사사람에게 힘을 주고 창창한 꿈을 키워주던 리달수를 희생케 한 이 죄를 무엇으로 씻는단말인가!

일신이는 모든것을 각오한 이 시각에조차 가슴을 찢어발기는듯한 자기모멸로 어깨를 떨었다.

달수를 두고 남기고픈 하구 많은 말이 목에까지 치달아 올라왔으나 입술만 푸들거릴뿐 혀를 놀리지 못하는 일신이에게는 먼 공간에서 울려오듯한 군당위원장의 목소리가 울려왔다.

《읽어보우. 리달수동무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낸 편지요.》

일신이는 군당위원장이 내미는 종이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기는 했으나 16절백로지에 연필로 깨알처럼 쪼아박은 글자가 하나로 엉켜돌며 도시 읽어낼수가 없었다. 곁에 있던 군녀맹위원장이 편지를 읽어주었다.

《...저는 함일신동무를 잘 압니다. 그는 한때 나약하게 비척거린적이 있었지만 집단과 동지들의 방조속에 제 할바를 찾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해왔습니다. 당의 목소리와 현실에 민감한 함일신동무는 앞날이 기대되는 능력있는 기술자입니다. 일신동무가 건사했던 천 역시 그가 로동자들과 함께 큰 마음 먹고 만든 력직기에서 생산된 것입니다. 그게 너무도 소중하여 고쳐 물으려고 단신으로 산에서 내려왔다가 적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일신동무는 다행히 몸을 피할수 있었으나 천은 적들에게 탈취당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자 죽는 한이있더라도 천을 찾아내겠다고 읍거리에 남아있었습니다. 자의로 근거지를 떠난 무규률적 행동은 잘못되었지만 자기들이 땀흘려 마련한 재부를 준엄한 오늘에 피흘려 지키려던 진정이 더없이 귀중하다고 봅니다. 생사를 결단하고 어떤 모험도 서슴지 않으려는 일신동무를 우리가 불들어두었습니다. 나머지 공작임무를 끝내는 즉시로 그를 데리고 지휘부로 올라가겠습니다. 천을 잃은것은 함일신동무를 몸가까이 도와주지 못한 제게 책임이있습니다. 어떤 비판과 처벌도 그와 함께 받겠으니 돌아갈 때까지 기다려주십시오...》

리달수가 일신이를 비밀공작장소로 데려간 그

날에 써보낸 편지의 뜨거운 구절들을 너인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랑독하고나자 한참동안 숙연한 정적이 흘렀다.

군당위원장은 철늦은 단풍이 빨갛게 뒤덮인 초막밖의 산밭에 점도록 눈길을 멈추고있더니 몸을 돌려 천천히 편지를 집어들었다.

《아. 사람두 참! 하얏은 말이 많았겠는데 이렇게 몇줄 안되는 편지만 남기고 떠나가버리다니!》

군당위원장은 갈린 목소리로 뇌이고나서 일신이를 향해 조용히 이었다.

《유령군당위원회 지도원 리달수동무가 마지막 순간까지 바라고 간게 무엇인가를 잊지 말아야 하오. 그는 인민의 한사람인 동무가 물속에서나 불속에서나 바로 놓으나 얹어놓으나 티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일생 변함없이 조국을 받들어나가리라 믿었구 그 신념을 지켜 자기 목숨을 바친거요.》

일신이는 구뭇했던 등이 경련을 일으키듯 떨리더니 목에서 참고참았던 흐느낌이 꺾하고 북받쳐올랐다. 견잡을수 없이 솟아나는 눈물로 무지개가 서린 망막에는 완성된 력직기를 진귀한 보물처럼 쓸어만지며 환하게 웃음짓던 달수와 가슴을 불안고 숨을 거두면서도 이 함일신이를 은자산에 꼭 데려가달라고 승표에게 당부하던 달수가 비쳐들었다.

리달수지도원! 그와 함께 있으면 만나는 사람 모두가 친형제처럼 여겨지고 추운 겨울날도 봄날처럼 따스하게 느껴지던 사람, 희망도 크고 할일도 많던 그는 보잘것없던 나를 은혜로운 조국의 품속에서 생을 빛내이게 하려고 천금보다 귀한 자기 목숨을 바치였다. 그 뜨거운 마음을 그를 잃은 지금에 와서야 깨닫게 된것이 더 가슴쓰리여 울었다.

《달수동무와 잇닿은 그 마음이 있어 동무는 사선을 헤치고 여기로 왔소. 일시 집을 뛰쳐나갔던 자식이 매를 맞아도 부모의 손에 맞고 죽어도 제 집에서 죽겠다는 갈망으로 집으로 다시 돌아온것처럼 우리한테로 찾아왔소. 우리는 적에게 털려온 천몇쌍보다도 어떤 역경속에서도 우리 당을 드림없이 따르려는 동무의 신념을 몇배 더 귀중히 여깁니다. 함일신동무. 먼 앞날에 가셔도 리달수동무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인생을 참담게 살며 우리 조국을 길이 받들어나가기 바랍니다.》

그날 저녁, 함일신에게 무기가 수여되었다. 군당지도원 리달수가 지냈던 기관단총이었다. …

일신이는 그 총구가 식을사이 없이 원썩들을 무자비하게 쏘어놓히었다.

전후 그는 직장장, 부기사장의 직책을 걸쳐 인민경제대학을 졸업하고 이곳 화학섬유공장의 지배인으로 일하고있다.

…일신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다. 나는 전혀 상상조차 못했던 일신이의 회상담에 깊이 젖어든 어조로 조용히 건넸다.

《그때엔 내가 너무나 버릇없이 굴었지요. 그것도 그렇지만 티끌만한 허물도 없이 한생을 깨끗하고 곧바르게 살아오셨을 일신동지를 헛판곳에서 찾으려던것이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욕 많이 하십시오.》

《무슨 당치 않은 소릴 하오.》

온화한 미소가 어리는듯싶던 일신이의 넘죽한 얼굴이 정색해졌다.

《하긴 나는 리달수지도원과 함께 나를 은자산으로 끌고가던 승표동무를 가끔 생각하군했습니다. 깨끗하게 군 상등병내무원을 쓰겁게 여긴적도 없지 않았지만 곰곰히 생각해볼수록 그때 동무가 취한 립장은 나를 위해 백번 옳은것이였다고 리해되더군. 엄밀히 말하면 사람이 제정신을 잃고 길을 헛들였을 때엔 어떤 값을 치르어야 하는가를 일깨워준 동무야말로 나의 은인이라고 할수 있지요. 그래서 늘 보고싶었더랬소.》

《그렇게 생각해주셨다니 고맙습니다.》

나는 일신이의 말이 추호도 꾸밈이 없는것이라 느껴질수록 깊은 자책에 휩싸여들었다.

만약 그때 일신이의 주위에 나처럼 편협한 사람만 있었다라면 오늘의 그는 어떤 운명에 처했으랴! 아니 일신이는 나같은 사람이 열 아니라 백이 나서서 온갖 《죄》를 들썩우며 괴롭혔다 해도 고마운 당의 품에서 자래운 신념대로 제 갈길을 곳곳이 갔을것이다. 지나온 40년뿐이 아닌 먼 래일까지도… 그런 함일신이 존경심과 함께 한눈가득히 비쳐들었다.

일신이는 나의 심중에는 크게 개의치 않는듯 웃음띤 얼굴로 약속잔을 권했다. 나는 용서를 바라는 마음으로 잔을 들었다.

×

함일신지배인은 매우 절제가 있는 일군이였다.

정확히 오후 근무시간이 되자 그는 나를 자기 사무실로 데리고나갔다. 나는 지배인의 전화를 받고 즉시 달려온 설비과장과 함께 일에 착수하였다.

원료가공, 해침, 빗질 등 모든 공정의 설비들은 만부하로 정상가동을 하고있었다. 함일신은 확장공사를 벌린 인조합성직장에 노상 붙어있었는데 거기서는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일부 설비들을 순환식으로 운영하며 린접공정의 생산을 보장하고있었다. 기름칠한 밤색 작업모자를 뺀 이마우에 폭 내려쓰고 기대사이를 분주히 오가는 그의 곁에는 도면을 든 기사와 기대공들이 떡보숭이처럼 물어다니며 뭐라 벅적 떠들고 웃어대기도 하였다. 그것이 어찌나 조화롭고 자연스러운지 내보기엔 그들속에서 함일신이란 빠지면 살아움직이는 화폭과도 같은 공장의 거창한 전경이 주인공없는 그림처럼 맥이 빠질것 같았다.

모든 설비들이 불비한 개소란 없이 만부하로 생산을 정상화하고있어 나는 단 이틀동안에 출장 임무를 순탄하게 끝냈다. 그러면서도 함일신을 두고 노상 깊은 생각을 좋았다. 나는 갖가지 화려한 전폭이 폭포처럼 쏟아져나오는 모든 기대들이 순수한 동력에 의해서만 아니라 어떤 어려운 고비에 맞다들어도 추호의 침체와 동요가 없을 일신이의 신념에 견인되어 세차게 돌아가는것으로 감득되였다. 나는 평양으로 돌아가기에 앞서 레의 그 《숙소》에서 일신지배인과 다시 마주앉았다.

몇마디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때 계획과장이 병글거리며 방에 들어왔다. 과장은 들고온 종이꾸레미를 지배인앞에 풀어헤치였다. 그러자 눈이 부시도록 현란한 꽃비단이 나왔다.

《방금 완성직장에서 나온 첫제품입니다.》

계획과장은 연한 남색바탕에 찍힌 보라색 꽃무늬를 취한듯 굽어보며 일신이에게 말했다.

《지배인동지가 이 진달래꽃무늬도안을 내셨더군요. 기술과동무들이 이 며칠동안에 새로운 색섬유섬유법을 적용하여 무늬가 더 진하게 살아나도록 했다는것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이런것도 모르구 꽃무늬 걱정을 앞세우며 비단천지표를 에누리하자고 들었으니 참.》

일신이는 열적게 제 이마를 매만지는 과장의 어깨를 가벼이 쳤다.

《다시는 계획을 조절하자고 안할테지요?》

《조절하다니요. 얼마든지 해낼수 있습니다. 정말 신심이 생깁니다.》

계획과장이 활기찬 걸음으로 방에서 나가자 나는 진달래꽃무늬가 새겨진 비단천에 눈길을 주었다. 그러느라니 리달수가 먼산에서 떠다심었다는 진달래나무가 생각났다. 그 진달래꽃을 무늬로 옮긴 비단천이다.

창문으로 흘러드는 해빛을 받아 눈부시게 아롱거리는 꽃무늬속에 일신이가 지나온 혈치 않은 인생행로가 다시금 떠올랐다.

그렇다. 어떤 시련과 역경속에서도 변치 않은 고결한 신념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저 진달래꽃처럼 활짝 피어나 억년 시들줄모르는 무비의 힘을 낳기 마련이다.

나는 일신이의 바래움을 받으며 공장정문을 나

섰다. 시내쪽으로 시원히 뻗은 넓은 도로의 양옆에는 봄의 신록으로 단장한 은행나무들이 남쪽에서 불어오는 훈훈한 미풍을 받아 가벼이 흐느적이고있었다. 도로를 확장하면서 새로 떠다심은 어린나무들이었다. 아마도 저 가로수들은 눈보라치는 겨울이나 찜물쿠는 여름이나 땅속깊이 뿌리를 박고 해빛을 우러러 자라는속에 머지 않아 울창창한 거목으로 될것이다.

나는 가로수뿐아니라 길을 활기있게 오가는 사람들도 저기 대형부채를 가볍게 물어올리는 키높은 기증기도 또하나 새로운 생의 진리를 체득한 자기와 필수적련관이 있는것으로 친숙하게 비껴들었다.

고결하게 승화된 감정에 젖어든 나는 나를 바래주는 일신의 뜨거운 눈길을 등뒤에 느끼며 역을 향해 힘있게 걸어갔다.

기타를 타네

김종백

은실금실 드리우는 달빛이 좋아

활짝 창문을 열었더니

들큼 안겨드는 화초의 향기

노래없이 이 밤을 어이 보내랴

저기저 공원의 꽃전등 노래속에 묻혔네

팔아기 맑은 노래 창가에 흐르네

멋들어지게 넘기는 흥겨운 가락

프락의 실버들 부어잡고 춤을 추네

일터에서 땀흘리며 내가 가꾼것

이러히도 아름다운 노래였던가

내 집문을 두드리는 만가지 기쁨

줄줄이 금선우에 나래퍼누나

어떻게 찾아온 행복한 저녁인가

조국이 없다면 바라지도 못하리

사무치게 이 저녁이 소중한줄수록

로동으로 내 조국 받들어갈 진정의 노래

기타야 너도 함께 부르자

하늘에 둥근달 큰 복처럼 걸렸구나

우리 행복 오리오리 감고늘인 금선우에

고마운 조국이 실어준 이 저녁의 기쁨을

이 한밤에야 어이 다 노래하라

새벽하늘에 희망의 꽃노을로 수놓으리

아, 나는 기타를 타네

농장의 새 모습

주동섭

푸근한 3 월의 달밤에 우리는 함주군 주서리협 동농장에 도착하였다.

논갈이한 들판에서는 구수한 흙냄새가 풍겨오는데 밤하늘을 태우며 삼단처럼 피어오르는 불길 이 우리의 시선을 끌었다. 그 불빛에 새로 지은 3 층주택들과 준비하게 늘어선 기와집들이 한눈 에 안겨왔다.

《저건 무슨 불입니까?》

황홀히도 아름다운 광경에 심취되었던 우리가 묻자 우람찬 체격에 수더분하게 생긴 리당비서 오정근동무는 석싹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로에서 쇠를 녹이고 있습니다.》

로?!

무연한 넓은 들, 사방을 둘러보아도 하늘과 땅 이 맞붙은 함주벌 한복판에 자리잡았다 하여 예 전에 《배꼽》마일이라고 불려온고장에 쇠물을 녹 이는 로가 있다는것이 곧이 들리지 않았다.

도대체 이 농장에서 철을 얼마나 쓰겠기에 로 까지 세웠단 말인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본것처럼 리당비서 오정 근동무는 허허 웃고나서 이제 자고나면 다 알게 된다는듯이 우리들을 숙소로 안내해주었다.

알뜰하게 꾸린 농장려관에 려장을 풀고 단잠이 들었던 우리는 해를 치는 닭울음소리와 트락포르 의 우렁찬 동음에 잠을 깨었다.

밖에 나와보니 전야는 은백색안개에 잠겨있었 다. 그러나 농장마을 여기저기서 문여닫는 소리가 들리고 서로 찾고 부르며 농장원들이 일터로 나가고있었다.

이어 트락포르들이 툽툽거리고 자동차들이 부 룡부룡 들고 나가기 시작했다.

위대한 수령님의 올해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90 년대의 첫해부터 만풍년을 마련하려고 온 농 장마을이 새벽과 함께 일시에 들끓고있는것이다.

우리는 농촌마을의 약동하는 활기에 공연히 들 뜨는 마음을 금치 못하며 아침부터 서둘러 농장 관리위원회로 찾아갔다. 관리위원회사무실은 비 어있었다. 모두 포전으로 나간 모양이었다.

우리가 주인이 없는 사무실을 떠나 큰길로 나 섰는데 마침 리당비서 오정근동무가 탁아소 보육 원인듯한 너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에게로 다가왔다.

우리는 그의 안내를 받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연구실앞으로 늘어선 리인민병원과 문화 회관 그리고 아담하게 지은 유치원과 탁아소, 상 점을 비롯한 후방시설들과 번듯한 기와집들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리당비서 오정근동무는 사방을 둘러보며 걷는 우리에게 말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쟁시기에 재더미로 되 었던 이고장을 현대적인 사회주의농촌으로 전변 시켜주시였습니다. 우리 농장에는 수백정보의 논 과 밭 그리고 남새밭과 뽕나무재배지, 축산기지 와 과수원들이 있습니다.》

그의 말에 화답하듯이 버드나무에 앉아 금빛해 살이 퍼지는 들을 살피던 까치가 깍깍거렸다.

우리곁에서 제불장을 보다가 어미를 놓친 송아 지 한마리가 뛰어가자 수리분조앞에서 얼렁개가 경경 거리며 쫓아냈다.

리당비서 오정근동무는 우리와 함께 수리분조 마당에 들어서며 말을 이었다.

《이 수리분조는 농장의 종합적기계화를 완성하 는데서 중요한 거점으로 되고있습니다. 나날이 번창하는 농장살림살이에서 늘 모자라는것은 로 력인데 그 예비는 기계화에 있고 기계화는 철이 없이는 안되지요.》

수리를 끝낸 트락포르, 자동차들의 발동소리와 선반기들의 고르로운 음향과 리듬맞춰 울리는 마 치소리에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더 들을수 없었 다.

수리분조는 구색을 갖춘 지방산업공장에 짝지 지 않았다. 디젤유냄새가 짙은 룬전기재들의 보 수장과 잇닿아 쇠밥을 말아올리며 각종 농기계부 속품을 깎는 공작기계작업장, 시뻘건 쇠를 단검 에 두드려대는 단조장에서는 불꽃이 튀기는데 《기술혁신돌격대》라고 써붙인 건물앞에서는 새로 만든 벼락종기를 시운전하고있었다.

산들산들 봄바람이 실어오는 전야의 흙냄새와 는 다른 쇠내가 우리의 가슴에 흘러들었다.

협동농장에서 말는 쇠내는 류다른 향취를 느끼 게 하였다. 그 향취는 수리분조 한쪽마당에 발사 대의 로케트처럼 서있는 자그마한 로로 하여 더 짙어지는것 같았다.

매마침 품에서는 또 한차례의 출선을 시작하고

있었다.

별찌같은 쇠물꽃을 피우며 줄기차게 쏟아지는 붉은 쇠물은 제창 각이한 농기계부속품들과 운반기계의 바퀴레로 주물되고있었다.

뜨거운 열풍을 맞으며 쇠물을 들여다보던 이마가 높고 하관이 좁은 사람이 쇠장대로 출선구를 넓혔다. 그러자 주홍색의 쇠물은 더 세차게 흘러나왔다.

리당비서 오정근동무는 나이에 비하여 동작이 민첩한 그 사람의 모습에 반해있는 우리에게 귀띔했다.

《농장기사장 한명진동무입니다.》

우리는 주서농장의 참모장과 인사를 나누고싶었지만 그는 반백의 머리를 쓸어넘기며 벼락중기를 시운전하는곳으로 가버렸다.

리당비서 오정근동무는 농장에서 어떻게 로를 세웠는가를 알고싶어하는 우리에게 말했다.

《리당위원회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실현하는 길에서 3 대혁명을 힘있게 관철하며 농장원들에 대한 충실성과 효성 교양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바다도 산도 뜯어먹을수 없는 벌방에 작기는 해도 쇠물을 굶이는 로도 일어서고 세멘트공장과 비닐박막생산기지, 비누공장까지 생겨났습니다. 오늘의 우리 농민들은 나라에 손을 내밀고 달라고만 하던 어제날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번쩍번쩍 해빛을 반사하며 수리분조마당에 주련이 늘어선 수십종의 농기계들은 중앙전람관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현대적인 농업생산수단들이었다.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그 많은 기계들을 자체의 힘으로 척척 만들어내고있는 사람들을 어찌 한갓 농민이라고만 하겠는가. 참으로 어제날의 농민들이 아니었다.

리당비서 오정근동무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농촌이 도시를 닮아가자면 제발로 걸을줄 아는 사람들을 많이 키워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리당위원회에서는 농업 기술자들을 대대적으로 양성하는 사업에 선차적인 주목을 돌렸습니다. 농업전문학교 통신분교도 내오고 대학과 전문학교들에 많은 청년들을 보냈습니다. 지금 그들이 자기 고향을 이처럼 꾸려나가는 3 대혁명기수들입니다.》

우리는 그의 시선을 따라 봄갈이가 한창인 넓은벌을 바라보았다. 밀려오는 꺼밋한 잔파도를 련상시키며 끝없이 이랑이랑 번져진 살찐 흙에서는 아지랑이가 떠오르는듯했다. 그렇게 숨쉬는 전야에는 봄파종을 서두르며 거름내는 농장처녀

들의 붉은 머리수건이 점점이 나풀거리고 거기로는 김이 무럭무럭 나는 두엄을 가득 실은 트랙터들이 연줄 꼬리를 물고있었다.

우리는 풍년든 전야의 흥겨운 설레임소리를 듣는듯한 흐뭇한 심정으로 수리분조를 떠나 세멘트소성로로 갔다.

우르릉거리며 돌아가는 회전로의 동음과 쿵덕거리는 프레스의 음향은 우리의 기분을 고조시켰다.

회전로에서 흘러나오는 진회색의 세멘트는 콘베아를 타고 블로크와 기와를 만드는 공정으로 들어가고있었다.

《저 세멘트는 모두 고강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루에 1 만 5 천장의 벽돌과 맞먹는 5 천장의 블로크를 생산하고있습니다. 그것이면 문화주택 두세대를 지을수 있습니다. 보다싶이 저기에 일어서는 3 층짜리 주택건설 계획은 2~3 년어간에 하나의 도시로 될것입니다.》

리당비서동무의 자랑스런 말이였다.

《그런데 원료는 어디서 보장합니까?》

우리들중의 누가 물었다.

리당비서 오정근동무는 눈이 부리부리하게 생긴 청년이 다가오자 세멘트공장 책임자라고 그를 소개시킨 다음 우리를 보며 대답했다.

《처음에는 흙을 세멘트원료로 썼습니다. 하지만 농경지를 파먹는 그런 일은 우리 성미에 맞지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사장동무가 책임진 <기술혁신조>에서 2.8비날론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가져다가 저렇게 세멘트를 생산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우리 농민들에게 있어서 한줌의 흙은 금싸라크처럼 귀중합니다.》

가슴뜨거운 이야기였다. 제 살불이처럼 향토를 아끼는 이곳 농장원들의 가슴속에 깃든 애국의 념은 이 땅의 고귀한 재보로 되는것이다.

세멘트공장 한쪽에서는 청년들이 새로운 기계를 설치하고있었다.

우리가 가까이 가보니 그들은 제강소들에서나 볼수 있는 연신기를 조립하고있었다.

복스럽게 생긴 스무나문살되는 처녀가 살짝 불우물을 지으며 말했다.

《연신기를 조립하고있어요. 주택건설용철근들을 받고보면 어떤것은 필요규격보다 싼해요. 레를 들어 12 미리 환강을 연신하면 8 미리 환강을 4 배나 더 얻을수 있어요. 저 다층주택 층막판에는 8 미리 환강이 필요하거든요.》

무심히 들을수 없고 무심히 스칠수 없는 농장원들이었다.

하나를 가지고 열을 만들고 한걸음 걸어도 백 걸음앞을 내다보면서 아글타글하는 잔진 살림꾼들이 바로 이들이 아닌가.

우리의 감동은 비닐박막재생기가 있는 작업장에서 더욱 커졌다.

거기서는 은비단같은 비닐박막이 필필이 흘러나오고있었다.

세멘트공장 책임자와 3 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판정사업과 관련한 이야기를 주고받던 리당비서 오정근동무가 우리곁으로 왔다. 그는 사르락거리는 비닐박막을 한아름씩 감아올리는 처녀들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말했다.

《우리 농장원들은 올해 영농준비를 위해서 작년가을부터 지금까지 20 여톤의 파비닐을 모아들였습니다. 그것이면 20 만평방의 비닐박막을 생산하여 령상모판에 덮을수 있습니다. 이따가 농장 3 대혁명영예등록장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비결을 알게 될겁니다.》

비닐박막재생공정을 다 돌아본 우리는 들로 나갔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본 모든것들이 들로 향하고있었다. 수리분조에서 나온 은빛 비닐통구리들도 자동차에 실려 들로 나가는것이다.

좁은 길, 넓은 길, 농장마을의 모든 길들을 메우며 퇴비를 듬뿍 실은 트랙터들이 밭으로, 포전으로 간다.

우리가 리당비서 오정근동무와 같이 나래를 빙 둘러친 령상모판에 들어서자 어제저녁에 면목을 익힌 농장관리위원장 안민정동무가 그를 기다리고있었다.

그들은 언제나 이렇게 들에서 만나 들에서 사는것 같았다.

관리위원장 안민정동무는 리당비서를 보자마자 3 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판정사업이 언제 시작되는가고 묻는것이였다.

리당비서 오정근동무는 자신만만한 웃음을 지으며 먼저 우리를 맞으라고 눈짓했다.

《어이구, 작가동무들도 들로 나왔구만요. 어떻게습니까? 우리 농장이...》

《농장이 아니라 지방산업공장지대에 온것 같습니다.》

전야에 가득찬 기계의 동음에 저으기 탄복했던

우리들중의 누가 이렇게 대답하자 리당비서 오정근동무는 웃었다.

《인젠 짐작할만하겠지요? 우리가 어째서 함주벌의 한복판에 쇠물로를 세우고 세멘트며 박막재생기지를 세웠는가를 말입니다.》

《예에- 그 말씀인가요?》

《하하.》

리당비서 오정근동무의 호방한 웃음소리에 끌려 우리는 즐겁게 웃었다.

즐거운 웃음만으로는 우리의 심정을 다 표현할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농장을 돌아보니 함주벌에서 타오르는 쇠물로의 불길은 3대혁명의 불길이였습니다.》

《웁습니다. 우리 농장이 제발로 걸어나가는 농장, 자력갱생하는 농장으로 된것은 당의 방침대로 3대혁명을 힘있게 내밀었기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들중의 누군가 뜻밖의 질문을 하였다.

《주서리농장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일이였습니다니까?》

순간 리당비서 오정근동무와 관리위원장 안민정동무는 서로 얼굴을 마주 쳐다보았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딱해하는 눈치가 확연하였다.

이윽고 리당비서 오정근동무가 죄송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직 우리 농장에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는 영광을 지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을 앞당기려는 일념으로 우리 농장원들은 충성과 효성을 다하고있습니다.》

그의 어조속에는 간절한 소원과 념원이 깃들어있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반드시 위대한 수령님을 농장에 모시려는 일념으로 가슴불태우는 사람들, 그들의 앞길을 밝히는 3 대혁명의 불길은 지난밤에 하늘높이 활활 타오르던 쇠물로의 불길처럼 찬란히도 아름다운 것이였다.

하기에 이 농장의 사람들은 농민이 아니라 전야를 가꾸는 로동자들처럼 생각되는것이다.

그렇다, 사회주의농촌체제가 완성되어가는 공산주의리상촌에서 살고있는 새 농민들의 모습은 여기에도 있다.

런시

대동강물우에 띄우는 런시

오�필천

대동강 물을 받으며

백리길 달려온 대동강 물인데
물우에 비긴건 구월산이네

날바다 가로막아 웅장한 서해갑문
농민 위해 세워준 당의 고마움

이보소 해마다 오던 은파호 물줄기
연안, 배천벌에 되넘겨주고

마주오는 물결도 그 은정에 출렁
마주 나온 기쁨에 고마움도 출렁

대동강 물 온단 새 기별 왔건만
난 못들었소 구월산 온다는 소식

아, 감사에 젖는 농민의 마음
구월산아 네 먼저 알고 달려나와

억년 물걱정없이 자자손손을
풍년농사 지으며 살아가라고

대동강 물 한복판에 엎드려
큰절을 하는구나

대동강 물소리

속살거리는
다정한이의 숨결입니까
아기를 애무하는
어머니의 다독임소리입니까

구월산이 높다 한들 대동강 물줄기보다
낮다고 속삭이는 타이름입니까

양수기 타고 한단우에 또 한단
두단우에 또 한단
달빛 젖은 창문들을 열고
한밤에 조용히 숨새여드는
물소리, 대동강 물소리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님
구월산 가로질러 은파산 타고넘어
수백리 물길 불은 화살 그어주실제
새 관개망 푸른 설계도우에
물결쳐가던 연필소리입니까

그 옛날 물 없어 고향 떠난
그 녀들이 다시 찾아와
물장구치는 소리입니까

아, 은정에 목메이는 가슴에서
오르고 내리고 내리고 오르는
대동강 물은
구월산 농민들의 가슴을 적시는
사랑의 생명수입니다

대동강과 분수

하얀 비닐관 타고 올라온 물
물뿜개 타고 물줄기가 도니
해빛 안고 금실은실
무지개가 도네

무지개가 도니
강냉이포기들이 돌고
강냉이밭이 도니
내 고향 산천이 도네

무지개 타고서
나도 한바퀴 도니
나 몰래 어깨가 들썩
앞남산도 덩실 춤을 추는듯...

아, 사랑을 싣고온 대동강 물
울 때는 출렁출렁 가락가락
노래만이라던가
와서는 무지개 안고도는 춤이라네

대동강과 불

새날벌, 화산벌 다 적시고
남은 물 긴등을 다 적시고
저 언덕 뽕밭을 넘어
또 남아서 내리는 물

가는줄 알았더니
서해갑문 찾아서 가는줄 알았더니
옥계천 합수목에서
콩덕콩-수차를 돌리네

읍에서 오던 전기 돌려보내고
정미소며 종자처리장
스위치 넣던 날 님가 말했네
대동강 전기는 더 밝다고!

아, 먼 물길 타고온 대동강 물
땅만 적시나 오곡만 키우나
구월산 농민들의 가슴에
환희의 등불로 켜지네

대동강과 《서해갑문》

물이야 채령강 물이든 세성강 물이든
다들바 없다고들 합니다만
대동강 물은 빗갈도 달라
뛰노는 모양도 달라

이보소 덕우에, 산우에 출렁이는
구월산 막바지 복우저수지를
이보소 산우에, 산봉에 넘실대는
지남산 등허리 안꼭저수지를

자리잡은곳은 갑문서 몇백리 먼
산중의 호수, 저수지들인데
넘실대는 물은 대동강 물이니

물이라도 이 물은
날바다와 싸워이긴 갑문영웅들의
그 불타던 심장에서 뿜튀던

용맹한 기상이라오
뜨거운 숨결이라오

그렇다오
얼음산이 높아져 지구를 얼큰대도
가을빛만 물들일 물이라오
황포한 자연의 광란도 짚고 일어서서
풍년가만 부를 산중의 《서해갑문》이라오

그래서 새로 생긴
듣기만 해도 흥겨운
이교장의 새 민요를 들려주오

...남포에만 서해갑문 있다 말고서
신천의 《서해갑문》 찾아오랏
벽성의 《서해갑문》 찾아오랏
어디가나 호수물이 출렁인다오

진실, 그것으로 하여 외 2편

김철민

사랑하는 부모곁에 련인곁에
정을 나눈 동지들과 이웃들곁에
내 마음은 세우고싶다
무산사람들을...

러행길에서 만났던
그런 사람들처럼 잊을수는 없거니
만나자 내 여직껏 모르고 지낸것이
죄스럽게만 생각되던 그네들

쇠돌이어서
나라에 있어야 하는 쇠돌이어서
쇠돌에 꿈을 얹고 사랑을 얹고
운명까지도 다 얹고 살던가

아, 쇠돌을 위해
하루도 아닌 한생
성애가 불리고 비물이 흐르는
그 얼굴들이 나에게는 친근했노라

쇠돌을 위해
얼음이 번들거리는 운팡길에서
얼어붙는 차기관에 솜옷을 벗어댔던
그 마음들이 눈물나도록 고마웠노라

등그런 안전모아래
흰이를 드러내며

시를 쓸만큼 한일이 없다고
젊은 내앞에 머뭇거리던 사람들

품위높은 쇠돌이 나온다고
눈물조차 그렇게
이 어깨를 치던 갱장의 커다란 손을
내 평생 잊을것 같지 못해라

쇠돌이 그 무슨 사람이라고
정이 들라만
쇠돌을 안고 칭찬도 하고 욕도 하며
세상만사를 잊던 그 모습들

진정 얼마나 좋은가
내 나라에 이런 사람들 사는것이
이런 진실한 인민속에
나도 한사람이 되어 시를 쓰는것이

그 무슨 혼장이 많아서만 돋보이고
그 무슨 칭호를 지녀서만 존경이 가랴
진실!
인간들사이엔 그 이상 귀한것이 없어

내 한생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리
내 언제나 이들에게 나의 시를 바치리
아, 무산사람들
아, 귀중한 사람들...

아들이 광부라오

해저무는 운팡길에
모래를 퍼다 자갈을 퍼다
정이 퍼는 무산의 어머니들
만류하는 나를 향해
구뭇한 등어리를 톡톡치며
나직하게 말했네

-아들이 광부라오!

아들이 광부여서
쇠돌캐는 광부여서
백발우에 얹히는 돌가루도 잊었는가
치마폭이 처지는줄도 그만 잊는가

가슴 울렁이며 나는 들었네
그들이 지나가는 말처럼 외운 그 말
-아들이 광부라오!

한밤중 이고장 집집의 아래목에
기다려 따끈한 밥그릇에서도
후야근 나가는 광부들을 태운 인차
철산봉너머 사라질 때까지
불을 끄지 않는 창문들에서도
그 말은 울려오지 않느냐
-아들이 광부라오!

아슬한 철산봉
물매급한 인차길로 때없이 오르는

장갑통구리며 그 무슨 꾸레미마다에도 그 말은
있고

락광정에 쇠돌꼭꼭 쏟아지는날
감추었던 술병을 식탁우에 올려놓는
그 물문은 손길에서도 그 말은 울리나니
-아들이 광부라오!

진정 철산봉은 어떻게 낮아지고
쇠돌은 어떻게 실려가는가
가슴깊이 일깨워주는 말
참으로 많은걸 생각해 하는 말
나에게는 그 마음이 보배로웠네
나에게는 그 말이 귀중하였네
-아들이 광부라오!

나는 자주 무산의 밤거리를 걷는다

무산의 밤을 모르는 사람은
무산의 낮도 모르는 사람
무산을 알려거든
무산의 밤거리를 걸어보라

때아닌 한밤중에 불이 켜지는 창문들
한둘도 아니게 쏟아져나오는 그 불빛에
거리는 그만 밤을 잊는듯
남몰래 사랑을 속삭이던 그림자들
어느새 물새듯 사라져버리고...

즐거이 그릇 부딪치는 소리
아이들의 칭얼거리는 소리
생활의 음향이 흐르는 이때는
후야근 서두르는 때
밤에도 한참 깊은 때

이때라 별을 흔들며 달을 굴리며
광구서 울려오는 발파소리 발파소리...
문들이 열린다, 잠을 씻은 얼굴들이 나온다

하루이틀도 아닌데 안해들까진 왜 나오는가
아마도 후야근은 바래주는 멋도 있는게다

아, 어서 오라 부르는 저 철산봉마루엔
그 얼마나 장한 전경이 펼쳐지랴
층층 기름먹은 채굴계단마다
이 밤을 보자는듯 쇠돌맥은 드러나고
쇠돌실은 전조등들 구슬궤미처럼 늘어서고

온통으로 뽀뽀다
모두가 들먹인다
어둠이 생활을 가리지 못하고
고요가 삶의 음향을 채우지 못하는 밤

쇠돌은 낮에도 쇠돌이요 밤에도 쇠돌
쇠돌캐는 광부들 다름있으랴
해처럼 불타는 심장이 광부들에게 있어
밤에도 한낮처럼 들끓는 무산의 밤
아, 나는 자주 무산의 밤거리를 걷는다!

생활묘사의 풍부성과 다양성

하정웅

생활을 풍부하게 그리는것은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본성적요구이며 생활을 풍부하게 묘사하는데 사상에술적으로 훌륭한 문학작품을 창작해내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문학과 예술은 우리 인민의 다양하고 풍부한 생활을 잘 형상하여야 합니다.》

인간생활은 풍부하며 다양하다. 문학예술이 생활을 풍부하게 그려내지 않고서는 인물성격을 깊이있게 형상할수 없으며 심오한 사상적내용을 구현할수 없다. 인간생활이 끝없이 풍부하고 다양한데 그것을 반영하는 문학작품이 생활을 일면적으로 그리거나 왜소하게 형상한다면 그자체가 생활을 외곡하는것으로 된다.

현시기 문학작품들에 생활을 풍부하게 그리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인간관계를 옹게 설정하고 깊이있게 추구함으로써 생활묘사의 풍부성을 훌륭히 보장하는것이다.

생활묘사의 문제는 인간관계의 설정과 뿔수 없이 련결되어있다. 작품에서 생활은 인간관계속에서만 깊이있게 그려지고 인간관계는 생활속에서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작품에서 생활을 풍부하게 그리는데서 미학실천적으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인간관계를 옹게 설정하고 형상하는것이다.

작품에서 생활과 인간관계는 밀접히 련관되어있다. 인간관계란 사람들의 호상관계이다. 사람들의 생활은 인간관계속에서 벌어지며 발전한다. 문학작품에서 인간관계는 생활을 그려내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된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해결하는가 하는 데따라 문학작품에서 생활묘사의 질적수준과 특징이 규정된다.

널리 알려진 단편소설 《길동무들》(김병훈)에서 오명숙과 군당위원장의 호상관계는 매우 특색있게설정되었다. 작가는 주인공 명숙이와 군당위원장의 관계에서 그 어떤 대립이나 마찰을 보여 주지않았으며 오명숙의 기특한 소행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에 진실로 감동되는 군당위원장의 체험세계를 일관하게 그려내였다.

이러한 특색있는 인간관계를 통하여 작가는 천리마시대의 참다운 인간인 오명숙의 생활을 풍부

하고 깊이있게 그려내였으며 의의있는 사상적내용을 구현하였다.

작품에서 생활은 인간관계를 통하여 그려지는것만큼 특색있는 인간관계의 설정은 특색있는 생활화폭을 낳으며 생활묘사의 풍부성을 믿음직하게 담보해준다.

생활은 인간관계를 통하여 그려지는것만큼 인간관계를 다양하게 설정하고 형상하지 않고서는 생활을 풍부하게 그려낼수 없다.

인간관계의 다양성은 현실에 있는 사람들의 호상관계의 다양성에 기초하고있다.

다양한 인간관계의 설정과 해결, 이것은 현시기 우리 소설문학의 중요한 형상적특성의 하나이다.

들끓는 현실을 폭넓은 서사시적화폭으로 재현하는 장편소설들은 더 말할것도 없고 생활의 특징적인 단면들을 그려내는 단편소설과 같은 작은 형식의 작품들에서도 인간관계를 다양하게 설정하고 형상화하여야 한다.

단편소설 《인간의 수업》(리화, 《조선문학》1989, 7 호)은 생활반영이 비교적진실한 작품일뿐아니라 묘사의 풍부성과 다양성에 있어서도 잘된 작품이다.

왜 그렇게 말할수 있는가, 들끓는 우리의 현실을 가장 풍부하고 민감하게 적극적으로 반영하는데서 생활묘사의 풍부성과 다양성은 더없이 중요하기때문이다.

상급학교 추천서가 아니라 제염소배치장을 받아온 아들과 아버지간에 오가는 심리세계에 대한 생활적이며 풍부한 묘사, 늦게나마 자식교양을 소홀히 한 자신을 뉘우치는 내면세계에 대한 묘사와 인간관계에 대한 다양하고 분석적인 묘사는 생활그대로를 풍부하게 반영한것으로 하여 더욱 진실하다.

특히 아버지를 원망하며 제염소로 떠나간 아들에게 쓴 장문의 편지에 담겨진 생활들은 참으로 다양하며 꾸밈이 없는 생활적풍부성으로 하여 더없이 진실하며 독자들을 매우 기쁘게 하고있다.

그것은 마치 우리들자신에게 언젠가 우리모두가 겪었던 그 모든 생활과 그속에 깃든 생활의 참된 철리에 대하여 절절히 상기시켜주는듯싶다.

이처럼 단편소설 《인간의 수업》은 시대의 요구와 지향을 응당한 높이에서 생활묘사의 풍부성

과 다양성으로 담보하여 문학의 생명인 진실성을 형상적으로 깊이있게 보여주었다.

단편소설 《백일홍》(권정웅)은 주인공 현우혁과 그의 안해의 호상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구성되어있다. 현우혁과 금녀의 호상관계는 작품의 주제사상적내용과 작가의 사상예술적의도를 실현하는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 인간관계만으로써도 주인공의 고상한 정치사상적품모와 아름다운 내면세계를 충분히 형상화할수 있었을것이다. 그러나 작가는 주인공 현우혁과 금녀와의 호상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작품을 구성하면서도 여러가지 부차적인 인간관계를 설정하고 형상화함으로써 생활묘사의 풍부성과 사상적내용의 심오성을 보장하였다.

작품에 설정된 현우혁과 영호의 호상관계, 영호와 금녀의 호상관계는 주인공 현우혁의 생활을 폭넓고 풍부하게 그려내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형상요소들이다. 현우혁과 영호의 호상관계는 주인공 현우혁의 전형적성격을 특징짓는 조국해방전쟁시기의 그의 생활을 보여주는데서 그 무엇으로써도 대신할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수행하고있다.

현우혁과 영호의 호상관계는 단편소설에서 부차적인 자리를 차지하면서 금녀와의 관계를 통하여서는 정면으로 보여줄수 없는 현우혁의 지난날의 생활을 보여주는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있다.

만일 작품에 현우혁과 영호의 호상관계가 설정되지 않았더라면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있는 주인공의 특이한 생활을 감명깊게 그려낼수 없었을것이며 주인공의 성격형상의 심오성과 풍부성도 보장하지 못하였을것이다.

현실주제의 작품에서 주인공의 성격을 두드러

지게 그리는것이 중요한 미학적원칙으로 제기되는것처럼 인간관계설정에서도 반드시 주인공선을 특색있게 살리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 소설들에는 주인공의 성격과 생활을 보여주는 인간관계가 구성의 중심에 놓여있으나 그것들을 특색있게 보여주지 못하고있다.

구성상특성을 특색있게 보여주려면 인간관계가 구성의 중심에 놓여있으면서도 다른 인간관계들도 유기적으로, 형상적으로 실감있게 모두 거기에 복종되도록 구성을 짜야 한다.

이것은 구성의 정치성과 진실성을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게 하며 주제사상을 일관하게 깊이있게 천명하게 하는것이다.

이와 함께 긍정인물들의 연고관계를 인정적으로 깊이있게 맺어주는것이다. 인물들의 연고관계를 인정적으로 깊이있게 맺어준다는것은 인물들이 서로 떨어질수도 헤어질수도 없는 혈연적인련계를 가지고 얹혀진다는것을 말한다.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기본은 긍정인물들의 호상관계이다. 우리 소설문학은 긍정인물들의 호상관계에 의하여 작품이 구성된다.

그러므로 현실주제의 작품창작에서는 3 대혁명기수들사이의 호상관계, 3 대혁명의 기치높이 대오의 앞장서나가는 근로자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의 호상관계를 다양하고 치밀하며 설득력있게 설정하여야 하는것이다.

인간관계에서 특색있는 설정은 작품에서 첨예한 극성을 부여하며 주인공의 성격과 생활을 깊이있고 생동하게 드러낼뿐아니라 생활묘사의 풍부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데서 더없이 귀중한 밑천으로 될것이다.

가사

고향의 어머니

백의선

푸르른 하늘가에 새 집을 세우며
흰구름 안고 서니 어머니 생각나네
고향집 살구나무 울랐던 어린 시절
가슴을 조이며 나를 찾던 어머니

조국의 건설장에 나래 편 이 아들
용맹한 수리개로 위훈을 떨치네
마당가 살구나무 바라볼 때마다
이 아들 장하게 그려볼 어머니

우리 당이 불러준 대진선행군길에
심장은 커지고 청춘은 빛나네
고향집 살구나무 꽃가지아래서
당이 키운 영웅아들 맞이할 어머니

아, 나의 어머니
영웅되어 가리라 어머니 어머니

쇠찌르러기

-취재수첩을 펼쳐놓고-

림종상

지난 여름 어느날 나는 동물학연구소 조류학전문가 원창문의 초청을 받고 그의 서재에서 우연히 하루밤을 꼬박 새운적이 있었다.

그는 손을 넘긴 나의 대학동창이며 세계적명성을 떨치고 스무해전에 80고령으로 세상을 떠난 생물학박사 원홍길교수의 손자다.

서로 전공이 다르다보니 학창때에는 얼굴만 익혔었다. 그후 기자생활을 한적이 있는 나는 그를 취재길에서 만났다. 이제 와서는 서로 흥금을 털어놓는 벗으로 되었다.

내가 그의 서재에 들어섰을 때에는 초저녁이었다.

무엇인가 부지런히 쓰고있던 창운은 《조금만 참아주게.》 하며 초청해놓고도 무례하게 턱으로 쓰파를 가리켰다.

서재는 조금도 달라진것이 없었다. 두벽을 짝채운 책장, 수려한 산수화족자, 여러 종류의 새박제품-이것들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것이다.

나는 주인의 책상앞 빨간 비로도천받침대우에 홀로 날씬한 자태로 놓여있는 자그마한 쇠찌르러기 박제품에 눈길을 세웠다.

머리에 흰빛이 돌고 등과 날개, 꼬지에 검은 자색의 윤이 흐르는 도고한 쇠찌르러기.

박제품가운데서 가장 작은것이였지만 늘 봐도 주인의 각별한 우대속에 이 방에 자리잡고있는 저 쇠찌르러기...

《작가님을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이...》

그가 붓을 놓자 문이 열리면서 주부가 가시오 갈피차잔 두개를 마주앉은 앞탁에 내려놓고 조용히나간다.

《차나 한잔 들라구-》

《레절이 그럴사해!》

연한 김이 물물 피여오르는 차잔을 들며 나는 은근히 씨까숴들다.

우리가 이런 말투로 이야기를 나눌라치면 틈없는 옛정이 되살아움을 서로 감득하군한다.

《내 급히 도움받을 일이 생겼어.》

《이건 아닌밤중에 무슨 흥두깡가? 차네 혹 나

의 탐방심리를 악용할셈인가.》

어이가 없었다.

《아니, 아니 그런게 아니라 편질세. 40년만에 서울에 있는 막내삼촌에게 보낼거네.》

그는 장문의 편지를 내밀었다.

나는 심한 의혹에 사로잡혔다.

불일길 없는 서울에 편지를 쓰다니?!

《분계선장벽을 자네 편지로 한번 뚫러볼 셈인가?》

《그럴수야 없겠지. 현대 보낼길이 트일것 같기도 해서, 나야 어디 편지라는걸 써본적이 있나? 서툰 글을 작가님이 한번 봐달라는걸세.》

나는 그의 진정에 피할 길도 없었거니와 서울에 띄울 편지라기에 부쩍 마음이 동했다. 탐방심리가 되살아났다고 할가.

창운의 편지는 안부를 묻고 이곳 소식을 알리자 앞뒤 맥락도 닿지 않는 무슨 사진이야기로 뻘어져달아났다.

삼촌!

그동안 생소하리만큼 변모된 모습을 말 못하는 사진으로 상면한 오늘 저는 눈물이 헤쳐져 글을 쓸수가 없군요...

《이 삼촌의 사진이라는건 뭔가?》

나는 성급히 물었다.

《그런 일이 있었지. 며칠전 일본조류학자 요시하라라는 사람이 가져다주더군. 그와 함께 찍은 삼촌의 사진일세.》

창운은 요시하라와 면담한적이 있었다. 그는 《세계조류협회 아시아지역본부》인 야마나시조류연구소에 적을 둔 사람이다.

연구소의 창립자 야마나시박사에 대하여 창운은 이미전부터 지상을 통하여 알고있었다. 뿐아니라 스무해전 그는 할아버지를 선배로 숭배하면서 원홍길교수생존시 따오기라는 새의 보호와 관련한 질문서한까지 보내왔던 사람이다.

친절하게도 교수는 회답서신과 함께 수많은 연구서적들도 보내주었다. 그가운데에는 교수가 필

생을 바쳐 서술한 여러권으로 된 《조선조류지》도 들어있었다...

면담이 끝날무렵 요시하라는 교수의 성의가 고마와 방문기념으로 사진을 가져왔다는것이다.

창운은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늙은 막내삼촌의 옛모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이런 연고였군...)

《선생의 삼촌 원병후박사입니다.》

창운은 여전히 무표정한 눈길로 삼촌을 내려다보았다. 묘연해진 기억이 되살아올랐던것이다.

그때 창운은 10대소년이었다. 그러니 기억조차 희미해진 삼촌이다.

(어차피 늙은이로 번했단말이지?)

그의 눈앞에는 어느덧 전쟁전 평화롭던 그 시절 원산농업대학 학생이었던 삼촌이 방학때 집에와서 할아버지와 나란히 자전거를 타고 백여리밖 조류채집터로 가던 모습이 안겨왔다.

(그때 할머니가 도시락을 자전거에 매달아주셨었지...)

《원병후박사께서도 이젠 회갑을 넘겼습니다.》

작잡해진 창운의 심정을 건드리기 조심스러운듯 요시하라는 조용히 귀땀했다.

했으나 창운은 대리석과도 같은 무표정한 자태를 종내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그 요시하라가 삼촌에게 편지를 쓰라더군. 전해주겠다는걸세. 아마 판에는 사례한다는거겠지. 동료들의 권고도 있고 또 나도 할 소리가 있어서... 어차피 남의 손을 빌어 편지를 붙이기는 하겠지만...》

그의 편지는 사진이야기가 끝나자 이번에는 왕청같은 회고담으로 이어졌다.

삼촌!

열살때 헤어져 원을 넘긴 이 조카를 상상이나 하실는지? 아니 저보다도 할아버님, 할머니의 얼굴조차도 기억에서 퍼그나 희미해졌을것입니다.

허나 혈육의 뉴대만은 세상만물이 다 변해도 끊어질수 없는것이기에 아마 삼촌도 작고하신 부모님들과 이곳 조카들을 늘 잊지 않고계시리라 믿습니다.

40여년이 지난 오늘에야 비로소 삼촌에게 편지

를 쓰게 된 저는 안부를 묻기 급하게 할아버님, 삼촌과 고모 그리고 저에 이르는 우리 집안 3대가 혈육뿐만이 아닌 조류학이라는 또하나의 강한 뉴대로 이어져있다는것을 먼저 상기해보았습니다.

삼촌도 기억하고계시겠지만 북과 남으로 갈라져있는 우리 가문의 뉴대는 이제 새삼스럽게 돌이켜볼 때 혈육못지 않은 자그마한 새 쇠찌르러기와도 련결돼있었지요.

그것은 할아버님으로부터 시작된 어쩔수 없는 인연이었습니다. 혹 천명인지 아니면 우연인지 알수 없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미래의 조류학권위자 원홍길의 운명은 1934년초여름, 어느날 아침에 이미 결정된 셈이었다.

새와 곤충 채집에 천성적취미를 가지고있던 그는 함흥의 어느 사립학교 박물관교원으로부터 조류학계에 첫 발을 내디디었다.

후에 교장이 된 그는 조선바지저고리바람으로 운동장교단우에서 엄한 훈시를 하고있었다. 이때 머리로 먹이를 입에 문 새 한마리가 날아지나갔다.

(아니 저 새가?!)

훈시를 하고있다는것조차 잊어버린 그의 눈길은 새가 날아간 방향을 따르고있었다. 그자리에서 뒤따를수 없다는것을 뒤늦게 판단한 그는 돌연히 교단에서 뛰어내렸다. 맨 앞줄에 서있는 머리를 따붙인 딸에게 달려갔던것이다.

《애야, 어서 빨리 저 새가 어디에 둥지를 틀었는지 따라가봐!》

노한듯한 큰소리가 울렸다.

교원, 학생 모두 아연해했다. 언제나 리성을 잃지 않던 원홍길이었던것이다.

다시 교단에 오른 그는 서둘러 훈시를 마쳤다. 그리고 학생들이 줄지어 서있는 대렬속을 마구달리며 딸을 따랐다.

새는 왜놈 도지사의 《관사》앞 숲속 한 구새먹은 나무구멍에서 먹이를 찾아 다시 날아나왔다. 분명둥지였다. 새둥지에는 너댓마리의 새끼들이 먹이를 기다리며 지저귀고있었다.

그는 환성을 질렀다.

(그러니 저 새가 여기서 여름을 날것이 분명하지 않을까?!)

그는 딸에게 매일 몇차례씩 이곳에 와서 새의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할것을 요구했다. 딸은 비가오나 바람이 부나 하루에도 몇번씩 나타나 자그마한 수첩에 관찰자료를 적었다. 《관사》를 순찰하던 순사들의 쫓기움을 받기도 했으나...

허나 나중에는 《새를 관찰하는 아버지와 딸》이라는 신문기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그 새는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서식한적이 없고 자바군도꼭에서 겨울을 나고 봄이 되면 조선반도를 거쳐 만주를 지나 씨비리에서 번식하는 철새로서 《북방쇠찌르러기》 또는 《씨비리쇠찌르러기》로 알려진 해충을 구제하는 매우 리로운 조류다. 이것은 일본학자들이 내린 결론이었다.

그런 여름철새 《북방쇠찌르러기》가 우리 나라 동해안지방에서 서식하고 번식을 하다니?!

삼촌!

그때 삼촌은 열살도 못됐지만 할아버님과 고모를 따라다녔다지요 ?

삼촌이 조류계에 발을 들여놓게 된것도 그 쇠찌르러기때문이라더군요.

후날 할머님은 커가는 우리들에게 늘 념불의우듯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엄하던 할아버님도 어린 막내가 자기의 뒤를 이어 새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삼촌은 늘 할아버님의 특별한 보호와 비호 속에서 우리 아버지를 비롯한 형님 세분들의 질투의 대상이었다고 하시더군요.

할머님의 애절한 회고담이 아직도 귀에 삼삼합니다.

이렇게 쇠찌르러기는 조류학을 탐구하는 우리 가문의 앞길을 시사해주고 운명지어준 하나의 예언자처럼 군림한셈이었지요...

온 집안이 이 새로 하여 그처럼 행복과 영광에 휩싸였던 1947년을 기억하겠지요?

아마 그해는 영원한 기억으로 남아 아직도 삼촌을 즐겁게도 해줄것이고 또 괴롭게도 해줄것입니다...

원홍길에게 있어서 1947년은 과학활동에서 전환의 해였다.

한해전까지만 하여도 덕천, 안주 일대의 산골 농업학교 교장에 지나지 않던 그가 종합대학생물

학교원으로 초대되었던것이다.

게다가 해방전부터 관찰연구해오던 《북방쇠찌르러기》가 씨비리에서 서식하고 번식하는게 아니라 북반부지역에서 여름철을 보낸다는것을 확인하였다.

고심어린 과학적탐구가 꽃을 피우게 되었으니 이해 여름 그는 해방후 처음으로 평양에서 열린 《인민박람회》에 수십종의 박제품을 출품하면서 《북방쇠찌르러기》를 《북조선쇠찌르러기》라고 고쳐 명명하고 논문을 발표하여 국제조류계의 공인을 받았던것이다.

복은 쌓으로 오지 않는다지만 그에게 있어서 47년은 또한 가정에서도 경사가 덮친 행복한 해였다.

수의축산전문가인 만아들이 자격을 받은 방역수의로, 셋째아들이 평양의학대학 학생으로, 넷째 즉 막내인 병후가 원산농업대학에 입학하였던것이다.

게다가 태평양전쟁의 희생물로 돌아오지 못한 둘째아들인 창운이 아버지와 남편을 따라 해방전 서울에서 빈한한 살림에 쪼들리던 딸이 병사한것으로 해서 생겼던 마음의 상처도 세월이 덧쌓이면서 점차 아물어갔던것이다.

그러니 이해 원홍길은 최상의 행복속에, 국제적으로 공인된 높은 학적명예의 궁지속에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고있었다...

삼촌!

삼촌은 아마 《북조선쇠찌르러기》가 국제조류계의 공인을 받던 날 근엄하기로 소문이 자자하여 지어 괴벽한 사람으로까지 불리우던 할아버님의 얼굴이 이상하리만큼 실룩거리던것을 아직도 기억하고있을것입니다.

그때 인민학교 학생에 불과했던 저의 기억에도 생생하게 남아있는데 하물며 삼촌이 어떻게 잊었겠어요.

할아버님은 분명 그때 속으로 흐느끼고계셨습니다. 다 자란 자식들과 철부지 손자들앞에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그처럼 얼굴을 실룩거리면서도 참으려고 애쓰시던 할아버님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던 할아버님이 51년초 종합대학이 깊은 산속에 자리잡았을 때 하루아침에 실망한 자태로

처참하게 돌변하였습니다. 그때를 저는 지금도 잊을수 없습니다.

란리통에 행방을 모르던 큰아버지와 셋째 막내 삼촌이 모두 함께 남으로 나갔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들었으니까요. 지어 큰아버지는 자기의 자식 넷과 큰어머니까지 버리고말입니다.

전쟁으로 궁핍한 때 옆친데 덮친 격으로 조부 모님께서는 큰집과 저의 형제까지 모두 올망졸망한 손자 여덟명을 맡아 키우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할아버님은 더욱 과묵해졌고 어린 저의 눈에도 알릴만큼 마음의 고통을 참느라 모지름을 쓰시더군요. 걸음걸이까지 휘청거렸으니까요...

아마 그 시절 10년은 더 늙으셨을거예요.

그때 할아버님은 밤마다 홀로 어디엔가 나갔다가 새벽에 오시곤하였는데 하루는 제가 몰래 뒤따랐습니다. 글썽 밤새워 박제품을 만드는게 아니겠습니까.

자식모두를 잃어버린 괴로움을 묵묵히 이겨내는 길이 할아버님에게는 그 일밖에 더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할아버님은 전쟁피해로 모두 류실된 박제품, 동물표본 등 180여종의 교편물을 만들어놓고야말았습니다.

산발인들 얼마나 뒹으며 남모르게 지새운 밤인들 몇밤이나 되는지 그것은 아무도 모를것입니다.

그러던 할아버님께서는 전쟁이 끝나고 온 나라가 환희로 들끓던 날 돌연히 자리에 눕고말았습니다.

비록 원자탄바람에 겁을 먹고 따라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지성인인것만큼 이런 날에는 새들이 둥지로 찾아들듯 문전에 나타날수 있으리라던 한오리의 기대마저 포기해야 했으니까요. 마지막 지령점을 잃자 할아버님은 끝내 쓰러졌던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삼촌을 대를 이을 기둥으로 믿었던 그 한가지 리유로 해서 효자라고 자부하던 할아버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막내삼촌마저 아버지의 슬하에서 떠나갔으니 말입니다.

철부지였던 우리들도 그때 할아버님이 잘못되는것 같아 숨도 크게 못쉬고 눈치만 살폈습니다.

하나 며칠후 할아버님은 돌연 아무 일도 없었다는듯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습니다.

그 절망의 기로에서 할아버님을 다시 일으켜세우신분이 어느분이신지 삼촌은 아마 꿈에도 짐작하지 못할것입니다. 곁에서 맴돌던 우리들조차 후에 알게 되었으니까요.

할아버님을 일으켜세우신분은 바로 다름아닌 위대한신 **김일성** 장군님이시였습니다.

장군님께서 할아버님이 것처럼 가슴아픈 사연을 안고도 전시에 쉽없이 산발을 타고 대학의 동물표본을 복구해놓은 애국자인데 승리한 이때 이렇게 맥을 놓고있어서야 되겠는가고, 그러면 자식들도 다시 만날수 없다고 하시면서 몇차례에 걸쳐 친히 쓰시던 사냥총과 사냥개를 보내주시고 예순을 넘긴 학자가 아직도 자전거를 타고 동물채집터로 다닌다는것이 말이 되느냐고 하시며 그 어려운 정전직후 승용차까지 보내주셨습니다.

할아버님은 흐느껴 우셨습니다. 호랑이 갈다던 할아버님이 우실수 있다고 상상이나 해본적이 있습니까?

하나 할아버님은 굵은 눈물로 여윈 몸을 적시고야말았습니다.

바로 이런 사랑,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부모와 아들들마저 버리고 저만 살겠다고 달아난 자식들로 해서 영영 일어서지 못할번한 할아버님은 다시 솟구칠수 있었고 청춘의 활력으로 방방곡곡을 다 다니시며 방대한 《조선조류지》를 비롯한 무려 80권의 저작을 발표하여 세계적인 조류학자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흰두루미떼를 따라 북방으로부터 간석지진펄에 빠지며 조사연구를 떠났던 어느해 마가울이었습니다.

그날은 려성강하구에 다달으기 전날이었나봅니다.

해떨어진 갈대숲은 마가울 찬바람을 이겨내지 못하고 몹시 설레었습니다.

울씨년스럽고 썰렁하던 밤이었지요.

하지만 진펄가운데 못박힌듯 서계시던 할아버님은 마을로 되돌아설념을 안하시더군요.

한동안 남쪽의 먼 하늘을 무표정한 눈길로 바라보셨습니다. 그쪽 하늘에서는 늦비가 내리려는지 검은 구름으로 덮여있었습니다.

비록 성글기는 했어도 그 년세에 흰오리 하나

없던 머리칼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건강이 넘려되어 저는 몇번이나 되돌아서자고 권고했으나 그때마다 침묵으로 물리칠뿐이었습니다.

갈대숲에 차디찬 비꽃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님-》

또다시 애원하며 불렀습니다.

그제야 제가 곁에 있었다는것을 알아차리기나 한듯 《오냐. 창운이로구나-》 하시더니 별로 자별한 눈길로 주시하는게 아닙니다. 전 그때 처음으로 할아버님의 그런 인자한 눈을 보았습니다.

꺼칠해진 볼과 입술, 진탕이 게말린 바지자락을 이윽도록 훑어보시던 할아버님은 후-하고 깊은 숨을 내쉬시었습니다. 꽃내기 조류학자가 못내 미덥지 못하셨나봅니다. 그러다가 꺼칠어진 제손을 잡으시며 이번에는 저의 눈을 찬찬히 여겨보시더군요.

《네 분명 원홍길의 손자가 틀림없으렸다?》

할아버님의 물음에 저는 그만 겁이 더러 났습니다.

(망녕하시는데 아닐까? 아니면 이 갈밭에서 혹시 유언이라도?!)

불길한 예감이 머리를 호되게 때렸습니다. 가슴이 막 떨리더군요. 그때 벌써 80을 턱밑에 앞둔 고령이었으니 저의 예감도 무리한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대답이 없느냐?》

독촉을 받고서야 저는 서둘러 대답을 올렸습니다.

《이젠 네가 우리 원씨 조류가문의 기둥이로구나. 손때묻은 도끼에 발등을 찍히운다더니 허참, 넌 그런 자식이 되진 않겠지?》

실성하지 않으셨다는것을 깨닫자 저는 그때까지도 할아버님 심중에 삼촌을 얹어놓고 이처럼 심한 상실감에 모대기신다는것을 통절히 깨달았습니다. 삼촌의 상실이 얼마나 마음속에 웅이져 있었으면 저러랴?

짐작조차 해본적이 없는 저는 삼촌대신 용서를 빌고 명세를 다지려고 감탕우에 뚫어앉으려고 했습니다.

《오냐 됐다. 너라도 내 마음의 기둥으로 돼다오. 꺾이우지 말고!》

저는 그만 눈물을 짹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삼촌대신 저를 그자리에 세우시면서도 영원히 지을 길 없는 삼촌에 대한 정을 떼지 않고계신다는 엄연한 현실앞에 그만 가슴이 저러움을 이겨낼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언하기는 좀 거북하나 삼촌은 비록 친자식이기는 하지만 우리 할아버님의 진속을 다는 알고있지 못할것입니다.

《손가락 열을 다 깨물어보아라.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느니라.》

이 찰나에 저는 할머니이 늘 곁에 없는 삼촌들을 놓고 혼자말처럼 외우시곤하던 그 평범하고도 너무나 명백한 말씀의 참뜻을 비로소 깨달은듯싶었습니다.

저는 마음다졌습니다. 백번 죽는다 하더라도 삼촌들처럼 되지 않겠노라고.

《아야, 이젠 돌아가자. 인차 겨울이 닥쳐올텐데 그 애들인들 오죽이나 생각이 번거롭겠니...》

삼촌!

삼촌은 할아버님의 마음속에 아직도 자식으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자신을 단 한번만이라도 자각해본적이 있습니까? 제가 대학을 나오고 할아버님의 뒤를 이어간다고 하여 그래 삼촌을 대신해 줄수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 대답해보십시오!

저의 이 무례한 질문에 삼촌은 대답할수가 없을것입니다. 아니 할아버님의 깊은 마음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을 뜨신 할아버님령전에 자기의 저술을 올리고싶다 하며 통곡을 터뜨렸다는 삼촌의 그 가슴저린 심정도 결코 대답으로는 되지 못할것입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버려도 부모야 어떻게 제 살점과도 같은 아이들을 버릴수 있을까...》

깊은 밤, 잠 못이루시던 조부모님들이 서로 상처입은 가슴을 달래며 주고받으시던 그 하많은 밤과 새벽을 저는 잊을수가 없습니다...

삼촌!

편지가 너무 많은 걸가지를 쳤군요. 하긴 40여년의 이야기를 전하자니 아마 두서가 없게 됐나 봅니다.

삼촌, 우리는 다음날 저녁 흰두루미뎀을 따라례성강하구에 다달았습니다.

삼촌이 언제인가 《국제조류리사회통보》에 발

표한, 남조선에서는 보기 드물어졌다는 흰두루미떼의 마지막 서식터를 찾아서말입니다.

《통보》에서 삼촌은 흰두루미를 놓고 이렇게 썼지요?

《조선전쟁전까지만 하여도 전조선에 걸쳐 겨울에 이주하여 사는 매우 흔한 새였다.

그러나 지금은 경작된 전야에서 월동하는 몇몇 쌍에 불과할 정도로까지 그 수가 줄어들었다. 내가 어렸을 때 평안남도 강서군에서 200~300마리로 된 이 새의 큰 무리를 본바있으나 지금 우리는 1950년이후 동지이행조류로서의 그 동태에 관한 자료도 가지고있지 못하다.》

할아버님은 삼촌의 글을 보신 뒤에 《어쩌면 이럴수가 있는가》고 하시며 그 원인을 직접 알아보기 위해 이번 조사의 길에 오르셨습니다. 한탄만하고있는 삼촌의 그 연구태도가 못내 마음을 상하게 하셨던것입니다. 삼촌이 주저앉았으니 고향인 할아버님이 몸소 그 흰두루미의 보호와 증식을 위한 길에 어떻게 나서지 않을수 있었겠습니까.

아, 만약 이 연구조사대의 대오속에 저와 같은 꽃내기가 아니라 삼촌이 동행하였다더라면 할아버님은 얼마나 마음이 가벼웠겠습니까.

그러니 저를 데리고 조사의 길에 오르신 할아버님은 승승 빠진 이발처럼 대를 건느게 된 아픔을 어떻게 묵상였겠습니까? ...

다음날 저녁때 조사단일행은 분계선이 가로막힌 연백벌 레성강하구에 다달았습니다...

원홍길교수일행앞에는 드디어 레성강하구 무연한 갈밭 감탕속에 서식하고있는 흰두루미떼가 나타났다.

교수는 조류학자 특유의 사색깊은 안색으로 두루미떼를 끈덕지게 관찰하며 서서히 접근하고있었다.

갈밭이 끝나고 강기슭에 거의 다달았을 때 교수는 문득 멈춰섰다.

왜서인지 알수 없으나 교수의 눈길은 어느덧 강건너 한지맥으로 잇닿아있는 저쪽 기슭에 몇마리밖에 보이지 않는 흰두루미에 가있었다.

교수의 얼굴에는 근심의 빛이 어리었다.

《저 새들이 살아가기 불편한 모양이군.》

그는 중얼거렸다.

꽤 오랜 시간 관찰하던 교수는 돌연히 옷깃을 세우며 달려갈 태세를 취했다.

《알아봐야겠어 . 알아봐야 하구말구!》

교수는 살얼음이 진 갈밭을 버나 강기슭을 향해 허리를 꼴꼴이 펴고 당당하게 걸어나갔다.

《할아버님, 더는 가실수 없습니다.》

창운은 성급히 달려가 교수의 팔을 잡았다. 가누지 못한 로인의 장대한 체구가 창운에게 쏠리었다.

《이건 무슨 버릇없는짓이냐! 흰두루미가 왜 저쪽에서는 저렇게 적은지 원인을 밝혀야 할게 아니냐, 나라!》

노여움에 불타는 교수의 눈길과 애원하는 손자의 눈길이 부딪쳤다.

《분계선장벽이 가로막혀서...》

《뭘 분계선? 그런건 몰라! 알고싶지도 않고.》

교수는 손자를 뿌리치려고 하다가 그만 그자리에 말뚝처럼 서버렸다. 그도 그제야 가로질러간 철조망을 보았던것이다. 그는 절망에 빠져 긴 한숨을 내쉬었다.

《제 나라, 제 땅을 밟고 제고장에서 살고있는 새를 보러 가자고 하는데 분계선장벽이 무엇이기 에 내 앞길을 막는단말이냐!》

가슴을 어어내는듯한 비분이 그 어떤 악조건앞에서도 꺾이우지 않고 한평생 새를 따라다니던 교수를 그만 절망에 빠뜨려놓았던것이다.

창운은 분렬의 비극을 통절히 절감하며 몸부림치는 할아버지를 뉘엿은 사람마냥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아, 비통쿠나. 국경없이 나드는 새가 나를 부르고있는데 조류학자인 내가...미국놈들이 남의 나라에 와서 허리를 동강내고 장벽을 쌓으니 제 나라의 조류조차 연구할수 없지 않느냐! 저 장벽을 허물어버려야 진정한 과학도 탐구할게 아니냐. 응, 창운아, 미국놈이 원쑤로다, 미국놈이!》

교수의 통탄하는 목소리는 치솟는 분노를 참을 길 없어 벌써 심히 갈려있었다.

이때 얼기설기 엮어진 철조망 저 너머에서 뒤서너마리의 흰두루미가 깃을 펴고 강을 유유히 건너날아왔다.

비감과 분노에 젖어있던 교수의 눈길은 어느덧 서서히 날아와 이쪽 무리에 내려앉은 흰두루미를 점도록 바라보았다.

《지각없는 새들도 떼를 찾아 넘어오는데...》

교수는 탄식하였다.

분명 조류학자로서 이 계절에 흰두루미를 연구하기 위하여 분계선너머에 나와 이쪽의 흰두루미 떼를 관찰하리라 믿고있던 막내가 종시 보이지 않았던탓이리라.

해떨어지자 어둠이 내려앉았다.

교수는 멀리 남쪽땅을 바라보며 눈길을 힘없이 떨구었다.

갈대숲을 터벅터벅 헤치며 돌아서는 교수의 걸음걸이도 무척 휘청거렸다.

그 밤만은 갈대숲도 무심히 넘길수 없었던지 비바람을 맞아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삼촌

그런일이 있는 다음 할아버님의 기력은 죽지부러진 날개처럼 팍 떨어졌습니다.

아마 그때 할아버님은 분명 속으로 삼촌을 애타게 부르고있었을것입니다. 바로 다름아닌 막내 삼촌을 말입니다.

그럭저럭 몇달이 지나갔습니다.

어느날 할아버지는 삼촌이 430종 조류를 현시 조사하여 쓴《남조선의 조류》라는 책을 받아볼 기회가 차례졌습니다.

물론 3국에 있는 조류학자가 보내온것입니다. 그 외국인은 저자와 할아버지가 부자간이라는것도 알지 못하는 학자였습니다.

책을 받아진 할아버님의 안면에는 알릴듯말듯 기쁨이 물결치고있었습니다.

어쨌든 자식이 쓴 책을 받았으니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책에는 남쪽 어디에선가 삼촌이 처음으로 발견했다고 하는 까만 비둘기가 소개돼있었습니다.

그 대목을 읽으신 할아버님의 얼굴은 대번에 시커멓게 흐려졌습니다. 부르친 투박한 주먹이 무릎우에서 부들부들 떨고있더군요.

《이럴수가 있나. 불효막급한놈!》

억이 막혀서인지 할아버님은 좀체로 자신을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결에 있던 할머니마저 숨을 죽인채 괴롭게 방바닥만 내려다보고있었으니깐요.

욱하면 범처럼 무서운 할아버지 성미를 한생울

함께 한 할머니이 왜 모르겠습니까.

거친 숨소리는 좀체로 고르와지지 않았으나 퍼그나 시간이 지나서야 레성강가에서 돌아온다음 자주 듣게 되는 한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한숨은 내심 무엇인가 개탄할 때 듣게 된다는 것을 알아차린 할머니이 무릎걸음으로 다가가더군요.

《령감, 무슨 일이 있었소?》

《창운이를 데리고 오우!》

할아버님은 옆에 있던 저도 가려보지 못하고 찾는것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이놈은 도적놈이다! 그런놈이 무슨 조류학자란말이냐!》

모두 어안이 병병해졌습니다. 저 역시 삼촌의 책을 읽었으니깐요.

《령감 망녕했소? 아무리 그런 자식이기로서니 어떻게 그런 말씀까지...》

할머니는 눈굽을 짙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결만 낳은 자식을 놓고 로친이 무얼 안다고 그래! 글썄 이제는 이놈이 제 애비가 젊었을 때 처음으로 어느 섬에서 발견한 까만비둘기를 제가 발견한것으로 이 책에 썼단말이요!》

창운아, 네 이 글을 읽어라. 똑똑히 알아듣고 네 삼촌이 어떤놈인지 가늠해보라구 말이다.》

저는 어쩔수 없이 까만비둘기의 사진을 가리켜보인 다음 글을 읽었습니다.

《분명 들었겠지? 이런놈이 어떻게 학자란말이요. 제 애비의 성과까지 쉽게 제것으로 만드는 후레자식인데.》

할아버님은 분명 격분에 차있었습니다.

《그 애가 몰라서 그랬겠지. 아무렴 애비의것까지 도적질할 애요?》

《모르고 한짓이라도 죄는 같애. 학자라면 우선 량심이 있어야 해. 제가 이런 책을 쓰려면 먼저 나온 글들을 모조리 읽어야 할게 아닌가. 그제 학자의 초보적인 태도란말이다. 창운아.》

할아버님의 질책에 저는 정신이 펄쩍 들었습니다. 삼촌의 연구태도를 놓고 저에게 경종을 울려 조류학의 기동감으로 키우시려는 웅심깊은 마음을 받아안았으니 말입니다.

아무 대답도 울리지 못하고있는데 할아버님께서는 또다시 깊은 한숨을 내쉬시었습니다.

《하긴 제 자식하나 바로 키우지 못한 내 잘못도 크지. 하지만 네 삼촌이 이런 엉뚱한짓을 저지른것은 넓게 생각해보면 서로 오가지도 못하고 편지조차 띄울 길이 없으니 어쩔수 없는 점도 있을게다. 이것이 하나의 큰 비극이 아니냐! 분단의 비극이 순수 조류를 연구하는 우리 집안에까지 이런고통을 들썩우다니...》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족 그놈은 후창일대에서 메닭이 새로 발견되었다는것도 모르고 조류학을 전공한다고 할게 아니냐?》

낮도 코도 모르는 다른 나라 학자들과는 서로 오가지도 하고 학술교류도 하는데 무수한 철새들이 날아드는 교두보로 공인돼있는 우리 나라에서만 이 북과 남이 서로 남처럼 담을 쌓고 지내니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다. 말 못하는 새들은 분계선을 자유롭게 넘나드는데 리성을 가졌다는 사람들은 서로 부자간에도 소식조차 전할길 없으니 이런 강요된 고통을 어찌 앉아서 참아낼수 있을고!》라고 하시며 할아버님은 갈라진 혈육과 강역을 두고 오래동안 쓸쓸한 감정에서 헤어나지 못하시더군요...

《작가선생, 옛적에는 편지를 <안서>라고도 했는지?》

창운은 나를 쉬우려고 탄전을 피웠다.

나는 그의 생각이 고마와 다 식은 오갈피차를 한모금 마셨다. 그래도 달아오른 가슴은 식지 않았다.

《그런 옛말이 있었지. 그림던 사람의 소식을 기러기가 전해주었다고 해서 기러기 안자, 글서자를 써서 <안서>라고 해왔나보다. 그런데 왜 갑자기 안서 이야기는?》

나는 조심스럽게 되물었다. 편지를 읽으면 읽을수록 탐방가다운 개인적취미는 어느새 뒤전으로 밀려나고 나 자신 창운이와 그의 친지들이 겪고있는 괴로움을 피부로 느꼈기때문이었다.

이 땅에 리산자가 무려 천만이나 된다니 한집안의 비극만이 아닌 천만이 당하고있는 고통, 아니, 온 겨레가 반세기가 다 돼오도록 분열된 쓰라림을 더이상 감수해서는 안된다는 공통된 감정에서 벗어날수가 없었기때문이었다.

불현듯 나의 눈앞에는 지난 7월초 립수경을 맞자 온 평양시가가 부글부글 끓던 모습이 떠올랐

다. 21살의 나 어린 수경을 혈육으로 맞아 잠못들던 평양, 그가 탄 자동차가 드넓은 대동로 한복판에서 펼쳐나온 사람들의 물결에 파묻혀 오도가도 못하던 광경, 손을 잡을길 없던 아파트의 너인들이 화분에 소중히 키워온 진귀한 생활을 송두리채 뽑아 자동차우로 꽃보라처럼 내려뿌리며 눈물을 감추지못하던 모습-이것이야말로 끊어진 혈맥을 다시잇자는 온 겨레의 소원이 활화산처럼 터진 광경이 아니었던가! ...

《역시 우리 집안은 새와 숙명적으로 얽혀져있는가봐.》

창운이 상념의 세계를 헤매고있는 나를 돌려세웠다.

《우리 집에 한마리의 새가 안서를 물고 날아왔으니 말이네. 그 새 역시 쇠찌르러기였지. 저기저 박제품과 같은...》

《할아버님 생존시에 세상을 한번 들었다놓은바 있는 그 극적인 사건말인가?》

20여년전 나는 어느 신문에서 바로 지금 펼쳐놓고있는 취재수첩에 써넣었던 《새들은 분계선을 넘나들건만...》이라는 기사를 상기하였다.

《새가 편지를 물어왔다면 어쩐지 동화같기도 하고 민화같기도 하지만 그거야 어쩔수 없는 현실이었지...》

앞에서부터 읽어오던 편지의 여운인지, 아니면 창운의 감회깊은 회고담 덕분인지 나의 생각은 벌써 20년이 훨씬 지난 그해 초여름에 가있었다...

대학을 졸업한 창운이가 조류연구실 연구사로 있는지 7년째 되는 해였다.

그날 아침 그는 몇명의 연구조수들과 함께 모란봉에 올랐다. 수없이 걸어놓은 인공새둥지에 날아든 새들을 조사관찰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뜻밖에도 어느 새둥지에서 발목에 알루미늄 표식가락지를 낀 한마리의 《북조선쇠찌르러기》를 잡았다.

(역시 운명적인 새야!)

이상하리만큼 친밀해진 새가 아닌가.

표식가락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있었다.

JAPAN C 7655

유심히 살펴보면 그의 생각은 몹시 번거로웠

다.

(이 새를 일본 농림성에서 날려보냈단말이지?)

순간 그는 왜 그런지 할아버지가 오랜 세월 심혈을 기울여 쌓아놓은 과학의 공든 탑이 대번에 와르르 무너져내리는 듯한 심한 상실감에서 벗어날수가 없었던것이다.

(아직까지 없다면 일본에서 쇠찌르러기가 새로 발견됐단말인가? 하다면 《북조선쇠찌르러기》란 명명은?)

그는 할아버지의 귀중한 과학적업적에 속하는 이 새의 이름이 바뀌어야 한다는 엄청난 현실앞에 어쩔바를 몰랐다.

어깨가 축 처진 그는 생물학연구소 소장인 할아버지앞에 표식가락지를 내놓았다.

《응, 이 새에 이런 가락지가 달렸단말이지. 이거 참 기쁜 일이로군.》

가락지를 유심히 살펴보던 교수는 매우 범상하게 그리고 태연하게 말했다. 아니 오히려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것 같았다.

새로 알게 된 사실앞에 자기의 학적명예보다도 학자적량심을 앞세웠던것이다.

교수는 서슴없이 야마나시로부터 받았던 파오기에 대한 회답서한과 함께 조류계의 국제적공약에 따라 표식가락지를 끼워놓은 일본조류연구소에 그 새를 모란봉에서 잡았다는것을 통보해주었다.

하지만 회신을 기다리는 창운의 심정은 의연히 복잡했다. 할아버지의 학적권위를 제 손으로 허물어뜨리는 결과가 빚어질까 두려웠던것이다.

그는 초조한 나날을 보내고있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끄덕도 하지 않고 종전대로 정상적인 연구사업에 몰두하고있다.

(타는 속을 내보이지 않으려고 저러시겠지...)

이제와서는 면바로 바라보기조차 송구스러웠다.

드디어 가슴을 조이던 시각은 닥쳐오고야말았다. 통신이 날아왔던것이다.

《애, 네가 읽어봐라.》

창운의 손은 심히 떨리었다.

(예측대로 된다면? 아, 그때 그때)

판결을 기다리는 죄수마냥 안절부절 못하는 그를 피땀 흘려본 원교수는 팽담한 어조로 《어서 읽으라는데...》 하고 독촉한다.

창운은 떠듬떠듬 읽기 시작했다. 입안이 짹짹 해져 발음마저 제대로 안되었다.

《일본 농림성의 이름이 새겨진 가락지 <C7655>는 분명 일본제 가락지이기는 하지만 일본에서는 북조선쇠찌르러기를 날려보낸적이 없다.》

창운은 놀라움에 사로잡혔다. 다음 순간 내려가지 않던 가슴이 확 풀리는듯한 만족감을 맛본다. 만약 그자리에 할아버지만 없었더라면 소리쳐 만세라도 불렀을것이다.

하지만 교수는 웅당하다는듯 한점의 안면변화조차 보이지 않았다.

(학적신념이 저렇듯 암반과도 같았던말인가!)

그는 할아버지를 존경어린 눈길로 바라봤다. 왜 서인지 그런 굳건한 모습을 오래오래 가슴에 새겨두고싶었던것이다.

《통신이 끝나지 않았겠는데 마저 읽어야지...》

창운은 헤덤비며 마저 읽었다.

《남조선 조류학계에서는 바로 몇해전까지도 일본농림성제품 가락지를 사용하였다. 그 번호의 새를 날린 경위는 다음과 같다.

새 날린곳-경성립업시험장

새 날린 날-1963년 6월 7일》

듣고있던 교수는 돌연 얼굴을 쳐들었다. 그리고 흥분을 감추지 못할 때만 보이곤하던 투박한 주먹으로 무릎을 내려쳤다.

《그렇단말이지. 아! 이젠 그 새가 남쪽에까지 뻗어나갔구나. 그러니 멀지 않아 온 강토에 퍼질게다.》

교수는 확신에 차있었으나 여전히 근엄한 자세를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있었다.

자신의 학적명예따위는 안중에도 없던 교수였으나 온 나라에 매달아놓은 인공새등지가 은을 내자 저으기 만족을 참지 못한다.

그 새가 번식되어 남쪽에까지 퍼졌다는 새소식은 고령의 교수를 그처럼 흥분시켰던것이다...

나는 소설과도 같은 이 대목을 원창운이 어떻게 썼을가싶어 몹시 궁금하였다. 그리하여 그때 그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더듬어보기를 그만두었다.

나는 다시 편지를 읽어내려갔다.

삼촌!

저는 그때 그야말로 조류학자의 본보기, 애국
자로서의 참모습을 비로소 발견하였습니다.

몸소 정성들여 보호증식한 새가 이 나라 온 강
토 그 어디에서나 서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
인하였을 때 것처럼 긍지를 느끼시는 할아버님을
저는 꿈에도 잊을수 없습니다.

저는 저렇듯 훌륭한 할아버지의 손자로 태어나
대를 잇게 된다는 긍지로 하여 가슴이 벅차오름
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애야, 왜 더 읽지 않느냐. 날려보낸 사람이 있
을텐데.》

화닥닥 놀란 나는 성급히 통신을 훑어보았습니
다. 통신은 계속되었습니다.

날려보낸 사람-원병후

종류- *Sturnia sturina*

(둥지안의 새끼)

삼촌의 이름이 나오자 할아버님은 비호처럼 다
가와 통신을 앗아냈습니다.

《내 그럴줄 알았다! 아무렴 그놈인들 왜 그 새
에 무심할고!》

할아버님께서 슬하를 떠난 삼촌을 칭찬하는것
을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때 할아버님께서는 무심결에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시더군요. 아마 그 옛날 어린 삼촌을 품에
안고 도닥여주시던 그 감정, 그 장단이 간절히
되살아났는가 봅니다.

허나 할아버님의 기쁨은 순간을 넘기지 못하였
습니다. 편지마저 띄울길이 없어 조류계의 국제
적공약을 아들에게조차 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을 안고 한동안 묵묵히 창밖을 내다보시더군요.

밖에서는 진눈이 구질구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할아버님의 마음은 한결 더 무겁고 아팠
을게 아닙니까.

세계가 다 리행하는 국제적공약이 어찌하여 한
강토, 한겨레 아니 한피줄을 이은 친부자지간에
도 이 땅에서는 실현되지 못한단말입니까!

그날밤 할머니는 흐느껴우시더군요. 삼촌이 쓴
책을 보시고도 울지 않던 할머니가 한갓 딱딱한
통신자료에 실린 삼촌의 석자 이름 우리 가문과
운명적으로 얽혀져있는 그 한마리의 쇠찌르러기
가 아들의 이름을 물고왔다는 단순한 현실앞에
부모없는 손자 여덟명을 맡아 키우시느라 린색하
기 그지없던 할머니도 그날만은 끝내 자신을 다

잡지 못하셨습니다.

《이녀석아! 왜 가락지에 몇자 적어서 안서로
띄우지 못했느냐. 그러면 못쓴다더냐? 아이적 흥
역을 앓으면서 이 에미의 속을 지지리도 태우더
니. 다 자란 지금에도...》

결에 두지 못한 자식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그
리고 아픈 사연을 가슴에 묻어두고 얼마나 심뇌
하였으면 할머니가 이 소식앞에서 삼촌과 이어진
하많은 회고 가운데서 하필이면 애기적시절을 되
새겨보았겠습니까.

조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삼촌은 언제나 요람속
의 아가이며 품속의 아가로 남아있었던것입니다.
피를 나누어 생을 주고 젖을 먹여 자라온 자식이
아닙니까?

삼촌의 가슴에 또 못을 박는줄 알지만 저는 다
시 편지 띄울 기회가 아직은 쉽지 않겠기에 여기
서 할아버님의 림종에 대한 이야기를 마저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할아버님의 아들들대신 할아
버지의 림종을 맞은 손자로서 응당 전해야 할 의
무이기도 하기에 저는 그 소식을 전하지 않고 피
할수가없구만요.

림종을 사흘 앞둔 날 늦은 아침이었습니다.

병석에 누워계시던 할아버님께서는 생의 종말
을 예견하시었던지 저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정든 대학주변을 한바퀴 천천히 돌더니 모란봉
기슭에서 내리셨습니다. 청암리토성이 뻗어나간
홍부동쪽에서 말입니다.

할아버님은 여느날과 달리 지팡이를 버리시고
대신 저에게 의지하여 포장한 공원길을 따라 최
승대가 있는 숲에 이르셨습니다.

숲에는 손수 나무를 타고 올라가 매달아놓은
해묵은 인공새둥지로 꼭 덮여있었습니다.

할아버님은 아무 말씀도 없이 이제는 퍼그나
탈색된 하나하나의 새둥지들을 모조리 올려다보
시며 걸어올라가시는것이였습니다.

아마 굴곡많은 인생, 기쁨도 슬픔도 묵묵히 묵
삭이시며 걸어온 자신의 발자취를 더듬었을것입
니다.

생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그 말없는 둥지들과
일일이 심중을 털어놓거나 하시려는듯 어떤 둥지
아래에서는 한동안 유심히 올려다보며 서계시기
도했고 또 어떤 둥지앞에서는 고개를 끄덕거리기
도하시며 말입니다.

퍼그나 긴 시간을 들여 이렇게 뚫으시던 할아버님은 최승대에 오르시여 앉지도 않고 성벽에 기댄채 먼 남쪽하늘, 삼촌들이 있을 그쪽 하늘을 점도록 굽어보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오던 길로 되돌아 또다시 등지들을 빠짐없이 여겨보시였습니다. 아마 이 시각 등지들과도 리별의 정을 나누었을것입니다.

그때는 생각이 짧아 미처 가늠하지 못했지만 그날 할아버님은 삼촌대신 저에게 등지를 보시며 마음속으로 가르쳐주기도 하고 당부하기도 하면서 하나하나 유산으로 넘겨주시었을것입니다.

그 보잘나위없는 새둥지가 무엇이기에 할아버님은 저를 지렁이삼아 의지하고 불과 며칠밖에 남지않은 여생에서 많은 시간을 떼내어 모란봉에 오르셨겠습니까.

삼촌의 《안서》를 날라온 새가 깃들었던 모란봉이 아닙니까. 보다는 이 땅에 생을 받은 한 평범한 학자로서 한생을 바쳐 공들여온 그 귀중한 것들을 후대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주어야 하겠다는 선배의 의무감에서 그렇게 하였을것입니다.

림종의 시각이 다가왔습니다.

아들없는 자리에 손자 여덟명이 뿔어났습니다.

할머님의 부축으로 침대에서 일어나앉으신 할아버님께서는 마치 점검이나 하듯 손자들을 근엄한 눈길로 굽어보는것이였습니다.

우리들은 소리없이 흐느꼈습니다.

아마 할아버님께서는 우리들의 얼굴에서 아들들의 모습을 찾고있었을것입니다.

이윽고 《점검》을 마친 할아버님께서는 뒤번 힘겨운 기침을 하시더니

《울지들 말아! 생물체가 생을 마치는것은 자연의 범상한 법칙이다!》라고 말씀하시는게 아니겠습니까.

울음을 삼키던 우리들은 너무도 혼연한 자세로 림종을 맞으시려는 할아버님을 홀린듯이 쳐다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성현군자의 형상으로 돋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말씀이 유언이라고 짐작되면서도 도무지 믿어지지않더군요.

《우리 원씨가문은 조류가의 집안이다. 그러니 이 땅의 모든 숲에 새가 육실거리도록 만드는것으로 나라를 떠받드는 기둥이 되어야 한다. 그걸 명심하거라!》

숨쉬기가 가쁘신지 할아버님께서는 잠시 말씀을 끊으시고 또다시 저희들을 둘러보시였습니다.

흐느낌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할아버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할아버지와 애비없는 손자들사이에 이어져있는 마지막정을 소중히 간직하시려는지...

침묵을 지키던 할아버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서야 할머님을 돌아보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자식이 부모와 제 새끼들까지 버리고 달아난것은 잘못된짓이요. 그러나 그것은 미국놈들때문에 빚어낸 나라의 분단이 가져다준 비극이 아니겠소. 그러니 그 애들이 미국놈들을 이 땅에서 내몰고 찾아오면 용서해줍시다. 자식들이 돌아오면 반갑게 맞아주오. 그 애들이 보고싶구려 그 애들이...》

갑자기 튀어나온 기침이 할아버님의 유언을 중단시켰습니다. 우리들은 안타까와 어쩔바를 몰랐습니다.

련사홀 우리와 함께 밤을 지새운 의사선생이 급히 주사를 놓았습니다. 만약 이때 의사선생이 없었더라면 유언은 여기서 끝났을것입니다.

주사의 덕으로 할아버님은 다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벌써 심히 갈려 겨우 가려들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애들이 부모를 찾아올 땐 거저 와서는 안된다고 이르오...》

그때 할아버님은 식어가는 손으로 저의 손을 더듬어잡았습니다.

《창운아! 네가 삼촌들에게 전해다오. 그리고 막내, 기둥으로 믿어왔던 그놈 병후에게는 조류가의 자식답게 남쪽의 새들을 모조리 연구해야 한다고해라.

너에게는 내가 다하지 못한 복의 새를 말긴다. 내가 쓴 책은 60년대전반기까지에 불과하지 않느냐...

미국놈을 내몰고 장벽이 허물어져 통일이 되는 날 너와 나 그리고 삼촌이 연구한것을 합치면 그게 완성된 <조선조류지>가 될게다.

이것이 민족분단의 고통을 몸으로 체험한 우리 원씨가문의 3대가 통일의 축제에 드릴 가장 귀한 선물로 되지 않겠느냐.

내생전에 다 하려고 했는데 나라가 동강나다보니 다하지 못하고 가는구나. 제일 큰 한이 그것

이다. 내 이 소원을 너희들이...》

유언을 마치신 할아버님은 방안의 모든 박제품들과도 정을 나누시듯 둘러보신 다음 편히 누우시더니 이윽고 조용히 눈을 감으시였습니다.

할아버님은 이렇게 운명하시었습니다.

슬하에 둔 자식 다섯가운데 어느 누구도 앞에 놓지 못하고 말입니다.

장대하던 체구가 시신으로 변하자 갑자기 줄아든듯 작아보였습니다. 피부에 남아있던 마지막 윤기마저 사라졌으나 입언처리에만은 약간의 습이 남아있었습니다. 살아생전에 하고싶었던 말을 다하지 못하고 떠나가신듯 입은 약간 벌려져있었습니다.

세상을 버리시게 되는 이 마당에서 할아버님께서는 하고싶은 말씀이 왜 그것뿐이었겠습니까!

못다하신 말씀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분명 단한명의 자식이라도 앞에 두지 못하고 떠나가시게 된 그 분단의 슬픔일것이며 원이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분계선이 가로막혀 레성강을 건너시려다가 건너가지 못하신 할아버님이시기에 그 강을 건너올 길없는 아들들을 기다리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최후의 순간까지라도 아마 그 절박한 기대만은 버릴수가 없었을것입니다.

그러니 아들앞에 남길 유언과 손자에게 할 유언이 어찌 같다고 말할수있겠습니까.

허나 할아버님은 끝내 아들앞에 할 유언만은 남기시지 못한채 가슴에 품고 가셨습니다.

삼촌!

삼촌은 미국놈들때문에 빚어진 나라의 분단-이 엄연한 현실을 결코 외면할수 없는 할아버님의 아들입니다. 저 역시 혈육이며 손자이기에 결코 외면할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제 통일도 멀지 않은 앞날로 보입니다.

통일의 그날, 삼촌은 나서자란 고향, 향시 쓰린 회오속에 잊어본적이 없는 고향에 달려오게 될것입니다. 그때 삼촌은 또하나의 현실앞에서 가슴을 쥐어뜯을것입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버리고 갔지만 나라에서는 할아버님의 장례를 사회장으로, 애국렬사들만이 안치되는 룡에서 잠들게 해주셨습니다.

통일의 그날에도 어차피 생존해계시는 부모님을 만나볼수는 없겠지만 영원한 이름으로 남아있

는 부모님들의 넋은 받아안게 될것입니다.

평양교외 애국렬사릉 대리석비석에 조아박은 묘비문을 알려드립니다.

원홍길

생물학연구소 소장

박사, 교수, 후보원사

3년후에 할머니도 별세하시었습니다. 할머니의 유해도 생전소원을 헤아려 합장했으며 묘비석뒤면에 《부인 최운숙》이라고 새겨넣었습니다.

나란히 누워계시는 조부모님들의 이름은 력사와 더불어 영원할것입니다...

삼촌!

장벽이 허물어지고 끊어졌던 혈맥이 다시 이어지는 그날 삼촌은 유언을 다한 할아버님의 떳떳한 아들로 령전에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그날이 비록 청명이나 한가위, 혹은 제사날이 아니라 하더라도 풍속에 어긋난다고 탓할 겨레는 아무도 없을것입니다.

조상의 품은 언제나 너그러우니까요...

편지를 덮고난 나는 한동안 얼없이 앉아있었다.

밤은 사람들의 무거운 마음을 안고 각일각 깊어갔다.

아침기는 하지만 더 이어지지 않은 취재수첩도 지금은 덮어놓을수밖에 없다.

허나 통일의 려명은 기어이 오고야말것이 아니겠는가.

그때면 나도 끝나지 못한 취재를 마치고 빼곡이 채워진 수첩을 펴놓게 될것이다.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온 겨레가 일일천추로 학수고대하는 그날 독자들은 이 단편소설 《쇠찌르러기》가 아니라 온갖 새들이 수려한 이 땅의 푸르른 숲속에서 노래하며 속삭일 몇권의 다부작 장편소설 《쇠찌르러기》를 받아안게 될것이다.

이것 또한 내가 통일의 축제에 올릴 최대의 선물이 아니겠는가.

나는 그 장편소설을 다시는 이 땅에서 분단의 쓰라린 력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며 세상에 내놓을것이다...

비옥한 땅

심재구

나는 텔레비죤화면에서 눈길을 땔수 없었다.

천연색화면에서는 전국 근로자들의 노래경연에 참가한 어느 협동농장의 농장원처녀가 노래부르고있었다.

그는 누구나 다 아는 노래, 이미 전문배우들이 독창이나 합창으로 여러번에 걸쳐 형상한 고향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나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그 처녀의 노래세계에 끌려들어가는것을 막을길이 없었다.

얼핏 둘러보니 나의 처도, 중학생인 막내동이기도, 마실왔던 이웃집의 아주머니도 나와 같은 심정인듯 숨을 죽인채 화면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있다.

나는 생각에 잠기었다.

저 이름없는 농장원처녀의 노래가 자석이 쇠붙이를 끄당기듯 사람의 마음을 틀어잡고 놓지 않는 비결은 과연 무엇인가?

천성적으로 맑고 부드러운 목청때문인가?

아니면 들판에서 곡식을 가꾸는 처녀라고 하기에는 잘 믿어지지 않는 해맑은 얼굴이며 세련된 몸가짐때문일까?

그것이 아니었다.

그 처녀의 노래는 소박하고 형상이 없는것 같았지만 땀꼭새가 노래하는곳, 로동으로 행복을 가꾸어가는 자기 고향에 대한 진실하고도 열렬한 사랑의 감정이 뜨겁게 굽이치고있었다.

비록 같은 노래이지만 제손으로 오곡백과를 가꾸는 사람만이 가질수 있는 독특한 느낌으로 새로운 노래형상을 창조하고있었던것이다.

전문배우와는 다른 소박하고 진실한 형상의 창조-바로 그것이 듣는 사람의 마음을 틀어잡고 놓아주지 않는 비결이 아닐까?

나는 근로하는 인민이 얼마나 유능한 예술의 창조자인가를 생활속에서, 그것도 무대우에서 체험해본 사람이라 생각은 어느새 20 여년전의 그 날에로 줄달음치고있었다.

...도소재지에서 살던 나는 그때 서해기슭 부라벌의 어느 한 농장에 진출하여 농장원으로 일하고있었다. 낮에는 들에서 곡식을 가꾸는 농장원

이였지만 저녁이면 농장문화회관에서 군중예술을 꽃피우는 정열적인 《연출가》였고 《배우》였으며 기지있는 《작가》이기도 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작가, 예술가들은 위대한 예술의 진정한 창조자는 언제나 인민이라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전국농촌예술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경악극 《노래하는 부라벌》을 준비하고있었다.

경악극 《노래하는 부라벌》은 덩치가 큰 작품이였다. 출연자만해도 78 명이였으며 공연시간만해도 35 분짜리였다.

나는 이 작품을 통해서 농촌제제의 빛발아래 지상락원으로 활짝 꽃피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에 대한 송가를 목청껏 부르고싶었다.

한데 그만 이 작품창조에 쏟아붓는 나의 비길데없는 열정이 뜻하지 않은 암초에 부딪칠줄이야 ...

전국축전에 참가할 날자는 바둑바둑 다가오고 있는데 작품의 생명이라고 할수 있는 진실성문제가 일정에 올라 연습이 계속 앓은방아를 찼고있었던것이다.

우리 농장예술소조원들이 가을걷이와 탈곡을 끝내기 바쁘게 도에 올라온지도 벌써 여러날이 지났다. 나는 초조와 불안, 조급성과 안타까움속에서 모대기였다.

경악극 《노래하는 부라벌》은 만풍년든 부라벌의 벼가을로부터 시작하여 탈곡과 결산분배장면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을 포괄하면서 무용, 로인제창, 처녀들의 가무, 혼성중창이야기, 예순이 넘은 장혁로인의 바이올린독주 등 다양한 예술종목을 한데 묶게 되어있었다.

그러자니 이 개개의 구슬들을 하나로 꿰매는 《실》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내가 가짜수염을 붙이고 무대에 올라가 설화도 하고 련결제담도 하면서 《실》노릇을 하고있었다. 그런데 언제나 로인제창조와의 교체에서 걸리곤하였다. 분장을 한 《로인》인 나는 실지 로인인 그들과 도대체 교감을 할수가 없었던것이 다.

자기들끼리는 마주쳐다보고 어깨춤까지 추며
그처럼 구수한 목소리로 《기계화 좋을시구》를 노
래하던 로인들이 내가 다가가서 마주 서기만하면
눈이 초점을 잃고 허둥거리다가 대사를 까먹곤한
다. 그러면 한창 고조되었던 무대감정이 봄눈 녹
듯 스러진다.

도에서 이사람저사람 여러명의 전문가들까지
나와 그 해결방도를 놓고 모색하였으나 로인들의
연기술이 낮으니 어쩔수 없다는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곤하였다. 나의 연기는 비교적 《높은 수
준》이었으니까...

평양에 올라갈 날자는 이제 닷새밖에 남지 않
았다. 이 닷새어간에 한생을 들뜬에서 살면서 무
대라고는 난생 처음 타보는 이 늙은이들의 연기
술이 어느 정도나 올라가겠는지? ...

그날도 나는 맥빠진 걸음으로 러관방을 향해
터벅 터벅 발걸음을 옮겨놓았다. 내가 호실문을
여는 순간이었다.

《수고를 하누만.》 뜻밖에도 귀에 익은 목소리
가 울렸다.

머리를 쳐드니 늙은이들속에 예뻐싸여있던 리
당당위원장의 컴컴하고 길쭉한 얼굴이 다가오며
반갑게 맞아주는것이 아닌가.

《언제 오셨습니까?》

《어제 왔소. 도당에서 회의가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빈손 들고 왔으니 어쩐다?》

무뚝뚝한 목소리였으나 얼마나 정답게 가슴에
젖어드는지 모르겠다. 순간 나는 내가 리당위원
장을 몹시 기다리고있었다는것, 끝없이 맑고 깊
이보이는 그의 마음과 마주앉아 내가 겪고있는
이 고충을 다 털어놓고싶었다는것을 새삼스럽게
느끼었다.

나는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아버지한테 응석부
리는 아이처럼 지금 작품이 겪고있는 진통에 대
하여 그리고 그 해결방도가 막연한데 대하여 자
초지종 다 털어놓았다.

《내 아까 고무단에 가서 관통연습하는걸 봤
소.》

《예? 보셨다구요?》

《내가 보기엔 수준이 때나 올라갔드구만 뭘,
장혁로인이 바요린을 타다가 무대가 다같이 <풍
년가>를 부르는 대목이 아주 좋아. 최뚝에서의
오락회장면을 그대루 보는듯하거든...》

내가 그에게서 바라는것은 이러루한 일반적인
고무가 아니었다.

리당위원장은 자주 껌벅이는 정기있는 눈으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이 아바이들하구는 좀 토론해봤소?》

《아바이들하구 말입니까? 뭘 별루...》

《그러니까 앓은방아만 짙었지 허허허...》

《에?!》

리당위원장은 다정히 내 손을 잡으며 계속하였
다.

《로인들의 의견두 그렇구 내 생각에두 동무가
가짜수염을 붙이고 나같것이 아니라 성찬아바이
가 그 뭇을 대신하면 안될가 하는 생각이네.》

《성찬아바이가요?》

《그전에 방송야회할 때 못봤소? 제말루 구수하
게 얼마나 이야기를 잘한다구.》

《...?》

《진실성문제가 논의된다구 했지? 내 보기엔 진
짜 로인들속에 가짜<로인>이 섞들려 돌아가는게
꼭 물사발에 기름방울 떠다니듯 잘 조화가 안되
는것 같더구만. 그렇다구 뭘 꼭 성찬아바이를 대
신시키라는건 아니구...》

이건 하나의 발견이었다.

나는 말이 채 끝나기도전에 와락 달려들어 그
의 팔을 움켜쥐고 흔들었다.

《됐습니다. 됐어요! <실>이 풀렸습니다.》

《아아 아야! 이사람 이거 왜 이래. 허허허.》

리당위원장은 결코 예술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
아니다. 한때는 안전일군이였고 그뒤에는 리당위
원장으로 벌써 10 여년째 일하고있었다. 그런데
그는 농사일로 늙어온 로인들과 생각을 합쳐 전
문가들도 미처 가려보지 못했던 치명적인 약점을
꼬집어내였고 그 해결방도까지 암시해주고있지
않는가.

맞았다. 《노래하는 부라벌》의 진실성문제는 로

인들의 연기술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다.

모든것이 생활그대로인 이 작품의 생리에 맞게 가짜가 끼여들었기때문이었다. 로인들의 느낌은 실지 생활체험을 통한 진실한 느낌이었으나 나의 느낌은 분석과 판단, 상상력에 기초한 《배우》의 느낌이었다. 로인들의 목소리는 전야에서 울리던 생활그대로의 진정의 목소리였으나 나의 목소리는 내가 60 넘은 늙은이라는 《배우적자감》에 기초한 가공된 목소리였다.

바로 이것때문에 무대는 듣기 거북한 불협화음을 내고있었던것이다!

진단과 처방이 명백한이상 빨리 수술칼을 들이대야 하였다.

나의 눈앞에는 벌써 마디가 굵고 손가락이 모두 안쪽으로 휘여든 성찬로인의 갈퀴진 손이 선히 떠오르면서 활막앞에 나가 그 손을 흔들며 관중앞에서 자기심정을 그대로 터쳐놓는 그의 웅글은 목소리가 들려오는듯싶었다...

그리하여 작품의 줄거리를 꿰매나가는 《실》의 역할을 가짜로인이 아니라 진짜로인이 담당하게 되었고 무대에서는 농촌테제의 빛발아래 기계농사지며 마음껏 행복을 누려가는 78 명 농민들의 진정에 넘친 목소리가 잘 조화된 화음을 이루어 사회주의농촌에 대한 열렬한 송가로 높이높이 울리었다.

가사

금꿀의 둥근달

한정규

하루일 마치고 갱구를 나서니
마천령 하늘가에 달이 솟았네
혁신의 새 소식 너도 알리고
금꿀의 높이 뻗다 아, 둥근달

하루일 넘쳐한 자랑 없이야
네 밝게 웃는다고 나도 웃으랴

가식과 꾸밈이 없는 생활의 진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우리 작품은 축전무대에서 특등상을 받았고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공연하는 최상의 영광까지 지니게 되었다.

우리들의 소박한 공연을 보아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매우 만족해하시며 경악극 《노래하는 부라벌》은 대작이라고, 도가무단 못지 않다고, 농촌씨클은 이런식으로 해야겠다고 참으로 분에 넘치는 치하의 교시를 주시였다!...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러 세대교체도 있었고 생활은 멀리 전진하였다.

그러나 내가 지금도 그때의 일을 어제런듯 생생히 기억하며 잊지 못하고있는것은 사회주의 우리제도하에서는 인민이 예술의 향유자일뿐만 아니라 진정한 예술의 창조자라는 생활의 진리를 뼈에 사무치도록 절감하였기때문인가싶다.

그렇다. 어제도 오늘도 또 래일도 생활의 이 진리는 변함이 없을것이다.

아름다운 꽃과 풍성한 열매는 비옥한 토양에 그뿌리를 두고있는 법이다.

그러니 주체의 내 조국이야말로 근로하는 인민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워주고 군중예술의 풍만한 열매가 주렁지게 해주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가장 비옥한 땅이 아니겠는가!

금꿀의 광부된 자랑을 안고
너를 보며 웃노라 아, 둥근달

정다운 퇴근길에 둥근달 웃고
쇠돌로 조국 빛낼 마음 불타네
언제나 뗏뗏이 이 길 걸으며
위훈을 떨쳐가리 아, 둥근달